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연구

2025. 02.



교육전담 중간지원조직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연구」

2025. 02

제 출 문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 과제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연구」의 결과보로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2월

연구책임자 : 한지영(대진대학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용역과제를 수행한 연구자의 의견이며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 내용	3
3. 연구방법	4
II. 2022 교육과정 및 교원양성 프로그램 동향	9
1. 2022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9
2. 2022 교육과정 구성의 증점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요 변화	11
3. 교원양성 프로그램 및 변화 동향	16
4. 종합 및 시사점	20
III. 완주군 매개자 양성과정 운영 현황	23
1. 교육통합모델의 이론적 근거	23
2. 매개자 양성과정의 구성 요소 및 교육모듈 분석	26
3. 교육 모듈에 대한 참여자들의 교육 후기 분석	34
4.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사항 도출	42

IV. 완주군 매개자들의 양성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45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45
2. 완주군 매개자의 참여동기, 업무경험 및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	46
3. 매개자 양성과정에 대한 인식	57
4. 매개자 양성과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67
5. 종합 및 시사점	76
V. 완주군 매개자 양성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인터뷰 분석	79
1. 매개자 대상 인터뷰 분석 결과	79
2. 매개자 체제 지원 관계자 대상 인터뷰 분석 결과	91
3. 종합 및 시사점	103
VI. 완주군 매개자 양성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107
1. 사전교육	108
2. 교육활동	110
3. 사후활동	118
VII. 결론 및 제언	119
1. 결론	119
2. 제언	124
■ 참고문헌	127

표 목차

<표 I-1> 1차 FGI 대상	5
<표 I-2> 2차 FGI 대상	6
<표 I-3> 전문가협의회 대상	7
<표 II-1>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체계	12
<표 II-2>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급별 영역별 운영 중점사항	13
<표 II-3>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목표 및 예시활동	15
<표 II-4> 교원양성과정 지향점 설문	17
<표 II-5>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최저 이수 기준	18
<표 III-1> 교육통합 활동체계 요소 분석	25
<표 III-2> 사전인터뷰 양식	28
<표 III-3>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연도별 학교 프로젝트 현황	32
<표 IV-1> 조사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45
<표 IV-2>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과정 인지 경로	47
<표 IV-3>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참여 영향 주체	48
<표 IV-4>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의 이전 교육경험 여부	49

<표 IV-5>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과정 진입 장애요인	51
<표 IV-6>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1순위)	53
<표 IV-7>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2순위)	54
<표 IV-8>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3순위)	55
<표 IV-9>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56
<표 IV-10>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기술통계	57
<표 IV-11>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기술통계	59
<표 IV-12> 성별에 따른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t검증	60
<표 IV-13> 연령대에 따른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F검증	61
<표 IV-14> 전공분야에 따른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중요도 F검증	63
<표 IV-15> 매개자에게 요구되는 중요 역량(2개까지 선택)	66
<표 IV-16> 매개자에게 요구되는 항목별 중요 역량(2개까지 선택)	66
<표 IV-17>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67
<표 IV-18> 성별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수준의 만족도 t-검증	68
<표 IV-19> 연령대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F검증	69
<표 IV-20> 학력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F검증	70
<표 IV-21> 매개자를 바라보는 교육주체별 매개자의 인식수준	72
<표 IV-22> 전공분야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72
<표 IV-23> 매개자 경력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수준에 대한 F검증	75
<표 VI-1> 사전인터뷰 질문 변경안	111

그림 목차

[그림 II-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9
[그림 II-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영역과 활동	15
[그림 II-3] 교육실습 생태계 조성 체계	19
[그림 II-4] 다교과 역량 구성요소	19
[그림 II-5] 초등학교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안	20
[그림 III-1] 교육통합 실천 모형	26
[그림 III-2] 사후인터뷰 양식지	31
[그림 III-3] 성장일지 양식지	31
[그림 IV-1]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중요도&난이도 산점도	65
[그림 VI-1] 매개자 양성과정 개선안	107
[그림 VI-2] 수업계획서 양식	114
[그림 VI-3] 성찰일지 양식	116
[그림 VI-4] 성장일지 양식	117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가. 지역 교육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가교로써의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 2012년 8월 완주군의 제안으로 지자체 주도의 교육에 관한 고민을 실천하는 ‘교육통합’을 시작함
 - 구체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교육통합의 기능을 가진 교육전담중간지원조직을 발족시킴
 - 교육통합은 지역사회 교육문제를 학교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이 ‘공동대응’하는 것임
 - 교육에 대한 이해가 충분치 않았던 완주군이 커뮤니티비즈니스 센터(이하, ‘CB’) 설립과정을 교육전담 중간지원조직에 적용하고 열린 행정으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함

- 교육통합의 시도인 교육전담중간지원조직인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의 발전 과정을 분류해 보면, 태동기, 기반구축기, 적용기, 확장기, 도약기를 지나 현재도 여전히 진화·발전 중에 있음
 - 태동기 교육통합의 미션은 “함께 사는 가치 통합적 사고 중심의 완주교육설계”, 비전은 “잡자는 교실 깨우기”로 시작하였으나 도약기의 미션은 “살아 숨쉬는 교육, 서로를 살리느니 교육의 장 만들어가기”, 비전은 “지역과 함께 만드는 교육 전문 플랫폼”으로 변화되어 옴

- 태동기 ‘완주군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적 공헌 연구’, ‘교육공동체 발굴 양성’, ‘희망키움 이동학습’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다가 기반구축기 핵심사업으로 제시된 ‘교육자원 발굴육성’, ‘조사연구 및 DB구축’, ‘교육 네트워크’, ‘방과후 활동지원’, ‘홍보 및 대외협력’ 사업 활동 ‘교육 네트워크’ 사업에서 처음으로 ‘매개자 교육’의 개념이 등장함
 - ‘매개자교육’은 교육통합형 전문가를 그룹으로 배출하기 위한 과정으로 협업을 기초로 교육통합프로그램을 실행함
 - 2014년 매개자교육 1회 10~15명 규모로 30차시의 기초, 심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99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으며, 이들은 교육통합 모델에서 학생중심수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고, 지역사회에 교육의 중심에 전문가로 활동을 시작함

- 2016-2018년 적응기에 들어와 매개자교육의 성과가 가시화됨. 즉, 완주교육정책이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아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대한민국 지방자치 창의행정부문 우수상을 수상함.
 -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국내 유일의 교육 중간 전담조직으로, 학교 현장의 고민과 특성에 맞는 자존감 회복 및 리더십 향상, 진로직업 프로젝트 등 학생들이 기획에서 실행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육통합 프로그램을 개발·실행해 학생·학교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한 공적을 인정받음
 - 2017년까지 11기가 양성되면서 2018년에는 매개자교육과정 이수 교육생들이 매개자 심화교육을 요청하여 특별과정이 열림으로써 이들의 역량이 한층 고도화되는 기회를 마련하였음

- 2020년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견고하던 교육과정 내용 및 이수 시간이 최소의 과정으로 축소되어 학교 진입이 느슨해짐
 - 기본 30시간(교육통합 철학적 배경, 매개자이해, 교안작성 및 실습, 프로젝트 기획, 지역사회 이해, 인터뷰), 현장 참여관찰 및 현장실습(초등 및 타운홀미팅 매개자 활동)의 교육과정 운영

- 2022-2023년 도약기에는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매개자, 마을강사, 교육공동체 구성과 역량강화 및 새로운 매개자를 교육할 수 있도록 발굴, 양성을 주요 사업방향으로 설정하였음
 - 2023년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가 10년이 되는 시기로 중간지원조직이 학교와 지역사회의 가교역할을 해야 하는 중요한 미션을 달성하고자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비한 ChatGPT 활용 교육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의욕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예산과 시간 및 강의수준과 수요자의 이해도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

나. 새로운 10년, 그 이후를 대비한 준비의 필요성

- 2014년 매개자교육이 전국 최초로 완주군에서 시행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내 많은 긍정적인 영향과 역할의 확대를 거듭해 왔으나, 급속한 과학기술의 변화 및 지역의 인구분포 등의 변화로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할 시기가 도래함
- 1995년 지방자치제도가 우리나라에 새롭게 도입되면서 다양화, 분권화의 큰 주류 속에서 지역의 인구소멸 등 위험요소를 타개할 가장 효과적인 전략 중 하나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일 것임
 - 지역공동체는 지리적으로 제한된 공간 안에서 활동하는 '지역성', 구성원들 간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 공동의 유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고 정체성을 형성하는 '공동의 유대'를 기본적인 구성요

소로 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는 중앙정부의 대응 미흡으로 인한 사회문제(복지, 교육, 안전)의 자체적 해결, 저성장 시대의 지역경제문제 해결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임¹⁾

○ 10년이라는 세월의 가치

-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10년이 갖는 의미와 가치는 매우 큼. 그러나 2020년 지식의 양이 73일마다 2배씩 늘어나는 시점에서 지난 10년의 매개자 양성과정을 객관적으로 돌아켜보는 작업은 어찌면 때 늦을 수도 있음
- 특히,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는 교육중간지원조직의 우수 사례로 지난 10년의 운영현황과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고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고도화함으로써 지역 교육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함

2. 연구 내용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양성과정 운영 현황 및 효과성 분석을 통한 매개자 양성프로그램의 현 주소 진단

- 매개자 양성과정의 구성 요소 및 교육 모듈 분석
- 교육 내용에 대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및 필요성 평가
-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사항 도출

○ 학교 교육과정의 동향 및 교사양성과정 현황 분석

- 초·중·고등학교 국가 교육과정 개정 동향 및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요 변화 분석
- 교사 양성과정 및 변화 동향 분석

○ 완주군매개자 양성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매개자 대상 양성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만족도 분석
- 매개자 대상 양성과정의 취약점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의견 도출

1) 이지훈(2020). 지역공동체의 의미와 필요성. 경기학통신.8.

- 매개자 제도 관계자 대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 매개자 양성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제시를 통해 센터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역교육력 강화 지원방안 도출
 - 매개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방안 도출
 - 지역사회 연계 강화를 위한 협력 모델 제안
 -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원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 완주군통합지원센터의 백서를 비롯한 관련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 및 활동일지 등을 분석함
- 매개자 통합교육 관련 사례 및 이론적 근거를 분석함

나. 조사연구

- 조사내용 : 매개자 양성과정 과정상 및 활동과정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매개자 활용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 만족도 및 매개자에 대한 인식
- 조사대상 : 매개자 양성과정 이수자, 매개자들이 활동한 학교와 지역사회
- 조사규모 : 전체적으로 100명 규모
- 조사시기 및 방법 : 1월 13일~1월 22일(10일간), 온라인 조사
- 응답률 제고 방안 : 설문조사에 대한 답례로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지급
- 분석도구 및 분석방법 : SPSS Statistics 27.0 version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교차분석, 카이검정,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등의 분석을 실시함

다. 초점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 1차 초점그룹인터뷰

- 인터뷰 대상 : 매개자 양성과정 이수자 및 활동가 5인

<표 I-1> 1차 FGI 대상

이름	연령대	매개자 경력	비고
김○○	40대	2016 ~ 현재(9년)	청소년지도사
박○○	50대	2019 ~ 현재(6년)	
김○○	50대	2020 ~ 현재(5년)	마을기업 관련 활동
서○○	50대	2020 ~ 현재(5년)	청소년노동인권활동, 학생상담자원봉사자활동 등
이○○	40대	2021 ~ 현재(4년)	-

- 인터뷰 일시 : 2025.01.09.(목) 10:00~12:00

- 인터뷰 장소 :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2층 회의실

- 인터뷰 내용 : 별첨자료 1. 참고

- 매개자 양성과정 및 활동과정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 매개자 및 마을강사의 학교 및 지역사회에의 영향(긍정적, 부정적 차원)
- 매개자의 역할 범위의 확대 가능성
- 매개자 및 마을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역량강화에 필요한 사항
- 기타

○ 2차 초점그룹인터뷰

- 인터뷰 대상 : 매개자 프로그램 행정 및 교육지원 전문가 7인

<표 I-2> 2차 FGI 대상

이름	연령대	현직	매개자 관련 경력
곽○○	40대	교육관련 대표	강사(7년)
기○○	60대	초등학교 교육복지사	학교와 매개자 연계
유○○	50대	면사무소 관계자 1	초기 매개자 과정 행정지원
윤○○	40대	교육지원청 장학사	학교마을강사(매개자) 교육청 지원
임○○	50대	교육기관 소속 강사	강사(8년)
최○○	60대	중학교 교장	초기 매개자 과정 교육 및 행정지원
○○	○○	면사무소 관계자 2	매개자 과정 행정지원

- 인터뷰 일시 : 2025. 02. 06(목) 10:00~17:00 / 2025. 02. 26(수) 11:00~12:00
- 인터뷰 장소 : 순회형(고산면행정복지센터 → 고산면 인근 → 전주시) / 완주교육지원청
- 인터뷰 내용 : 별첨자료 2.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개자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 • 매개자의 지역사회 협력 및 발전에 미친 영향 요인 • 매개자 역할과 역량에 대한 인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 기타

라. 전문가협의회

- 교육중간지원조직 강사 양성과정 전문가, 지역공동체 전문가, 평생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가협의회를 진행함
-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매개자 양성과정 개선방안을 함께 도출하고,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지역사회 연계 협력모델을 도출하고자 함
- 전문가협의회 구성 대상

<표 I-3> 전문가협의회 대상

이름	연령대	학력	평생교육 및 교육관련 경력 사항	비고
방○○	40대	박사	산학협력 교육 전문가	교육학박사
오○○	40대	박사	국가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사업 운영	”
이○○	50대	박사	지자체 평생교육 산하기관 정책 개발자	”

II. 2022 교육과정 및 교원양성 프로그램 동향

1. 2022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

가. 추진배경 및 총론 주요 개정내용

○ 추진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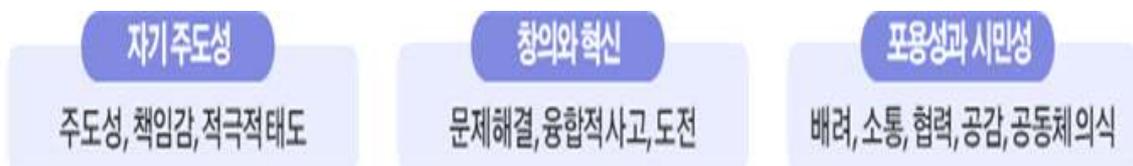
- 미래 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학습자 주도성, 창의력 등 역량을 체계화 하고, 지역·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디지털·인공지능 기반의 교실 수업 개선 등을 주요 방향으로 함

○ 총론 주요 개정 방향

- 미래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기초소양 및 자신의 학습과 삶에 대한 주도성 강화
- 학생들의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공동체 의식 강화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마련
- 학생이 주도성을 기초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과 교육과정 마련

○ 총론 주요 개정내용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제시



[그림 II-1]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

-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고자 추구하는 인간상에서는 학생의 주도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등을 강조하기 위해 현행 교육과정의 ‘자주적인 사람’을 ‘자기주도적인 사람’으로 개선함
- 우리 교육이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교과교육 방향 및 성격을 기초로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으로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강조하여 제시함

○ 학교급별 주요 개정 사항

-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군)에 입학 초기 적응활동을 개선하고, 한글 해득 교육과 실외 놀이 및 신체활동 내용 강화함. 특히,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 학생 발달 수준에 맞는 체험·실습형 안전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함
- 중학교는 자유학기(1학년) 편성 영역 및 운영 시간을 적정화하고,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의무 편성 시간을 적정화**하여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특히 고등학교 진학전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 교과별로 배울 학습내용과 진로 및 이수경로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을 도입하고 자유학기과 연계하여 운영
-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 선택 교육과정으로 명시하고, 한 학기에 과목 이수와 학점 취득을 완결할 수 있도록 재구조화함. 특히, 학습자의 진로와 적성을 중심으로 비판적 질문, 실생활 문제해결, 주요 문제 탐구 등을 위한 글쓰기, 주제 융합 수업 등 실제적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선택과 융합선택과목을 신설하고 재구조화함

○ 교과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 깊이 있는 학습, 교과 간 연계와 통합, 삶과 연계한 학습, 학습 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역량 함양 교과 교육과정 개발
- 다양한 문제해결 상황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법을 탐구하여 자신만의 방식으로 과정을 실천하는 학습자 주도성 강조함.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비판적 질문, 토의·토론수업, 협업 수업 등 자기 능력과 속도에 맞춘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학생 주도형 수업으로 개선하고, 학습 내용뿐 아니라 준비와 태도, 학생 간의 상호작용, 사고 및 행동의 변화 등을 지속해서 평가하는 등 학습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와 개별 맞춤형 피드백 등을 강화함
-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기존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4개 영역을 개선하여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3개 영역으로 조정하되, 봉사활동은 동아리활동 영역에 편성되어 모든 활동과 연계 가능하도록 함

2. 2022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사항과 창의적 체험활동의 주요 변화

가.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사항

- 교육과정은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추구해 온 교육 이념과 인간상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함양하여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둠
 - 디지털 전환, 기후·생태환경 변화 등에 따른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신의 삶과 학습을 스스로 이끌어가는 주도성을 함양함
 -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협력하는 공동체 의식을 함양함
 - 모든 학생이 학습의 기초인 언어·수리·디지털 기초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하여 학교교육과 평생 학습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게 함
 -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학습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적절한 시기에 학습할 수 있도록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체계를 구축함
 - 교과 교육에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과 간 연계와 통합, 학생의 삶과 연계된 학습, 학습에 대한 성찰 등을 강화함
 -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활성화하고, 문제해결 및 사고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통해 학습의 질을 개선함
 - 교육과정 자율화·분권화를 기반으로 학교, 교사, 학부모, 시·도 교육청, 교육부 등 교육주체들 간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특성과 학교 여건에 적합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음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하며 이에 필요한 기초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탐구하며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이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성찰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 다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하고 경청하는 가운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며 상호협력적인 관계에서 공동의 목적을 구현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개방적·포용적 가치와 태도로 지속 가능한 인류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나. 초중고의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규모 및 중점사항

○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규모

<표 II-1> 창의적 체험활동 편성 체계

단위: 시간(초·중), 학점(고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고등학교**
	1~2학년	3~4학년	5~6학년		
교과(군)	1,506	1,768	1,972	3,060	174
창의적체험활동	238	204	204	306	18(288시간)
계	1,744	1,972	2,176	3,366	192

* 1시간의 수업은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진행

**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하여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

○ 창의적 체험활동의 중점사항

- 학교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을 학생들의 발달 수준,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년(군)별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
- 학교는 지역과 연계하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 자율시간을 편성·운영하며(3학년~중학교), 운영과목과 활동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하되, 다양한 과목과 활동으로 개설하여 운영함
- 학교 자율시간은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하여 운영
- 초등학교는 학교의 특성, 학생·교사·학부모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과(군)별 및

-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음
- 중학교는 진로 연계교육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진로활동 및 자유학기 활동과 연계하여 운영함

<표 II-2> 창의적 체험활동의 학교급별 영역별 운영 중점사항

학교급	운영 중점
초등학교	<p><자율자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함양 - 정서적·심리적 안정과 입학 초기 및 사춘기 적응 - 즐거운 학교생활 및 다양한 주제 활동 경험 - 학생 자치 회의, 학급회의 등 공동체를 통한 의사소통 경험 - 민주적 의사 결정의 기본 원리 이해와 실천 <p><동아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의·융합적 사고를 통한 현재와 미래의 문제 해결 - 다양한 경험과 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 체험 - 삶을 풍요롭게 하는 신체 활동 및 놀이 - 인간과 환경의 공존을 위한 지속가능한 환경보호 <p><진로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 - 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한 진로 체험 - 다양한 직업 세계 탐색 - 진로 기초 소양 함양
중학교	<p><자율자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관심사를 주체적으로 모색하여 관련 탐구 활동 수행 - 사춘기의 신체적·정서적 변화에 성숙하게 대처하는 태도 함양 -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 형성 - 주도적으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봉사하는 태도 함양 - 학생 자치 회의, 토론회 등 공동체 협의를 통한 의사소통 - 민주적 의사 결정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 함양 <p><동아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심 분야에 대한 탐구력 및 문제해결력 신장 - 다양한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소양과 소질 함양 - 스포츠 활동을 통한 건전한 심신의 발달 - 사회 구성원으로서 봉사하는 나눔과 배려의 태도 함양 <p><진로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인 자아 개념 강화 - 일과 직업에 대한 폭넓은 가치 탐구 - 실제 경험을 통한 직업 세계의 이해

	- 진로 탐색 및 진학으로의 연계
고등학교	<p><자율·자치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진학취업)와 연계된 분야의 주제 탐구 활동 수행 - 삶과 연계된 다양한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함양 -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 및 공동체에 봉사하는 활동 수행 -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을 존중하는 의사소통 능력 신장 - 학생 자치 회의, 토론회, 자치법정 등 공동체 협의를 통한 의사소통 - 협력적 사고를 통한 공동의 문제해결능력 함양 <p><동아리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진학취업)와 관련된 전문 학술 분야의 탐구 능력 신장 - 문화·예술적 안목 형성 및 창작 능력 배양 -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심신의 능력 향상 - 주도적으로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는 활동 수행 <p><진로 활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자아 개념과 건강한 직업의식을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 - 자신의 꿈과 비전을 진로(진학취업)와 연결하여 학업 및 진로 설계 능력 함양 - 자신의 적성에 따라 진로를 탐색하고 그에 따른 잠재 능력 개발 - 다양한 진로 체험을 통한 졸업 이후의 삶 준비

출처; 교육부고시 제2022-33호 초등학교 교육과정. p.507-508.

- 창의적 체험활동의 성격 :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들이 건전하고 다양한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고 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며, 창의적인 삶의 태도와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교육과정으로 다음과 같은 성격을 지님
 - 역량 함양을 위한 학습자 주도의 교육과정으로,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됨
 - 교과와의 연계, 학교급간 및 학년간, 그리고 영역 및 활동 간의 연계와 통합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운영하는 교육과정으로, 학생의 흥미와 관심, 교육적 필요와 요구, 지역사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정 영역과 활동에 중점을 두고 융통성 있게 설계 가능
 - 학교의 자율적인 설계와 운영을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는 학교와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전문성을 갖춘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그림 II-2]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영역과 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 활동 및 예시활동

-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3개 영역에 대한 세부 활동과 활동목표의 예시활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표 II-3> 창의적 체험활동 영역별 활동목표 및 예시활동

영역	활동	활동목표	예시활동
자율·자치 활동	자율 활동	학생이 주제를 스스로 선택하여 활동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환경적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자기주도성 함양	- 주제 탐구 활동: 개인 연구, 소집단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 - 적응 및 개척 활동: 입학 초기 적응, 학교 이해, 정서 지원, 관계 형성 등 -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개인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공동 프로젝트형 봉사활동 등
	자치활동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타인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공동체 문제를 상호연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역량 함양	- 기본생활습관 형성 활동: 자기관리 활동, 환경·생태의식 함양 활동, 생명존중의식 함양 활동, 민주시민 의식 함양 활동 등 - 관계 형성 및 소통 활동: 사제동행, 토의·토론, 협력적 놀이 등 - 공동체 자치활동: 학급·학년·학교 등 공동체 중심의 자치활동, 지역사회 연계 자치활동 등
동아리 활동	학술·문화 및 여가 활동	동아리 활동을 통해 다양한 학술 분야와 문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탐구력과 심미적 감성 함양	- 학술 동아리: 교과목 연계 및 학술탐구 활동 등 - 예술 동아리: 음악 관련 활동, 미술 관련 활동, 공연 및 전시 활동 등 - 스포츠 동아리: 구기운동, 도구운동, 계절운동, 무술, 무용 등 - 놀이 동아리: 개인 놀이, 단체 놀이 등

	봉사 활동	학교 인팍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함으로써 포용성과 시민성 함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봉사활동: 또래 상담, 지속가능한 환경 보호 등 - 지역 사회 봉사활동: 지역 사회참여, 캠페인, 재능 기부 등 - 청소년 단체 활동: 각종 청소년 단체 활동 등
진로 활동	진로 탐색 활동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 진로 및 직업 세계의 특성과 변화를 이해하여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건강한 직업 가치관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이탐색 활동: 자기이해, 생애 탐색, 가치관 확립 등 - 진로 이해 활동: 직업 흥미 및 적성 탐색, 진로 검사, 진로 성숙도 탐색 등 - 직업 이해 활동: 직업관 확립, 일과 직업의 역할 이해, 직업 세계의 변화 탐구 등 - 정보 탐색 활동: 학업 및 진학 정보 탐색, 직업 정보 및 자격(면허) 제도 탐색, 진로진학 및 취업 유관기관 탐방 등
	진로 설계 및 실천 활동	자신의 진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희망하는 진로와 직업 경로를 설계하고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준비 활동: 진로 목표 설정, 진로 실천 계획 수립 등 - 진로계획 활동: 진로 상담, 진로 의사 결정, 진로 설계 등 - 진로체험 활동: 지역사회·대학·산업체 연계 체험활동 등

3. 교원양성 프로그램 및 변화 동향

가. 미래 교육환경을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변화 동향

- 교육부는 현장을 이해하고 변화를 준비하는 미래교원을 위해 2021년 12월에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발표함
- 미래 교육환경의 변화
 - (사회 변화) 4차 산업혁명, Post 코로나로 인해 AI·빅데이터 등 기술발전과 더불어 다원성·개별화 등 가치체계 변화 가속화
 - (학교 변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맞춤형 교육 필요성이 높아지고, 학생 선택권 및 교육과정 재구성·자율성 확대 등 학교의 변화 촉진
- 현행 체제에 대한 새로운 요구
 - (초등 교원) 학령인구 급감 따른 수급 감소, 교대 소규모화에 따른 교육과정 다양성 미흡, 교원의 새로운 역할(안심학년제, 기초학력 보장, 놀이교육 등)에 대한 요구 증대

- (중등 교원) 과잉양성·높은 임용경쟁률, 일부 교육대학원의 낮은 질 지적 등 교육실습 내실화, 복수전공 필요성(고교학점제 도입,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융복합 교과 등에 대비 필요) 등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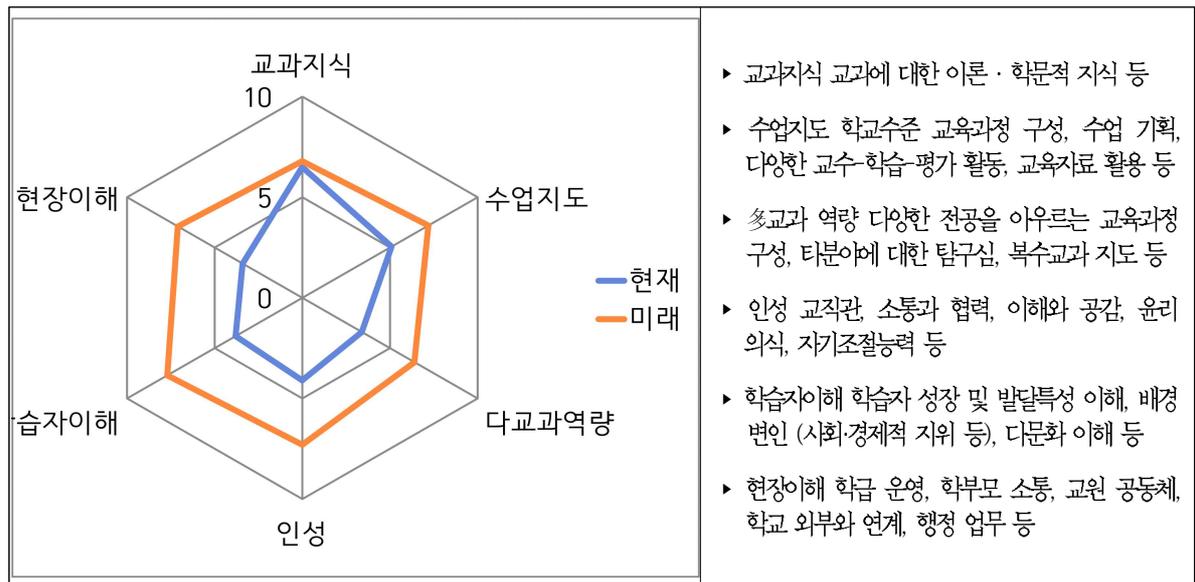
○ 미래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초소양 및 역량 함양 교육과정으로 개선
- 자기주도성을 함양하는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 교육과정 자율성 강화
- 디지털 기반의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 및 평가 혁신

○ 교원의 역할 변화

- 지식교육에 더하여 학생의 성장·진로개척을 함께하는 협력자 :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단순 시연하는 것을 넘어 교과간 융합 등 교육과정 재구성, 학습자 주도의 수업 구안 등 수업 기획자
- 학급관리자에 더하여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중재자
- 변화에 대한 통찰력 및 탐구심(열린 태도), 새로운 기술(지능정보기술 등)에 대한 수용성 등 미래를 유연하게 준비하는 혁신가

<표 II-4> 교원양성과정 지향점 설문



나. 현행 초·중등학교 교원양성 프로그램

-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무시험 검정 기준은 전공 50학점, 교직 22학점, 인·적성검사 2회 등 교원자격 검정 기준에 맞추어 대학 자율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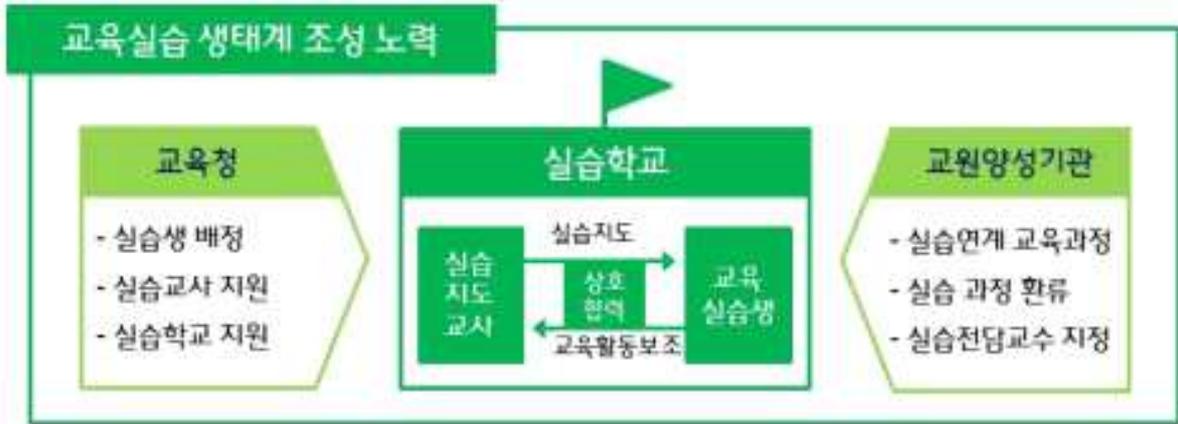
<표 II-5> 교원양성 교육과정의 최저 이수 기준

구분		최저 이수 기준	
		중등	초등
전공 (50학점 이상)	기본 이수	21학점 이상, 7과목 이상	
	교과교육	8학점 이상, 3과목 이상	
	성적	75점 /100점 이상	
교직 (22학점 이상)	교직이론	12학점 이상 6과목 이상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철학 및 교육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사회, 생활지도 및 상담, 기타 교직이론에 관한 과목
	교직소양	6학점 이상	특수교육학개론 (영재교육 영역 포함, 2학점 이상), 교직실무 (2학점 이상),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의 이해 (2학점 이상)
	교육실습	4학점 이상	학교현장실습 (2학점 이상), 교육봉사활동 (2학점 이내)
	성적	80점 /100점 이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직 적성·인성 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2회 이상 ▶ (성인지 교육) 연 1회 이상 		

다. 중등학교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선방안

- 교육실습 내실화 및 실습학기제 도입
 -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 등 학기 전 과정 실습 참여(실습학기제)
 - 교육실습생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원의 현장역량 배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 강화 : 교수법, 생활지도, 학습자 이해 등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 배양
 - 실습학기제 도입 : 교육실습생이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지도·평가, 학생상담 등 학기 전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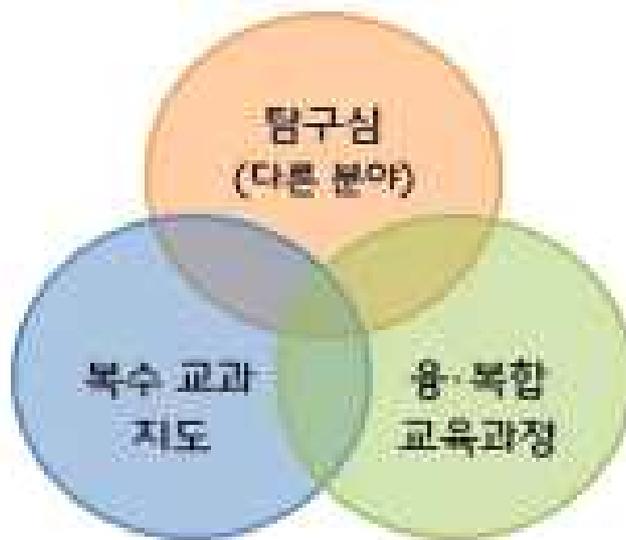
을 경험할 수 있도록 개편



[그림 II-3] 교육실습 생태계 조성 체계

○ 다교과 역량 함양

- 학생선택권 확대(고교학점제 등), 교과 융·복합 등 학교의 변화는 교원에게도 단일 교과 전문성을 넘어 '다교과 역량' 요구



[그림 II-4] 다교과 역량 구성요소

라. 초등학교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선방안

- 교과 중심 교육과정을 현장 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전환



[그림 II-5] 초등학교 교원양성 프로그램 개선 방안

- 이수과목 조정 : 기본이수과목 조정, 심화과정 축소(현행 18학점→ 9학점 축소) 등을 통해 '담임 교사'로서 전교과 지도, 학급운영을 통한 생활지도라는 초등교사 기본 전문성을 충실하게 갖추도록 지원
- 기본 이수과목을 초등학교 교육과정, 초등학교 학습자에 대한 이해, 정보·융합 등 미래 요구 역량 등을 반영하여 조정
- 핵심전공 신설을 통해 특정 분야에 대한 심화 및 융·복합 역량을 통해 현장 수요에 대응 : 기초 학력, 위기학생 심리·상담, 다문화, 교과 융·복합 등 특화된 전문성 제고

4. 종합 및 시사점

○ 종합

- 2025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지역·학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가능한 교육 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특히,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2022 개정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갖춘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으로 성장 지원'을 비전으로 하여 자기주도성(주도성, 책임감, 적극적 태도), 창의와 혁신(문

제해결, 융합적사고, 도전), 포용성과 시민성(배려, 소통, 협력, 공감, 공동체의식)의 핵심역량을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에 부합되도록 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구성권과 삶과 연계한 학습 및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조화로운 운영을 강조함. 특히, 전 교과 교육과정 안에서 다양한 문제해결상황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학습자 주도성을 강조하여, 비판적 질문, 토의·토론수업, 협업수업 등 다양한 학생 주도형 수업을 강조함
-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체 교과과정 대비 10.34%~13.6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의 4개 영역을 3개 영역으로 조정하면서 봉사활동이 모든 활동과 연계되도록 함. 특히, 자율·자치활동은 자율활동과 자치활동으로, 동아리활동은 학술·문화 및 여가활동, 봉사활동으로 구분되며, 진로활동은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설계 및 실천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음
- 이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 및 사회변화에 맞추어 교원양성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있음. 특히, 교원의 역할이 지식교육 외 학생의 성장·진로개척을 함께하는 협력자,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중재자 및 미래를 유연하게 준비하는 혁신가로 변화되면서 현행 교원양성 프로그램은 현장역량 배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이 강화되고 다교과 역량 함양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됨

○ 시사점

- 이와 같이 사회변화 흐름에 부합하기 위한 교육과정 및 교원양성 프로그램의 변화를 매개자 양성 과정 개선 및 고도화의 차원에서 고려해 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할 수 있음
- 지역·학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운영의 강조로 지역 기반의 매개자를 활용한 학교교육의 지원은 시대적 과업을 잘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될 여지가 강화됨
-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 강화의 차원에서 소규모 팀프로젝트 기반을 강화하되, 각급 학교별 학생발달을 고려한 교사 양성 프로그램의 변화를 반영한 학생지도 프로그램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지식교육 외 협력자, 소통·중재자, 혁신가의 다양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사회변화와 교육 및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에의 구성이 필요함
- 전 교과 교육과정 안에서 비판적 질문, 토의·토론수업, 협업수업 등 다양한 학습자 주도형 교수법에 대한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창의적 체험활동의 자율·자치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의 3개 영역별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교급별로 개발하여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Ⅲ. 완주군 매개자 양성과정 운영 현황

1. 교육통합모델의 이론적 근거

가. 교육통합의 의미와 개념

- 임성희(2024)는 교육통합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 즉, 비교과군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에 적용되는 프로젝트 학습으로 교사와 협력하여 학교와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프로젝트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임. 여기서 협력은 교사의 수업권 이향을 통한 시수 확보를 전제하며 학부모 강사는 주강사, 교사는 보조강사가 되어 프로젝트 학습에서 학생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학부모 강사, 교육통합센터, 교사가 ‘공동 대응’ 하는 것이라고 정의함
- 교육통합 활동의 의미는 학부모가 학교 지원자, 교사 보조자, 수요자로서 활동을 넘어 교수-학습자로 서는 것이라고 함(박세롬·이강이, 2021; 임성희, 2024에서 재인용)

나. 교육통합모델에서 학부모의 역할

- 수업의 주요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고 학부모는 수동적 교육의 당사자로서의 전통적 역할에서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이 확대되고 있음, 최근 혁신교육지구사업 등을 통해 기존 학부모의 전통적 역할을 뛰어넘어 교육의 주요 주체와 서로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역할로 확대되고 있음
- 2009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일어난 혁신학교 운동에서 학부모는 마을과 함께하는 마을 교육과정 운영, 마을활동체제 구축(마을 방과 후 포함)에서 주로 활동함. 그중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협력강사는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만남을 추구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중추적 임무를 수행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교육부, 2020; 임성희, 2024에서 재인용)

- 교육통합의 학부모 강사는 마을협력강사로 학교 현장에서 활동하며 교육과정에 직접 활동하기에 교사와 협력하여 수업시수를 확보하게 되는데, 학부모가 학교 교육과정에 교수자로 활동하게 됨을 의미함. 특히 프로젝트 영역에서 활동하는 학부모 강사로서 학생 이해와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한 코칭 강사로 수업의 주 진행자이며 기획자로서 역할을 함
 - 교육통합의 학부모 강사는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코칭 강사로서 주 강사와 보조강사가 있음. 주 강사는 교실에서 전체를 이끌어가고, 보조강사는 모둠활동을 촉진하고 관찰함
- 학부모 매개자
 - 매개자란 학교와 가정·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중간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의미함(임성희 외, 2017). 매개자 역할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임
 - 학부모는 자녀 교육지원자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 주체로서 프로젝트 수업에서 모둠 활동에 참여하여 '아이들의 일상을 옆에서 들어주는' 역할을 하며, 상담자,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
 - 학부모가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매개자로서의 잠재력과 역량을 발굴하고 함양하는 준비과정인 '학부모 매개자 되기' 과정이 매우 절실한데, 이는 교육통합모델 적용과정에서 자기반성과 성찰을 기반으로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실천하는 과정으로 창의체험 교육과정 구성을 새롭게 경험하는 계기가 됨
 - 매개자 되어가기 단계는 자기 알기를 통해 가정·학교·지역에서 아이들을 만날 준비를 실천하는 '자기준비'이고 '자기 돌봄'임. 즉, 학부모 매개자 되기의 자기돌봄은 타자(학생·교사)에 대한 이해를 전제한다는 점에서는 자신의 '정서지지와 성장'을 기반으로 학생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이 확장되는 과정임
- 교육통합모형에 근거한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학생이 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둠 내 발생한 수많은 사례에 대해 학생, 매개자, 교사, 참여관찰 매개자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는 것임(임성희 외, 2017)

다. 활동이론에 기반한 교육통합모형

- 활동이론은 개인의 실행으로 바보는 관점을 넘어 전문가 혹은 동료 학습자들과의 협력적 관계

가 시도되는 것으로, 개인을 사회와 내적으로 연결시키는 문화적, 사회적 과정의 설명을 통하여 학습을 설명하는 것이 활동이론임(권인탁, 2008; 임성희, 2024에서 재인용)

○ 활동체계 요소에 기초하여 교육통합 활동체계 요소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I-1> 교육통합 활동체계 요소 분석

기본요소	교육통합 활동체계 요소
주체(S)	· 학부모 강사(센터-전담자와 학부모 강사)
목표(O)	· 학부모 강사의 교육통합 실천
매개물(A)	· 매개물 : 사전인터뷰, 사후인터뷰 · 물리적 매개물(도구) : 의사소통 도구(포스트잇, 스티커, 매직, 네임펜, 이젤 패드, 공정카드)와 노트북, 빔, 스크린, 동영상
공동체(C)	· 교사협의회, 모듬활동, 학부모 강사공동체
규칙(R)	· 의사소통(논의·협의·조정·합의) 활동 모든 논의할 때 규칙 · 프로젝트(의견 개선·기록 발표·소감)에서 모듬활동 촉진을 위한 규칙
분업(D)	· 학부모 강사 - 센터(전담자): 기획 촉진, 자료 분석, 참여관찰 기타 활동 지원 - 학부모 강사: 사전·사후 인터뷰 실시, 모듬활동 관찰·촉진, 사전·사후 환류, 모듬 활동지 센터 이관, 성장일지 작성 · 학생 : 프로젝트 참여(의견 개선, 기록, 발표, 소감) · 교사 : 학생 정보공유, 수업 시수 조정, 공간 마련, 보조 강사

○ 교육통합 실천은 의사소통과 프로젝트로 대표되며, 의사소통(논의·협의·조정·합의)과 프로젝트(의견 개선·발표·기록·소감)는 사전, 교육, 사후활동을 통해 구현되며, 이 전반의 활동을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함

라. 교육통합모형 실천 효과

○ 임성희 외(2017)은 공교육 내 문제를 지역사회 공동체 문제로 인식하면서 초·중 교육과정 수업에 참여했던 실천사례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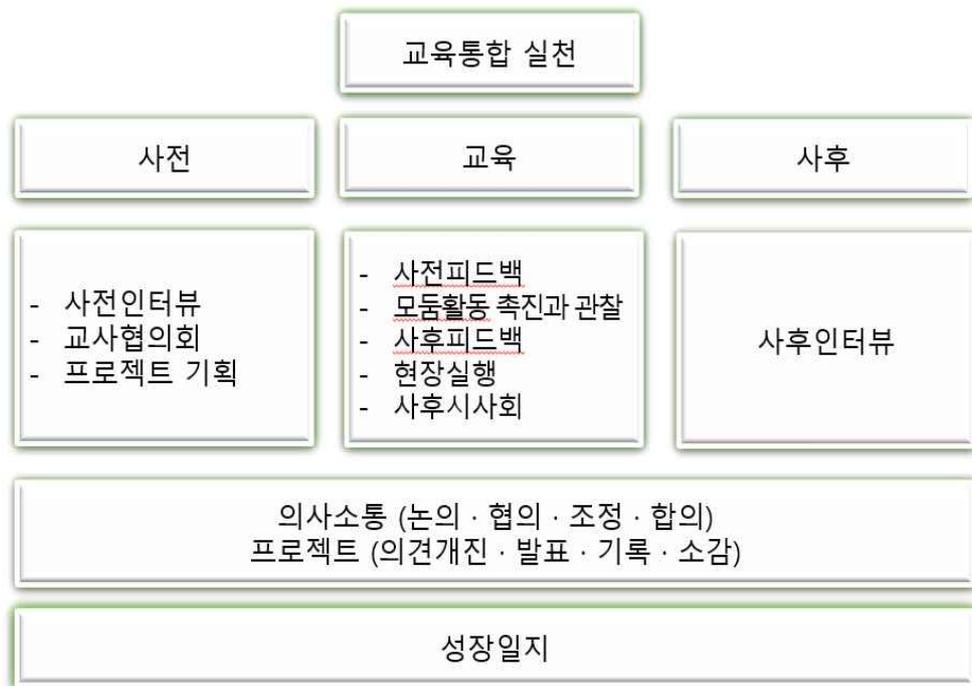
- 무기력한 아이들의 적극적 참여가 뚜렷해짐

- 차이를 좁혀가며 경청함
- 서로 들어주는 관계 속에 집중하게 됨
- 매개자, 교사, 학부모 등 공동의 소통을 통해 특수행동을 보인 아이들이 변화됨

2. 매개자 양성과정의 구성 요소 및 교육모듈 분석

가. 매개자 양성과정의 구성요소

- 매개자 양성과정의 교육통합 실천모형은 사전-교육-사후의 3단계를 기본 체계로 하여 매개자 간, 매개자와 참여학생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수시 피드백 및 성찰의 과정을 통해 구현되며, 이러한 과정의 체계는 다음과 같음



[그림 Ⅲ-1] 교육통합 실천 모형

○ **【사전단계】 사전인터뷰 :**

- 사전인터뷰는 프로젝트 기획 전 사전 준비과정을 마치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과정으로, 참여 학생들의 일상이야기는 매개자의 촉진에 의해 완성되며 27개의 질문과 확장질문을 통해 표적집단이 선발됨
- 매개자와 일대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참여 학생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 과정에서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할 대상이 탐색됨
- 사전인터뷰 과정을 통해 가정지지체계, 교사지지체계, 또래지지체계, 무기력과 욕구의 4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함
- 인터뷰 질문내용 및 양식

○ **【사전단계】 교사협의회 :**

- 사전인터뷰 및 성격유형검사를 바탕으로 학생들에 대한 분석자료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

○ **【사전단계】 프로젝트 기획 :**

- 사전인터뷰 과정을 마치고 나면 학교의 협의결과를 반영해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젝트 기획
- 사례: 「공부도 좀 재밌어요」, 「술까말」, 「전체이용가」 등의 자존감 향상 프로젝트는 다양한 집단활동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함으로써 “나다움”을 탐색

○ **【교육】 사전피드백 :**

-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매회 당일 사전피드백을 통해 주어진 시간과 돌발상황을 대비하고 준비한 교육과정을 유도함
- 주요 점검 사항 : 해당 회차의 운영과정 점검, 모둠내 주요 관찰 대상 학생, 자리배치 등

○ **【교육】 사후피드백 :**

- 모둠을 맡은 매개자가 돌아가면서 테이블 내 진행과정과 어려움을 공유하고 피드백을 통해 차기 회차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사후피드백은 아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시켜 줌
- 주요 점검 사항 : 의사소통결과, 관찰대상 아이들의 태도 변화, 소감 작성시 나누었던 대화내용 등

<표 Ⅲ-2> 사전인터뷰 양식

참여 학생 일상 이야기				
기 초 사 랑	만난 날		이야기 나눈 날	
	참여학생 이야기			
	이름		여·남 학생	
	연락처		아픈 곳	
	학교		학년/반	
	가족들			
참여학생 일상 이야기				
언제 일어나니?				
아침은 누가, 뭐하고 먹니?				
학교는 어떻게 오니				
학교가고 싶지 않을 때?				
가장 좋은 수업(다음으로)				
고민을 터놓을 샘은(터놓고 싶은)?				
학교에서 주로 가는 곳은				
학교에서 믿을 만한 친구는(그 다음은)?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학교 끝나면 가장 먼저 가는 곳				
학교 밖에서 믿을 만한 친구?				
친구랑 뭐하고 놀아?				
친구랑 속상할 때는 언제?				
집에 언제 들어가?				
저녁은 누구와 언제 먹어?				
집에서 누구랑 얘기하나?				
집에서 기분 좋을 때(힘들 때)				
언제자니(자기전까지 뭐하니)				
집에서 기분 안좋은 때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은?				
주말에 뭐하니?				
좋아하는 게임은?				
요즘 관심거리(하고싶은 것)는?				
어떨 때 우울하니				
육구				
강점				
기타				

참여학생의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한 사전인터뷰 사례

참여 학생 일상 이야기			
기초사항	만난 날	2018/3/23	이야기나눈 쌤
			엄성희
	참여 학생 이야기		
	이름	[가려움]	여·(중) 학생
	연락처	[가려움]	~6 아픈 곳
	학교	삼례중학교	학년/반
	가족들	형(1명), 누나(1명), 부모	2학년 2반

참여 학생 일상 이야기	
언제 일어나니?	7시 50분 일어나고 8시 30분
아침은 누가 뭐하고 먹니?	밥 먹음 아.아.가게 갈 때 먹음 됨.
학교는 어떻게 오니?	친구 권남이와 같이 오음
학교가고 싶지 않을 때?	2/1공중대 갈 친구들끼리 놀음 있음 → 권남이
가장 좋은 수업(다음으로)?	레벨 친구들 갈 때 하고 싶은 수업, 수업 전까지
고민을 터놓을 생각(터놓고 싶은)?	당 리 고민이 없음 이혼선 전직할 50명
학교에서 주로 가는 곳은?	반에 앉 있음
학교에서 믿음 만한 친구(나다음)?	권남이, 로동원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없음
학교 끝나면 가장 먼저 가는 곳?	집 → 편안함 때문에 있음 리듬 있음
학교 밖에서 믿음 만한 친구?	강한철 = 친구들
친구랑 뭐하고 놀아?	놀이 = 삼랑랑
친구랑 속상할 때는 언제?	하자고 해서 혼자 가 있음
집에 언제 들어기?	9시 30분, 엄마와 형이 같이 있음
저녁은 누구와 언제 먹어?	아빠의 상황에 따라 다름
집에서 누구랑 얘기하니?	엄마, 반 7분 정도가 엄마랑 얘기함
집에서 기분 좋을 때(힘들 때)?	게임이 잘 됨 → 건강 염려 있음 = 엄마 5명
언제 자니(자기전까지 뭐하니)?	11시 자기전 학교 영상 보
집에서 기분 안 좋을 때?	형이 기분 안 좋을 때 형이 기분 안 좋을 때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은?	PC방, 코인노래방
주말에 뭐하니?	PC방
좋아하는 게임은?	오버워치
요즘 관심거리(하고 싶은 것)는?	노래,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우물하니?	가족 대화할 때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육구	가수
강점	노래
기타	취미로써 가수가 꿈 있음

참여학생의 지지체계 및 무기력과 요구 차원의 분석결과

가정지지체계	교사지지체계	도래지지체계	무기력과 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07시50분 정도 엄마가 깨움 아침 안 먹음 어쩔 때 먹음 아빠와 9시30분정도 귀가 저녁은 아빠랑 상황에 따라 다름 엄마랑 얘기함 (약 5~7분) 게임이 잘 되면 좋고 엄마가 우물하면 자신도 우물, 건강염려증(자신) 형이 감정변화 기복이 심해서 기분이 좋지 않음 자기 전 이어폰 꼽고 영상 보 11시 취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과목이 좋고 다음 음악이 좋음 (잘 대해 주심) 고민을 털어놓는다면 이OO쌤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없음 피곤하고, 학원이 늦게 끝날 때 학교 가고 싶지 않음 학교에서 주로 교실에 만 있음 교사 지지체계가 매우 중요한 친구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내 최OO이랑 걸어옴 최OO과 오OO이 믿음 만한 친구임 학교 밖 전북중 강OO과 친함 친구랑 놀이 상황극 같은 거하고 놀 주말 PC방 코인노래방 오버워치 노래, 배틀그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수가 되고 싶은데 친구들이 뭐라 할 때 우물 가수 노래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 않음 아버지 주-야 근무 엄마 우물증 약 복용 형 정신병 이력 의 영향을 받고 있음

○ **【교육】 매개자의 촉진과 관찰 :**

- 매개자의 촉진이 필요한 대상 : 말이 없고 참여가 소극적인(자거나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학생, 의견쓰기를 힘들어 하는 학생,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짧은(산만하거나 친한 친구와 서로 다른 모듈 배정) 학생
- 공통적으로 의견을 기록하거나 정리하는 등의 역할을 부여해 ‘끌어들이기’를 적용하거나 대상 아이만 알 수 있을 정도의 이름 부르기, 눈 맞추기를 통해 적절한 관심 부여, 단 짚은 촉진은 역효과 부작용 가능성 고려
- 의견 쓰는데 힘들어하거나 쓰고 싶지 않아 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의견을 표출하도록 격려하되 강요는 지양

○ **【교육】 현장실행 :**

- 현장실행은 계획한 활동에 대한 역할을 나누고 자료를 준비하여 실행하는 과정으로 현장실행 대상은 학교밖 탐방(현장 인터뷰, 대학 탐방)과 교내 축제 및 체육대회가 되기도 하고 평범했던 교실을 방탈출 및 스트레스 탈출을 위한 공간으로 재구성 가능
- 실행 내용 : 역할 배정(도우미, 예산, 사진, 인터뷰, 기록 등), 미션지 확인(현장규칙, 미션 내용, 인터뷰 질문 등)

○ **【교육】 사후시사회 :**

- 현장에서 실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결과물을 공유하고 모듈과 각자의 역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으로, 영상을 함께 시청하는 동안 별도의 평가도구가 없어도 학생들은 반성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가짐
- 수행 내용 : 결과물 제작(동영상, 역할극, 프레젠테이션, 사진전 등), 사후시사회 시상(회차별 모듈의 소감 발췌해 시상명 설정; “업사이클링을 해서 재밌었지만 나중에 다운사이클링도 했으면 좋겠다. 賞”)

○ **【사후단계】 사후인터뷰 :**

-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학생들과 매개자가 만나는 마지막 과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의미있던 시간과 힘들었던 점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성장을 가늠하는 과정

○ 의사소통 :

- 논의·협의·조정·합의의 과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생각과 의견을 도출하기 위해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
- 의사소통도구(A4와 포스트잇, 이젤패드, 매직, 네임펜, 의견카드, 공감도 표현 등)는 5인 이상의 구성원과 구성원들의 의견 참여와 소통을 촉진하는 매개자(퍼실리테이터)를 중심으로 활용됨

○ 성장일지 :

- 개인 정보, 프로그램명,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성과 평가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차별로 작성

OO 프로젝트				성장일지			
이야기한 날		이야기한 선생님		성명		일시	
이름		성별/학년/반		학교/학년		장소	
1. OO프로젝트에서 논의했던 과정(마음열기, 모둠구성, 모듬별 이름·규칙·구조 정하기, 장소 정하기, 주제·의식·역할 정하기, 헌장 활동하기, 영상 제작) 중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연락처		참석자	
2.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이유)?				프로그램			
3. OO프로젝트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학습목표			
4.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이 달라진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나? (의견 내는 것, 결정해 보는 것, 발표하는 것, 생각해 보는 것,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는 자세, 원칙을 지어가는 것, 완성을 갖는 것, 친구를 배려하는 것, 계획해 보는 것, 친구와 더 친해진 것, 친구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 실제로 계획해 실천하는 것 등)				학습내용			
5. 프로젝트를 하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된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학교생활, 친구관계, 생각하기, 행동하기, 의견내기 등)				학습성과평가			
6. 프로젝트를 하면서 아쉽고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고 어떤 이유인가?				기타			
7. 프로젝트를 함께 해 온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8. 나에게 이 프로젝트는 ○○이다?							

[그림 III-2] 사후인터뷰 양식지

[그림 III-3] 성장일지 양식지

나.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연도별 학교프로젝트 현황

- 2014년 교육통합지원센터 개소 이래 초·중·고등학생 및 성인대상 다양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교육을 수행하였음
- 많은 교육프로젝트가 중학교 대상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코로나 이전까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나, 코로나로 인한 외부인의 학교 접근의 어려움과 온라인 교육 등으로 급격히 교육수행 실적이 축소되었음
- 대부분의 교육내용이 진로탐색과 지역과 연계한 프로젝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 최근 교육에서 강조하고 있는 문제해결형 프로젝트 교육 및 학교·지역 연계 교육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음

<표 III-3>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연도별 학교 프로젝트 현황

추진 시기	프로젝트명				비고
	초	중	고	성인	
2014. 03~11		·교육주체 협업을 통한 자존감 회복			·완주군 고산면 삼거리 교육통합지원센터 개소 매개자교육과정 개설 (1~3기)
2015.0 3~11	·눈에 띄네 프로젝트 ·다같이 놀자 동네한 바퀴 ·생활이 숨은 교수 학 교에 가사	·이지트프 ·썸썸공방 서각 ·나 말고 다 ·와리가리 공드리 ·자세히 들여다 보봐 ·핵꿀잼 ·Fee 받은 완주중 ·풍문으로 들었소 ·라이언 일병 구하기 ·리더십캠프 ·교과통합 진로직업 ·동상이몽	·14시간의 두드림		·교육통합연구 결과물 워크숍 ·교육공동체 모델 확장 교육동아리 지원 ·타운홀 미팅(1회)
2016.0 3~12	·틈새 빠르게 ·흔적 ·이동안전지도제작(봉 동, 태봉, 삼례, 용봉, 이서초) ·사계절이 행복한 학교	·우리모해? ·다음 ·핵꿀잼이 있는 진로체험 ·오늘모해? WID ·리더십캠프	·소중한 존재로서 나 ·물꼬 ·자존감 회복을 위한 해외이동학습		·타운홀 미팅(4회)

3. 교육 모듈에 대한 참여자들의 교육 후기 분석

- 본 절에서는 매개자 대상 워크숍을 통해 제시된 6명의 교육후기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으로써 ‘사전활동-교육활동-사후활동’의 실제 3단계 교육통합 실천모형이 매개자들에게 어떻게 내재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함

가. 사전활동

○ 사전인터뷰

- 사전인터뷰는 프로젝트 수업 전 학생들과의 첫 만남이자 학생의 일상과 생각을 알아보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며, 그 과정에서 가정지지체계(학생의 가정환경)과 학교지지체계, 또래지지체계, 무기력 정도 및 해소가능성과 욕구 등을 파악하여 학생을 이해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시간임. 또한, 수업 진행 중 관심을 가져야 하는 표적집단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수업 중 교우 관계의 변화나 학생들의 변화를 알아볼 수 있음
- 또한, 사전인터뷰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미리 알게 되고, 이 인터뷰를 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좀 더 유용하고 필요한 것들, 그리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게 프로젝트 수업을 계획하기 위한 사전작업임
- 이 과정을 통해 눈여겨보아야 할 아이를 파악하고, 수업 중에 더 관심있게 지켜보며 관리함. 또한, 아이들의 관심사와 강점, 약점 등을 파악하여 프로젝트 주제나 방향을 정하기도 함.

용진중학교의 경우, 1학년 1학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학생들과의 사전인터뷰를 통해 각기 다른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들어와서 아직은 아이들끼리 서먹한 분위기임을 알 수 있었음. 또 초등학교 때 찼었던 친구가 같은 중학교에 왔는데, 같은 반이라서 고민이라는 친구도 있었음. 이외에도 여러 이유로 많은 아이가 친구'라는 단어에 많은 고민과 관심이 있는 것을 파악할 수 있음. 그래서 친구관계개선을 목표로 삼고, 나를 알고, 너를 알아가며 서로 교감하고 친해질 수 있는 방향으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해서 '룰루랄라 명랑 운동회'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함

○ 교사협의회

- 교사협의회는 사전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학생의 상황 등을 교사와 공유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에

대해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집중관찰이나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에 대한 정보를 받음

- 학교가 원하는 교육과 프로젝트 주제 및 방향 등을 매개자와 같이 협의하는 과정으로 앞으로의 수업일정과 수업진행 방식 등 수업 전반의 걸친 방향성 등을 교사와 협업을 하는 과정임
- 교사협의회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단계에서 수업을 하게 될 해당 학년의 학생들 중 미리 전 달받아야 하는 내용과 학교의 요구사항, 수업에 필요한 조건들을 서로 협의하게 되는 과정
- 교사협의회는 수업 시작 전 이외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모든 과정을 교사와 매개자가 공유 하며, 다양한 협력 구조를 통해 학교의 환경과 아이들에게 맞는 프로젝트 수업을 운영하기 위해 토론하고 협의함. 또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공감실험실 등을 통해 아이들이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공유하고, 수업 중에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도 함

○ 프로젝트 기획

- 프로젝트 기획은 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나 교사와 학생의 요구를 반영하여 매개자들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과정임. 사전인터뷰를 통해 발견된 학생의 문제점 등을 수업 중에 다루고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활동을 기획함. 이 과정에서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인지, 모든 아이들을 위한 프로젝트인지를 파악하여 자존감 프로젝트, 교과 연계 프로젝트, 학생행사 연계 프로젝트, 교육복지연계 프로젝트 등 다양한 기획을 할 수 있음
- 프로젝트 기획은 길게는 1년 짧게는 1학기 과정에서 15회차 이상의 회차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아내고, 같이 협의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면서 자존감을 형성하고 책임감과 적극적인 수업 참여의 아이들로 성장하게 됨. 공교육에서 소외되고 소극적으로 수업에 임하던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조금씩 내고, 그 의견에 스스로 책임지면서 모둠 안에서 협업을 통해 결정하고 실행하게 됨
- 프로젝트 기획은 사전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아이들의 관심, 강점, 약점 등을 파악하여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함. 이 외에도 학교에서 요구하는 프로젝트의 목표가 있으며, 사전인터뷰를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기도 함. 용진중학교에서 아이들이 존중과 배려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며 프로젝트 수업을 의뢰하였는데, 이에 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연구원들이 그에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함. 존중과 배려에 관한 아이들 서로의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존중과 배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됨. 더 나아가 생명존중의 의미까지 생각하고 느낄 수 있도록 인천모자원에 방문하여 인터뷰까지 진행하는 ‘존중 딱 좋아; 프로젝트를 실행함

나. 교육활동

○ 사전피드백

- 사전피드백은 수업 전,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매개자가 모여 수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사전 회의를 하는 것임. 이때 수업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하지만, 그날 수업에서 특히 유념해야 할 점을 파악하고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관찰할지 논의함. 사전피드백이 잘 이루어져야 매개자가 계획된 수업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수업에 잘 참여할 수 있음
- 사전피드백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시작하면, 수업 시작 전 매회 진행될 내용을 메인 매개자의 진행으로 테이블 매개자와 서로 논의하고 조정하는 시간으로, 사전인터뷰를 통한 표적 집단의 공유, 프로젝트 기획단계에서의 매개자간 의견 나눔, 교육계획안 작성시 메인 매개자와 테이블 매개자간의 소통 등을 할 수 있는 협업의 시간임.
- 수업에 대한 사전 준비과정으로 수업내용을 매개자들과 미리 실행해 보기도 하는 시간임. 즉, 그날 회차의 프로젝트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메인 매개자와 테이블 매개자 그리고 참여 관찰자 등이 당일 수업에 대해 사전 조율하고 공유해야 할 내용들을 미리 주고받는 과정임. 예를 들어 의사소통 도구를 이용한 논의과정에서 의견을 몇 장씩 쓰게 할 것인지, 각 논의는 테이블당 몇 분의 시간이 주어지는지, 메인의 진행과정에서 미리 테이블 매개자가 알아야 할 내용이 있으며 사전에 협의하고 공유하는 과정으로 필요에 따라 프로젝트 과정에서 자리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점검함

○ 모둠활동 촉진과 관찰

- 모둠활동 촉진과 관찰 단계는 매개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단계로 모둠원 간 의견 조율이나 합의의 과정을 원활하게 조율하고 무기력증 및 소외 학생, 소심한 학생이 모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자가 독려하고, 학생의 행동과 감정의 변화 등을 관찰하여 학생의 마음을 이해하고 다독여 주며 기다려주는 과정임
- 본 단계에서 매개자는 내향적이고 말이 없고 소극적인 아이, 무기력한 아이, 산만한 아이, 자신의 생각대로 모둠 아이들의 생각을 조정하려고 하는 아이 등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게 됨. 프로젝트 과정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말과 행동, 태도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학생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지, 모둠에서 어떤 힘을 가지고 그 힘으로 모둠을 좌지우지하는지, 수업에 소극적인 아이는 어떤 이유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각각의 아이들에게 매개자는 어떤 행동을 해줘야 하는지 등을

관찰함. 관찰을 통해 아이들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리를 적절히 배치할 수 있고 소극적인 아이나 무기력한 아이에게는 정확한 역할을 주어 수행할 기회를 주며, 무기력하고 계속 엎드려 있는 아이에게는 지속적인 관심과 터치, 의견을 내는데 시간이 걸리는 아이들에게는 의견을 돌려 다른 친구들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축되지 않도록 격려가 필요함.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둠원 모두가 수업 활동에 적극적이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도움을 주어 보다 긍정적이고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 있어야 함

- 또한, 메인 매개자는 그날의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 테이블 매개자가 해야 할 모둠활동에서 테이블 매개자는 자신의 모둠 아이들이 의견을 나누고 협의하고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서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를 찾아낼 수 있도록 관찰해야 함
- 테이블 매개자가 프로젝트 수업 중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은 아이들이 모둠활동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관찰하는 것임.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거나 관심없는 아이들을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진시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나 지속적인 매개자의 관심과 지지를 받으면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하며 수업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아이들의 성격유형 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선호 경향을 파악하여, 아이들이 모둠활동에 좀 더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 이러한 모둠활동을 통해 아이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자기 생각이 존중되려면 어떻게 대화하고 소통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됨.

한 중학교에서 모둠 구성 후, 처음으로 논의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가 의견을 쓰지 않은 채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음. 아이에게 의견을 쓸 수 있도록 독려했으나 결국 의견을 적지 않아 따로 불러서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더니 한참을 망설이던 아이는 모둠에 싸운 아이가 있어서 우리 모둠이 싫다고 함. 그러한 아이의 상황에 공감해 주며, 모둠은 한번 정하면 비꿀 수가 없음을 인지시키고 그래도 모둠이 불편하면 모둠을 비꿀 수 있는지 공론회를 통해 논의해 보자고 말해줌. 그러자 아이는 상황이 커질 수도 있음을 직감했는지, 그냥 모둠 내에 있겠다고 말할. 그 후로 수업을 하며 싸웠던 친구와 서로 도와주거나 배려해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둘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고,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프로젝트 수업 중반부터는 서로 독려하며 프로젝트 활동에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그래서 아이를 불러 싸웠던 아이와 모둠 활동하는 것이 괜찮은지 물으니, 웃으며 '뭐 할만해요' 라고 말할

○ 사후피드백

- 사후피드백은 수업이 끝난 후 모든 매개자가 모여 오늘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우리 모둠 안에서 일어났던 일, 모둠 학생들의 수업 태도와 반응 등을 다른 매개자들과 공유하는 시간으로,

수업의 잘된 점, 잘못된 점을 파악함으로써 수업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체적인 역량강화의 기회이자 질 좋은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임

- 수업과정에서 미리 협의한 대로 잘 진행되었는지 어떤 돌발변수는 없었는지, 모둠의 아이들 중에 특별한 행동을 한 사례를 나누기도 하고, 수업과정에서 매개자가 상처받은 일은 없었는지 서로 이야기 과정 안에서 자신의 부족한 모습도 찾아내고, 보완할 점 등을 깨닫고 성장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함. 다음 회차의 수업에 대해 미리 논의해야 할 것과 준비해야 할 내용도 미리 협의함
- 사후피드백은 프로젝트 직후 매개자와 참여관찰 연구원들이 함께 진행함. 각 모둠의 매개자가 테이블에서의 진행과정과 어려움 등을 돌아가면서 공유하는데, 아이들의 참여 정도와 소감 등을 중심으로 함

○ 현장실행

- 현장실행은 프로젝트 수업의 백미로 학생들이 모둠 안에서 의견을 내고 모으는 과정을 통해 스스로 세운 계획을 실제로 실행해 보는 과정임. 프로젝트 주제와 참여 아이들이 합의한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현장실행의 장소와 상황은 무궁무진함. 아이들은 각자 정해진 역할과 계획대로 직접 현장에 가서 활동하고, 이 과정에서 테이블 안에서 소극적이고 무기력했던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기도 함. 현장실행 과정에서의 돌발 상황이나 미션을 수행하면서 계획한 대로 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음으로 생기는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고 모둠 친구들과 매개자와 더 가까워지는 과정임
- 수업 과정 중의 의견나눔과 합의도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임. 서로 역할을 나누고, 예산도 집행해 보면서 모둠원끼리 협력하며 현장 실행을 완성해 나가면서 학생들 스스로 파악하고 결과를 보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과 만족감을 통해 자존감 향상이 나타날 수 있음
- 매개자는 현장 실행 전 아이들에게 각자 맡은 역할에 대해 주지시키고, 현장실행의 모든 과정(심화인터뷰, 미션)을 행하기 전 모든 모둠원이 모여 논의하고 협의할 것을 당부함. 현장실행이 시작되면 매개자는 현장 실행에서 아이들에게 모든 과정을 맡기고 지켜보고, 아이들의 안전을 챙김. 아이들이 경로를 이탈할 때는 올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약간의 힌트 정도만 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논의하고 협의하여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도함. 또한, 수업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그대로 현장 실행에서 그대로 실행됨을 경험하며 투표의 중요성을 느끼기도 하여, 교실에서와는 달리 현장 실행의 모든 과정에서 해야 하는 논의와 협의가 아이들의 주도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함

소양중에 처음 수업하러 간 날 이 아이는 계신 상황에서도 거리낌 없이 욕을 하던 아이였고 수업 중에도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음. 여러 회차에 걸쳐 아이를 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했음. 매시간 아이에게 관심을 보이며, 아이가 약간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 바로 지지해주고 수업 전과 후에 아이와 따로 이야기를 나눴음. 현장실행 전 날 아이는 문자로 현장 실행에 안 가겠다고 해서 아이와 통화를 하며, 현장실행 날 아이를 기다리겠다고 말했음. 아이는 현장실행 날 와서는 현장실행 가서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말했으나 막상 현장실행에 가서는 모두들 이 길을 해매자 아이들에게 길을 안내하기도 하고 방송 관련 일을 하시는 분과 심화 인터뷰에서는 정해진 질문 이 외에 추가 질문을 하며 인터뷰를 주도해 나갔고, 인터뷰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물으며 전화하겠다고 함. 아이는 현 장실행에서 교실에서와는 달리 아주 다른 적극성을 보였음. 그 뒤 교실에서의 마지막 수업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 었음. 싫어요 인해요... 라는 말과 욕을 달고 살던 아이가 그날은 그러한 말을 하지 않았음. 아이가 매개자에게 보인 행동과 말들을 돌아켜 보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신호였던 것 같음.

⇒ 아이가 현장실행을 하며 보인 변화가 매개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헛된 일이 아님을 보여준 사례임

○ 사후시사회

- 사후시사회는 현장실행의 결과물을 동영상, ppt, 연극(역할극) 등으로 제작·발표하여 함께 보고 평가하는 시간임. 각 모둠에서 계획한 대로 현장실행 과정에서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 우리 모둠의 미션은 잘 수행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결과물 안에 담아내야 하는 조건 등을 잘 답아서 결과물 을 제작했는지 서로 평가하고, 최고의 결과물을 투표를 통해 뽑는 시간임. 이 과정을 통해 우리가 실행한 현장실행과 다른 모둠의 현장실행을 비교하고 자신과 다른 관점의 현장실행도 경험하게 됨
- 매개자는 현장실행 결과물을 모든 모둠원이 참여하여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하며, 결과물에는 현장 실행 과정, 심화인터뷰 내용, 미션 수행, 소감 등이 적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함. 이러한 현장 실행 결과물은 다 같이 시사회를 통해 공유하며 투표를 통해 스스로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성찰하 는 시간을 가짐
- 이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의 의미도 있지만 새로운 시작의 의미도 있음. 결과물의 실행이나 정리를 통해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임

다. 사후활동

○ 사후인터뷰

- 사후인터뷰는 프로젝트 수업의 가장 마무리 단계로, 마지막으로 학생들을 만나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학생의 변화와 성장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시간임

-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면서 자신의 역할이나 모둠의 역할이 잘 수행되었는지 되돌아보고, 프로젝트 안에서 어떤 것을 느끼고 깨닫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스스로도 그리고 매개자들도 아이들과 함께 되짚어 보는 과정임. 그리고 다음에 프로젝트 수업을 기획할 때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또 어떤 수업을 추가할 수 있는지 아이들의 요구사항도 파악할 수 있음. 사전인터뷰를 할 때 학생이 프로그램이 끝난 후 얼마나 성장했는지, 교사지지체계와 또래지지체계, 가정지지체계의 변화가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과정임
- 사전인터뷰를 통해 아이의 가정, 또래, 학교지지체계의 정보를 파악했다면 사후인터뷰는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아이의 유의미한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둬. 아이들과 사후인터뷰를 하다 보면, 자신의 성장변화를 이미 인지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 자신의 성장 변화된 모습을 인터뷰하며 감지하기도 함
- 프로젝트를 거치며 느끼고 생각해 온 것들을 인터뷰 질문을 통해 다시 기억해보고 이야기 나누며 이 프로젝트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의미가 있었는지 알아볼 수 있고, 참여자의 생각, 자세의 변화를 수업 이전과 비교해 볼 수 있는 활동임

발표하는데 두려움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의견을 내는 것이 조금은 편해졌어요. 자존감이 높아진 것 같아요' 등 인터뷰하며 아이들이 자신의 변화를 깨달음. 사후인터뷰를 통해 또래지지체계에도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음. 사전인터뷰에서는 친구가 없다고 했거나, 소수의 친구 이름을 적었다며, 친구가 없다면 친구는 친해진 친구가 생겼다고 이름을 적거나, 친해진 친구가 달라지거나 친구 이름의 수가 많아지기도 함

○ 의사소통

-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도구를 사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이나 행동, 그림, 글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하는 과정임. 의사소통 도구를 통해 나의 의견을 쓰고, 의견을 돌려보며 친구의 의견도 보며 나의 의견을 우리 모두의 의견으로 모으는 과정임. 모둠 안에서 진취적 성향의 일부 학생의 의견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의견 내기가 소극적인 아이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고, 의외의 결과로 새로운 의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음(의견내기 ⇒ 의견모으기 ⇒ 협의 ⇒ 모둠원 간의 일치된 의견)
- 모둠 내 자신의 의견이 수용되거나 거절되는 과정도 경험하면서 자신의 의사표현 방법도 알게 됨
- 의사소통 도구에는 포스트잇, A4용지, 네임펜, 매직, 이젤패드, 도트 스티커, 의견카드가 있음. 포

스트잇은 자신만의 의견을 표현하는 도구로 한 장에는 하나의 의견만 쓰도록 함. 포스트잇에는 네 임펜으로 적음. A4용지는 자신의 의견이 담긴 포스트잇을 붙이고, 모둠원과 서로 돌려보며 서로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임. 이젤패드는 개인의 의견이 우리의 의견으로 사회화되는 과정임. 즉, 모듬의 의견을 모아 협의와 조정을 하는 공론화가 이루어지는 도구로 이젤패드에는 매직을 사용하여 적음. 도트 스티커는 우리의 의견을 합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도구로 투표할 때 사용함. 의견카드는 모듬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자기 생각을 전체에게 의견을 개진할 때 사용함. 논의과정에서 개진할 수 있는 의견의 수는 모두에게 동등하게 주어지나, 모듬의 동의가 있다면 추가 의견도 가능하며 매개자는 모듬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함과 동시에 학생들의 의견을 합의하고 조정해 가는 과정에 사용되는 도구이므로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함을 주지시킴

○ 성장일지

- 성장일기는 수업에 대한 기록이기도 하지만 매개자가 수업을 뒤돌아 볼 수 있는 기회로 매개자의 성장과정에 대한 기록임. 즉, 수업에 대한 기록을 통해 경험을 재구성하고 현장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성장일지를 쓰는 작업은 매개자 자기 성찰의 시간이 되기도 하며, 아이들의 성장 변화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됨
- 성장일지는 프로젝트 수업을 한 날, 그날의 수업에 대해 돌아보며 어떤 수업을 진행하였는지와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듬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수업의 흐름대로 작성하는데, 매개자의 의견을 덧붙이는 작업은 아이를 이해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음. 모듬 안에서 학생들 간의 상호작용과 수업에 대한 반응 등을 기록하고, 성장일지에 학생들을 관찰했던 내용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수업이 끝날 때 작성해야 하는 생활기록부의 자료로도 사용함
- 성장일지는 한 차시마다 수업의 활동을 뒤돌아보며 학생들에게 상황마다 적절한 매개자의 역할을 했는지, 참여 학생의 특이사항은 없었는지, 고민되는 부분, 주의해야 할 부분, 기억해야 할 부분들을 일지로 기록하여 앞으로 매개자로서 좋은 자세를 유지해 주고 발전시켜 주는 부분임. 즉, 매개자로서 학생들에게 했던 개입과 반응이 적절했었는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수업과정에서 학생의 변화된 점과 성장한 점 등을 성장일지에 기록함

4.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 요구 사항 도출

- 매개자 양성과정의 첫 관문인 사전인터뷰 단계에서 참여학생의 일상에 대한 소통을 통해 생활 패턴과 사회적지지체계를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됨. 다만 Cribbie(2007)는 사회적지지를 도움관계로 개인에게 실제로 제공되거나 개인이 가능하다고 지각하는 사회적 자원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고(윤소정 외, 2013에서 재인용), Nolten(1994)은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개인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행위 또는 태도로서 개인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인관계를 향상하는 의도를 갖는 것이라고 함. 이에 사전인터뷰 자료는 매개자의 역량에 따라 현장에서 폭넓게 확장 가능하며 ‘언제 일어나니?’와 같이 단순한 물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가능하면 도움관계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매개자를 통한 교육이 매개자 단독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코티칭을 한다는 점을 감안하고 실제 매개자들의 교사협의회 활동 결과를 분석해 보았을 때 사전활동 단계에 국한된 활동이 아닌 사전활동과 교육활동 및 사후활동 전 과정에 걸쳐 수행되는 과정으로 제시함으로써 코티칭의 기본적인 방향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사전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학생들에 대한 정보와 교사와의 협의를 통해 학교가 원하는 프로젝트 주제를 발굴하는 과정이나,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논의의 주체가 교사인지, 학생인지 명확하지 않아 경험이 적은 매개자들에게는 매우 난해한 과정이 될 수 있음. 또한,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학교나 학생이 원하는 주제가 선정되었어도 재료비나 활동을 위한 행정지원체계가 미비하다면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매년 완주교육지원청과 교육통합지원센터가 협의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단계별 가능한 프로젝트 주제 목록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각 학교별 재료비나 행정지원체계를 준비하는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의 복안을 가지고 학생들의 사전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프로젝트 주제를 선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을 제안함. 또한, 프로젝트 기획을 통한 15주차 또는 1년간의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이 필요함
- 사전피드백은 메인 매개자와 테이블 매개자간 수업 전 수업계획서를 바탕으로 당일 수업에서 유념할 사항들을 사전에 파악하여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상황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표적집단의 공유, 수업의 흐름 파악, 학생 지도 및 관찰 방법 등이 이루어지는 과정임. 다만, 사전피드백이라는 용어가 계획-실행-성찰을 통한 피드백의 의미가 본 교육활동에 들어가기 앞서 교육을 위한 준비활동에 활용됨으로써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어 '수업준비상황 점검'과 같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할 것을 제안함

- 모듈활동 촉진 및 관찰 단계는 매개자를 활용한 프로젝트 수업의 정수라고 할 만큼 가장 매개자의 역할이 돋보이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음. 다만, 매개자의 역할이 수업이라는 본연의 기능이 과소평가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프로젝트 수업(모듈활동 관찰 및 촉진)'이라는 형태로 단계의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현장실행의 단계는 프로젝트 수업의 일부로 별개로 분리할 수도 있으나 통합할 수 있는 과정으로 판단됨. 따라서 프로젝트 수업의 범주 안에 '모듈활동 관찰 및 촉진'과 '현장 탐구활동'을 포함시켜 기본적으로 현장 탐구활동을 위한 교실 내 모듈활동과 교실 밖 활동의 개념으로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후시사회의 용어 중 시사회의 의미는 본 상영에 앞서 미리 반응을 살펴보고자 기회를 갖는 모임의 의미로 사전 반응 확인의 의미로 왜곡될 여지가 있음. 따라서, 학생들의 프로젝트 수업 결과를 동영상, ppt, 연극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제작하여 발표하며 서로 평가함으로써 프로젝트 활동에 대해 성찰하는 시간이므로, '결과발표회'의 용어를 제안함
- 사후인터뷰는 사전인터뷰와 대칭되는 개념으로 프로젝트 수업의 마무리 단계에서 프로젝트 전 과정에 대한 성찰과 학생들의 변화와 성장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며 동시에 매개자 스스로의 성찰 기회로 매우 의미있는 활동임. 다만, 프로젝트 수업을 통한 일관된 학생 변화와 성장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활용되고 있는 양식을 수정하여 가정지지체계, 교사지지체계, 또래지지체계 및 무기력증과 요구의 차원에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과정 및 결과 자체에 대한 의미와 가치, 이를 통한 자신의 변화와 성장 차원, 프로젝트 과정에서의 아쉬움과 매개자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통해 학생의 성찰 외 매개자 스스로도 피드백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성장일지는 매회차 프로젝트 수업의 교육일지와 매개자의 성찰일지 2가지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판단됨. 현재 양식에 제시된 ‘참석자, 프로그램, 학습내용, 학습성과평가, 기타’의 항목으로는 성장일지 작성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즉, 모둠원, 결석자 및 사유, 프로젝트 주제, 수업내용, 수업소감 및 학생지도, 해당 수업의 특이사항 등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IV. 완주군 매개자들의 양성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1.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배경

<표 IV-1> 조사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

(N=94)

구분		빈도	백분율(%)
성별	남	15	16.0
	여	79	84.0
연령대	20대	5	5.3
	30대	13	13.8
	40대	30	31.9
	50대	35	37.2
	60대 이상	11	11.7
최종 학력	고졸	10	10.6
	전문대졸	16	17.0
	학사졸	45	47.9
	대학원수료	7	7.4
	대학원졸(석/박사)	16	17.0
최종 전공분야	인문학	26	27.7
	사회과학	19	20.2
	자연과학	6	6.4
	공학	4	4.3
	예체능	21	22.3
	기타	18	19.1
소속유형	자영업	13	13.8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	18	19.1
	비영리단체	29	30.9
	프리랜서	27	28.7
	기타	7	7.4
학교마을강사 (매개자) 경력기간	1년 미만	18	19.1
	1년 이상~3년 미만	20	21.3
	3년 이상~5년 미만	14	14.9
	5년 이상~10년 미만	29	30.9
	10년 이상	13	13.8

- 온라인 설문을 통한 응답자는 최종적으로 총 94명으로 조사대상자의 개인적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남녀의 비율은 16:84로 절대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고, 40대와 50대가 전체의 약 70%를 차지하였으며, 학사졸이 전체의 약 50% 가량 되며 대학원 수료 이상의 교육을 받은 응답자도 전체적으로 24.4%로 확인됨
 - 매개자들의 전공분야 대부분이 인문학과 예체능에 쏠린 현상이 있는데 두 개 학문분야의 비율이 50%이나, 자연과학 6.4%, 공학 4.3%로 이공계 분야 전공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여성 매개자가 전체의 84%로 여대생이 상대적으로 적은 이공계 분야의 실태를 보여주고 있음
 - 매개자들의 소속유형은 비영리단체(29명, 30.9%), 프리랜서(27명, 28.7%),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18, 19.1%), 자영업(13, 13.8%), 기타(7명, 7.4%)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매개자들의 경력기간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이 29명(30.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1년 이상 3년 미만이 20명(21.3%), 1년 미만이 18명(19.1%), 10년 이상이 13명(13.8%)의 순으로 확인되어 5년 이상의 고경력 매개자들이 전체적으로 44.7%로 조사되었음

2. 완주군 매개자의 참여동기, 업무경험 및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

가. 매개자 과정 인지 경로

- 매개자 과정을 인지한 경로는 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를 통한 경로가 42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45.7%였고, 다음으로 지인이 27명(29.3%), 선배 매개자가 21명(22.8%)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성별, 최종학력, 최종 전공분야, 소속유형, 매개자 경력기간에 따른 매개자 과정인지 경로의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5% 유의수준이 있음을 확인하였음. 즉, 40대 이상의 경우에는 센터 홍보를 통해 매개자 과정을 인지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30대 이하의 선배 매개자들을 통해 인지한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어 젊은 매개자 유입 및 확보를 위해서는 기존 매개자들을 통한 홍보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IV-2>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과정 인지 경로

단위: 사례수(%)

구분		매개자 과정 인지 경로			
		선배 매개자	지인	센터 홍보	지역 홍보
계(N=92)		21(22.8)	27(29.3)	42(45.7)	2(2.2)
성별	남	2(2.2)	7(7.6)	6(6.5)	0(0)
	여	19(20.7)	20(21.7)	36(39.1)	2(2.2)
연령대*	20대	3(3.3)	2(2.2)	0(0.0)	0(0.0)
	30대	7(7.6)	1(1.1)	5(5.4)	0(0.0)
	40대	6(6.5)	11(12.0)	13(14.1)	0(0.0)
	50대	5(5.4)	9(9.8)	17(18.5)	2(2.2)
	60대 이상	0(0.0)	4(4.3)	7(7.6)	0(0.0)
최종 학력	고졸	3(3.3)	2(2.2)	5(5.4)	0(0.0)
	전문대졸	1(1.1)	6(6.5)	9(9.8)	0(0.0)
	학사졸	11(12.0)	10(10.9)	22(23.9)	1(1.1)
	대학원수료	1(1.1)	4(4.3)	1(1.1)	1(1.1)
	대학원졸(석/박사)	5(5.4)	5(5.4)	5(5.4)	0(0.0)
최종 전공분야	인문학	6(6.5)	8(8.7)	10(10.9)	1(1.1)
	사회과학	3(3.3)	5(5.4)	9(9.8)	1(1.1)
	자연과학	2(2.2)	2(2.2)	2(2.2)	0(0.0)
	공학	1(1.1)	2(2.2)	1(1.1)	0(0.0)
	예체능	8(8.7)	4(4.3)	9(9.8)	0(0.0)
	기타	1(1.1)	6(6.5)	11(12.0)	0(0.0)
소속유형	자영업	4(4.3)	1(1.1)	7(7.6)	1(1.1)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	1(1.1)	4(4.3)	11(12.0)	1(1.1)
	비영리단체	6(6.5)	7(7.6)	16(17.4)	0(0.0)
	프리랜서	8(8.7)	12(13.0)	7(7.6)	0(0.0)
	기타	2(2.2)	3(3.3)	1(1.1)	0(0.0)
학교마을강사 (매개자) 경력 기간	1년 미만	5(5.4)	6(6.5)	6(6.5)	1(1.1)
	1년 이상~3년 미만	6(6.5)	6(6.5)	8(8.7)	0(0.0)
	3년 이상~5년 미만	5(5.4)	3(3.3)	5(5.4)	0(0.0)
	5년 이상~10년 미만	5(5.4)	8(8.7)	16(17.4)	0(0.0)
10년 이상	0(0.0)	4(4.3)	7(7.6)	1(1.1)	

주: * p < .05, **p < .01, ***p < .001

나. 매개자 과정 참여에 영향을 준 사람

- 매개자 과정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는 센터가 응답자 92명 중 48명으로 52.2%로 조사되었고, 선배 매개자가 31명으로 33.7%, 지인 11명(12.0%), 가족 2명(2.2%)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매개자 경력기간이 짧을수록 선배 매개자가 매개자 과정 참여에 영향을 크게 주는 반면, 5년 이상의 고경력 매개자인 경우에는 센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IV-3>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참여 영향 주체

단위: 사례수(%)

구분		매개자 참여 영향 주체			
		선배 매개자	가족	센터	지인
계(N=92)		31(33.7)	2(2.2)	48(52.2)	11(12.0)
성별	남	5(5.4)	0(0.0)	9(9.8)	1(1.1)
	여	26(28.3)	2(2.2)	39(42.4)	10(10.9)
연령대	20대	2(2.2)	1(1.1)	1(1.1)	1(1.1)
	30대	7(7.6)	0(0.0)	6(6.5)	0(0.0)
	40대	9(9.8)	0(0.0)	19(20.7)	2(2.2)
	50대	11(12.0)	1(1.1)	15(16.3)	6(6.5)
	60대 이상	2(2.2)	0(0.0)	7(7.6)	2(2.2)
최종 학력	고졸	3(3.3)	1(1.1)	5(5.4)	1(1.1)
	전문대졸	4(4.3)	1(1.1)	9(9.8)	2(2.2)
	학사졸	15(16.3)	0(0.0)	27(29.3)	4(4.3)
	대학원수료	2(2.2)	0(0.0)	1(1.1)	3(3.3)
	대학원졸(석/박사)	8(8.7)	0(0.0)	6(6.5)	1(1.1)
최종 전공분야*	인문학	10(10.9)	0(0.0)	10(10.9)	5(5.4)
	사회과학	5(5.4)	0(0.0)	11(12.0)	2(2.2)
	자연과학	2(2.2)	0(0.0)	4(4.3)	0(0.0)
	공학	2(2.2)	1(1.1)	0(0.0)	1(1.1)
	예체능	10(10.9)	0(0.0)	9(9.8)	2(2.2)
	기타	2(2.2)	1(1.1)	14(15.2)	1(1.1)
소속유형	지역업	4(4.3)	0(0.0)	8(8.7)	1(1.1)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	2(2.2)	0(0.0)	13(14.1)	1(1.1)
	비영리단체	10(10.9)	1(1.1)	13(14.1)	5(5.4)

	프리랜서	13(14.1)	1(1.1)	11(12.0)	2(2.2)
	기타	2(2.2)	0(0.0)	3(3.3)	2(2.2)
학교마을강사** (매개자) 경력기간	1년 미만	4(4.3)	1(1.1)	11(12.0)	1(1.1)
	1년 이상~3년 미만	14(15.2)	0(0.0)	5(5.4)	1(1.1)
	3년 이상~5년 미만	6(6.5)	1(1.1)	4(4.3)	3(3.3)
	5년 이상~10년 미만	6(6.5)	0(0.0)	20(21.7)	3(3.3)
	10년 이상	1(1.1)	0(0.0)	8(8.7)	3(3.3)

주: * p <.05, **p<.01, ***p<.001

다. 매개자 과정 입문 전 관련 업무 경험

- 매개자 이전의 교육 관련 경험 유무를 조사한 결과 '예'라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응답자 94명 중 59명으로 약 63%이고, '아니오'라고 응답한 경우는 35명으로 약 37%로 조사되었음
- 응답자의 성별, 최종학력, 최종 전공분야, 소속유형, 매개자 경력기간에 따른 이전 교육경험 여부의 차이가 없으나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40대에서는 매개자 이전 교육경험이 없음에도 매개자로 활동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고 50대가 되면 이전 교육경험자가 매개자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육아로부터 자유로워진 50대가 되면서 이전 경험을 살린 사회활동 모색의 결과로 유추해 볼 수 있음

<표 IV-4>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의 이전 교육경험 여부

단위: 사례수(%)

구분		매개자의 이전 교육경험 여부	
		예	아니오
계(N=94)		59(62.8)	35(37.2)
성별	남	10(10.6)	5(5.3)
	여	49(52.1)	30(31.9)
연령대*	20대	2(2.1)	3(3.2)
	30대	10(10.6)	3(3.2)
	40대	12(12.8)	18(19.1)
	50대	27(28.7)	8(8.5)
	60대 이상	8(8.5)	3(3.2)

최종 학력	고졸	4(4.3)	6(6.4)
	전문대졸	10(10.6)	6(6.4)
	학사졸	28(29.8)	17(18.1)
	대학원수료	4(4.3)	3(3.2)
	대학원졸(석/박사)	13(13.8)	3(3.2)
최종 전공분야	인문학	15(16.0)	11(11.7)
	사회과학	14(14.9)	5(5.3)
	자연과학	2(2.1)	4(4.3)
	공학	3(3.2)	1(1.1)
	예체능	16(17.0)	5(5.3)
	기타	9(9.6)	9(9.6)
소속유형	지영업	10(10.6)	3(3.2)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	11(11.7)	7(7.4)
	비영리단체	20(21.3)	9(9.6)
	프리랜서	14(14.9)	13(13.8)
	기타	4(4.3)	3(3.2)
학교마을강사 (매개자) 경력기간	1년 미만	8(8.5)	10(10.6)
	1년 이상~3년 미만	12(12.8)	8(8.5)
	3년 이상~5년 미만	10(10.6)	4(4.3)
	5년 이상~10년 미만	18(19.1)	11(11.7)
	10년 이상	11(11.7)	2(2.1)

주: * p <.05, **p<.01, ***p<.001

라. 매개자 과정 진입 장애요인

- 매개자 과정 진입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적은 보수가 전체 응답자 93명 중 46명으로 약 50%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장거리(21명, 22.6%), 많은 시간 할애(14명, 15.1%), 자녀양육(6명, 6.5%)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특이한 것은 장애요인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도 4명(4.3%)로 확인되었음

<표 IV-5>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과정 진입 장애요인

단위: 사례수(%)

구분		매개자 과정 진입의 장애요인					
		적은 보수	장거리	자녀 양육	많은 시간 할애	없음	기타
계(N=93)		46(49.5)	21(22.6)	6(6.5)	14(15.1)	4(4.3)	2(2.2)
성별	남	8(8.6)	3(3.2)	0(0.0)	1(1.1)	1(1.1)	1(1.1)
	여	38(40.9)	18(19.4)	6(6.5)	13(14.0)	3(3.2)	1(1.1)
연령대	20대	0(0.0)	3(3.2)	0(0.0)	1(1.1)	1(1.1)	0(0.0)
	30대	7(7.5)	4(4.3)	1(1.1)	1(1.1)	0(0.0)	0(0.0)
	40대	12(12.9)	8(8.6)	2(2.2)	7(7.5)	0(0.0)	0(0.0)
	50대	19(20.4)	5(5.4)	3(3.2)	5(5.4)	2(2.2)	1(1.1)
	60대 이상	8(8.6)	1(1.1)	0(0.0)	0(0.0)	1(1.1)	1(1.1)
최종 학력	고졸	2(2.2)	5(5.4)	0(0.0)	2(2.2)	1(1.1)	0(0.0)
	전문대졸	12(12.9)	2(2.2)	0(0.0)	2(2.2)	0(0.0)	0(0.0)
	학사졸	22(23.7)	8(8.6)	5(5.4)	6(6.5)	2(2.2)	2(2.2)
	대학원수료	3(3.2)	1(1.1)	1(1.1)	1(1.1)	1(1.1)	0(0.0)
	대학원졸(석/박사)	7(7.5)	5(5.4)	0(0.0)	3(3.2)	0(0.0)	0(0.0)
최종 전공분야	인문학	13(14.0)	3(3.2)	4(4.3)	6(6.5)	0(0.0)	0(0.0)
	사회과학	11(11.8)	2(2.2)	2(2.2)	2(2.2)	2(2.2)	0(0.0)
	자연과학	3(3.2)	1(1.1)	0(0.0)	1(1.1)	1(1.1)	0(0.0)
	공학	3(3.2)	1(1.1)	0(0.0)	0(0.0)	0(0.0)	0(0.0)
	예체능	8(8.6)	8(8.6)	0(0.0)	2(2.2)	1(1.1)	1(1.1)
	기타	8(8.6)	6(6.5)	0(0.0)	3(3.2)	0(0.0)	1(1.1)
소속유형	자영업	7(7.5)	4(4.3)	0(0.0)	2(2.2)	0(0.0)	0(0.0)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	9(9.7)	3(3.2)	2(2.2)	3(3.2)	1(1.1)	0(0.0)
	비영리단체	14(15.1)	4(4.3)	2(2.2)	5(5.4)	2(2.2)	2(2.2)
	프리랜서	13(14.0)	9(9.7)	1(1.1)	3(3.2)	1(1.1)	0(0.0)
	기타	3(3.2)	1(1.1)	1(1.1)	1(1.1)	0(0.0)	0(0.0)
학교마을강사 (매개자) 경력기간	1년 미만	6(6.5)	5(5.4)	1(1.1)	3(3.2)	2(2.2)	1(1.1)
	1년 이상~3년 미만	11(11.8)	5(5.4)	1(1.1)	2(2.2)	1(1.1)	0(0.0)
	3년 이상~5년 미만	8(8.6)	4(4.3)	2(2.2)	0(0.0)	0(0.0)	0(0.0)
	5년 이상~10년 미만	11(11.8)	7(7.5)	2(2.2)	6(6.5)	1(1.1)	1(1.1)
	10년 이상	10(10.8)	0(0.0)	0(0.0)	3(3.2)	0(0.0)	0(0.0)

마.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

- 매개자 역할에 대해 매개자들은 어떻게 인식하는지 3개까지 응답하도록 한 결과 1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역할은 전체 응답자 93명 중 교사가 50명으로 53.8%로 조사되었고, 촉진자가 27명(29.0%)로 확인되었음
- 2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역할은 전체 응답자 85명 중 멘토가 37명으로 43.5%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촉진자 17명(20.0%)로 나타남
- 또한, 3순위로 인식하고 있는 역할은 전체 응답자 84명 중 촉진자가 19명으로 22.6%로 확인되었고, 컨설턴트(17명, 20.2%), 교사보조(15명, 17.9%)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전체적으로 매개자는 스스로의 역할에 대해 교사, 멘토, 촉진자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표 IV-6>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1순위)

단위: 사례수(%)

구분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1순위)					
		교사	멘토	돌봄교사	촉진자	컨설턴트	교사보조
계(N=93)		50(53.8)	8(8.6)	2(2.2)	27(29.0)	2(2.2)	4(4.3)
성별	남	10(10.8)	1(1.1)	0(0.0)	4(4.3)	0(0.0)	0(0.0)
	여	40(43.0)	7(7.5)	2(2.2)	23(24.7)	2(2.2)	4(4.3)
연령대	20대	5(5.4)	0(0.0)	0(0.0)	0(0.0)	0(0.0)	0(0.0)
	30대	7(7.5)	1(1.1)	0(0.0)	3(3.2)	1(1.1)	1(1.1)
	40대	14(15.1)	1(1.1)	1(1.1)	13(14.0)	0(0.0)	1(1.1)
	50대	18(19.4)	4(4.3)	1(1.1)	9(9.7)	1(1.1)	1(1.1)
	60대 이상	6(6.5)	2(2.2)	0(0.0)	2(2.2)	0(0.0)	1(1.1)
최종 학력	고졸	8(8.6)	0(0.0)	0(0.0)	2(2.2)	0(0.0)	0(0.0)
	전문대졸	9(9.7)	2(2.2)	0(0.0)	3(3.2)	0(0.0)	1(1.1)
	학사졸	23(24.7)	2(2.2)	1(1.1)	16(17.2)	2(2.2)	1(1.1)
	대학원수료	2(2.2)	2(2.2)	0(0.0)	2(2.2)	0(0.0)	1(1.1)
	대학원졸(석/박사)	8(8.6)	2(2.2)	1(1.1)	4(4.3)	0(0.0)	1(1.1)
최종 전공분야	인문학	13(14.0)	1(1.1)	1(1.1)	9(9.7)	0(0.0)	2(2.2)
	사회과학	9(9.7)	2(2.2)	0(0.0)	6(6.5)	1(1.1)	1(1.1)
	자연과학	5(5.4)	0(0.0)	0(0.0)	1(1.1)	0(0.0)	0(0.0)
	공학	1(1.1)	1(1.1)	0(0.0)	1(1.1)	0(0.0)	0(0.0)
	예체능	12(12.9)	1(1.1)	0(0.0)	6(6.5)	1(1.1)	1(1.1)
	기타	10(10.8)	3(3.2)	1(1.1)	4(4.3)	0(0.0)	0(0.0)
소속유형	자영업	9(9.7)	1(1.1)	0(0.0)	2(2.2)	0(0.0)	1(1.1)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	10(10.8)	3(3.2)	1(1.1)	4(4.3)	0(0.0)	0(0.0)
	비영리단체	13(14.0)	2(2.2)	0(0.0)	11(11.8)	0(0.0)	2(2.2)
	프리랜서	14(15.1)	2(2.2)	1(1.1)	8(8.6)	1(1.1)	1(1.1)
	기타	4(4.3)	0(0.0)	0(0.0)	2(2.2)	1(1.1)	0(0.0)
학교마을강사 (매개자) 경력기간	1년 미만	8(8.6)	3(3.2)	0(0.0)	7(7.5)	0(0.0)	0(0.0)
	1년 이상~3년 미만	9(9.7)	2(2.2)	0(0.0)	7(7.5)	1(1.1)	1(1.1)
	3년 이상~5년 미만	9(9.7)	0(0.0)	1(1.1)	1(1.1)	1(1.1)	1(1.1)
	5년 이상~10년 미만	18(19.4)	0(0.0)	0(0.0)	9(9.7)	0(0.0)	2(2.2)
	10년 이상	6(6.5)	3(3.2)	1(1.1)	3(3.2)	0(0.0)	0(0.0)

<표 IV-7>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2순위)

단위: 사례수(%)

구분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2순위)					
		교사	멘토	돌봄교사	촉진자	컨설턴트	교사보조
계(N=85)		10(11.8)	37(43.5)	8(9.4)	17(20.0)	8(9.4)	5(5.9)
성별	남	1(1.2)	8(9.4)	2(2.4)	0(0.0)	2(2.4)	0(0.0)
	여	9(10.6)	29(34.1)	6(7.1)	17(20.0)	6(7.1)	5(5.9)
연령대	20대	0(0.0)	3(3.5)	0(0.0)	2(2.4)	0(0.0)	0(0.0)
	30대	2(2.4)	6(7.1)	2(2.4)	0(0.0)	1(1.2)	0(0.0)
	40대	1(1.2)	12(14.1)	1(1.2)	6(7.1)	4(4.7)	3(3.5)
	50대	4(4.7)	12(14.1)	5(5.9)	8(9.4)	1(1.2)	2(2.4)
	60대 이상	3(3.5)	4(4.7)	0(0.0)	1(1.2)	2(2.4)	0(0.0)
최종 학력	고졸	0(0.0)	3(3.5)	3(3.5)	2(2.4)	1(1.2)	1(1.2)
	전문대졸	1(1.2)	5(5.9)	4(4.7)	1(1.2)	0(0.0)	2(2.4)
	학사졸	6(7.1)	19(22.4)	1(1.2)	8(9.4)	4(4.7)	2(2.4)
	대학원수료	1(1.2)	3(3.5)	0(0.0)	3(3.5)	0(0.0)	0(0.0)
	대학원졸(석/박사)	2(2.4)	7(8.2)	0(0.0)	3(3.5)	3(3.5)	0(0.0)
최종 전공분야	인문학	2(2.4)	9(10.6)	0(0.0)	8(9.4)	2(2.4)	0(0.0)
	사회과학	3(3.5)	10(11.8)	1(1.2)	3(3.5)	1(1.2)	1(1.2)
	자연과학	0(0.0)	4(4.7)	0(0.0)	1(1.2)	1(1.2)	0(0.0)
	공학	0(0.0)	1(1.2)	0(0.0)	0(0.0)	2(2.4)	0(0.0)
	예체능	4(4.7)	7(8.2)	3(3.5)	1(1.2)	2(2.4)	2(2.4)
	기타	1(1.2)	6(7.1)	4(4.7)	4(4.7)	0(0.0)	2(2.4)
소속유형	자영업	1(1.2)	5(5.9)	3(3.5)	1(1.2)	1(1.2)	1(1.2)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	1(1.2)	4(4.7)	0(0.0)	7(8.2)	3(3.5)	1(1.2)
	비영리단체	3(3.5)	11(12.9)	5(5.9)	5(5.9)	1(1.2)	2(2.4)
	프리랜서	4(4.7)	13(15.3)	0(0.0)	3(3.5)	3(3.5)	1(1.2)
	기타	1(1.2)	4(4.7)	0(0.0)	1(1.2)	0(0.0)	0(0.0)
학교미용강사 (매개자) 경력기간	1년 미만	0(0.0)	5(5.9)	2(2.4)	5(5.9)	2(2.4)	1(1.2)
	1년 이상~3년 미만	5(5.9)	8(9.4)	0(0.0)	2(2.4)	1(1.2)	2(2.4)
	3년 이상~5년 미만	1(1.2)	7(8.2)	1(1.2)	2(2.4)	1(1.2)	0(0.0)
	5년 이상~10년 미만	3(3.5)	11(12.9)	3(3.5)	5(5.9)	3(3.5)	2(2.4)
	10년 이상	1(1.2)	6(7.1)	2(2.4)	3(3.5)	1(1.2)	0(0.0)

<표 IV-8>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3순위)

단위: 사례수(%)

구분		매개자 역할에 대한 인식(3순위)					
		교사	멘토	돌봄교사	촉진자	컨설턴트	교사보조
계(N=84)		4(4.8)	21(25.0)	8(9.5)	19(22.6)	17(20.2)	15(17.9)
성별*	남	0(0.0)	0(0.0)	2(2.4)	6(7.1)	1(1.2)	4(4.8)
	여	4(4.8)	21(25.0)	6(7.1)	13(15.5)	16(19.0)	11(13.1)
연령대	20대	0(0.0)	1(1.2)	1(1.2)	1(1.2)	1(1.2)	1(1.2)
	30대	1(1.2)	2(2.4)	2(2.4)	3(3.6)	1(1.2)	2(2.4)
	40대	1(1.2)	8(9.5)	0(0.0)	4(4.8)	8(9.5)	5(6.0)
	50대	2(2.4)	7(8.3)	2(2.4)	9(10.7)	7(8.3)	5(6.0)
	60대 이상	0(0.0)	3(3.6)	3(3.6)	2(2.4)	0(0.0)	2(2.4)
최종 학력	고졸	1(1.2)	3(3.6)	0(0.0)	2(2.4)	0(0.0)	4(4.8)
	전문대졸	0(0.0)	4(4.8)	1(1.2)	4(4.8)	1(1.2)	3(3.6)
	학사졸	2(2.4)	10(11.9)	4(4.8)	7(8.3)	11(13.1)	6(7.1)
	대학원수료	1(1.2)	1(1.2)	1(1.2)	2(2.4)	2(2.4)	0(0.0)
	대학원졸(석/박사)	0(0.0)	3(3.6)	2(2.4)	4(4.8)	3(3.6)	2(2.4)
최종 전공분야	인문학	1(1.2)	4(4.8)	1(1.2)	2(2.4)	7(8.3)	5(6.0)
	사회과학	1(1.2)	5(6.0)	1(1.2)	6(7.1)	4(4.8)	2(2.4)
	자연과학	0(0.0)	0(0.0)	2(2.4)	2(2.4)	0(0.0)	2(2.4)
	공학	0(0.0)	1(1.2)	0(0.0)	1(1.2)	0(0.0)	1(1.2)
	예체능	2(2.4)	5(6.0)	3(3.6)	3(3.6)	3(3.6)	3(3.6)
	기타	0(0.0)	6(7.1)	1(1.2)	5(6.0)	3(3.6)	2(2.4)
소속유형	자영업	1(1.2)	2(2.4)	1(1.2)	5(6.0)	1(1.2)	2(2.4)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	2(2.4)	4(4.8)	2(2.4)	1(1.2)	4(4.8)	2(2.4)
	비영리단체	1(1.2)	8(9.5)	2(2.4)	5(6.0)	4(4.8)	7(8.3)
	프리랜서	0(0.0)	6(7.1)	3(3.6)	7(8.3)	5(6.0)	3(3.6)
	기타	0(0.0)	1(1.2)	0(0.0)	1(1.2)	3(3.6)	1(1.2)
학교마을강사 (매개자) 경력기간	1년 미만	1(1.2)	3(3.6)	1(1.2)	2(2.4)	5(6.0)	3(3.6)
	1년 이상~3년 미만	1(1.2)	6(7.1)	3(3.6)	3(3.6)	3(3.6)	2(2.4)
	3년 이상~5년 미만	0(0.0)	3(3.6)	0(0.0)	3(3.6)	3(3.6)	3(3.6)
	5년 이상~10년 미만	1(1.2)	6(7.1)	3(3.6)	5(6.0)	5(6.0)	6(7.1)
	10년 이상	1(1.2)	3(3.6)	1(1.2)	6(7.1)	1(1.2)	1(1.2)

바. 매개자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 매개자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예산과 인프라 부족이 전체 응답자 94명 중 47명(50.0%)로 조사되었고, 그 외 학교의 관심부재(13명, 13.8%), 교육주체의 공감대 부족과 홍보 등 일반시민의 인식부족(11명, 11.7%)을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함

<표 IV-9> 응답자의 개인적 배경에 따른 매개자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단위: 사례수(%)

구분		매개자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					
		공공기관의 무관심	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 문화 부재	교육주체의 공감대 부족	학교의 관심부재	예산과 인프라 부족	홍보 등 일반시민의 인식부족
계(N=94)		8(8.5)	4(4.3)	11(11.7)	13(13.8)	47(50.0)	11(11.7)
성별	남	2(2.1)	2(2.1)	0(0.0)	4(4.3)	7(7.4)	0(0.0)
	여	6(6.4)	2(2.1)	11(11.7)	9(9.6)	40(42.6)	11(11.7)
연령대	20대	0(0.0)	0(0.0)	0(0.0)	1(1.1)	4(4.3)	0(0.0)
	30대	1(1.1)	2(2.1)	0(0.0)	2(2.1)	6(6.4)	2(2.1)
	40대	2(2.1)	1(1.1)	4(4.3)	3(3.2)	18(19.1)	2(2.1)
	50대	4(4.3)	1(1.1)	3(3.2)	5(5.3)	15(16.0)	7(7.4)
	60대 이상	1(1.1)	0(0.0)	4(4.3)	2(2.1)	4(4.3)	0(0.0)
최종 학력	고졸	0(0.0)	0(0.0)	1(1.1)	1(1.1)	6(6.4)	2(2.1)
	전문대졸	1(1.1)	1(1.1)	1(1.1)	3(3.2)	7(7.4)	3(3.2)
	학사졸	5(5.3)	1(1.1)	7(7.4)	3(3.2)	25(26.6)	4(4.3)
	대학원수료	0(0.0)	0(0.0)	1(1.1)	3(3.2)	1(1.1)	2(2.1)
	대학원졸(석/박사)	2(2.1)	2(2.1)	1(1.1)	3(3.2)	8(8.5)	0(0.0)
최종 전공분야	인문학	4(4.3)	0(0.0)	5(5.3)	4(4.3)	10(10.6)	3(3.2)
	사회과학	2(2.1)	2(2.1)	2(2.1)	5(5.3)	7(7.4)	1(1.1)
	자연과학	0(0.0)	0(0.0)	0(0.0)	1(1.1)	5(5.3)	0(0.0)
	공학	1(1.1)	0(0.0)	0(0.0)	0(0.0)	2(2.1)	1(1.1)
	예체능	1(1.1)	1(1.1)	1(1.1)	2(2.1)	11(11.7)	5(5.3)
	기타	0(0.0)	1(1.1)	3(3.2)	1(1.1)	12(12.8)	1(1.1)
소속유형	자영업	0(0.0)	2(2.1)	1(1.1)	1(1.1)	7(7.4)	2(2.1)
	교육기관/지역교육기관	2(2.1)	0(0.0)	4(4.3)	2(2.1)	8(8.5)	2(2.1)
	비영리단체	6(6.4)	1(1.1)	1(1.1)	4(4.3)	13(13.8)	4(4.3)
	프리랜서	0(0.0)	0(0.0)	4(4.3)	5(5.3)	15(16.0)	3(3.2)

	기타	0(0.0)	1(1.1)	1(1.1)	1(1.1)	4(4.3)	0(0.0)
학교마을강사 (매개자) 경력기간	1년 미만	0(0.0)	0(0.0)	3(3.2)	3(3.2)	10(10.6)	2(2.1)
	1년 이상~3년 미만	2(2.1)	0(0.0)	2(2.1)	4(4.3)	8(8.5)	4(4.3)
	3년 이상~5년 미만	1(1.1)	1(1.1)	2(2.1)	1(1.1)	9(9.6)	0(0.0)
	5년 이상~10년 미만	3(3.2)	1(1.1)	4(4.3)	2(2.1)	17(18.1)	2(2.1)
	10년 이상	2(2.1)	2(2.1)	0(0.0)	3(3.2)	3(3.2)	3(3.2)

3. 매개자 양성과정에 대한 인식

가.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은 사전활동-교육활동-사후활동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 세부 항목에 대해 난이도와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즉, 전반적으로 중요도 수준은 5점 만점에 3.63이나 난이도 수준은 2.74로 무난히 따라갈 수 있는 수준임이 확인되었음
- 난이도 차원에서 살펴보면 프로젝트 기획이 전체 교육요소 중 가장 어려운 수준인 2.79로 조사되었고, 가장 쉬운 항목은 사전피드백이 2.68로 확인되었음. 이는 응답자의 약 90% 가량이 전문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이수하였고 매개자 참여 이전에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비율이 약 63% 수준으로 이와 같은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유추해 볼 수 있음. 이는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을 객관화하고 고도화하기 위해 다소 난이도를 제고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됨
- 중요도 차원에서 보면 현장실행이 5점 만점에 3.71로 조사되었고 가장 덜 중요하게 인식된 항목은 사전인터뷰가 3.56으로 조사되었음

<표 IV-10>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기술통계

(척도: 5점 만점)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난이도	사전활동	사전인터뷰	93	2.73	.809
		교사협의회	93	2.73	.823
		프로젝트 기획	94	2.79	.774
	교육활동	사전피드백	93	2.68	.782
		모듬활동 추진과 관찰	92	2.75	.860

	사후활동	사후피드백	93	2.66	.759
		현장실행	92	2.74	.783
		사후시사회	93	2.73	.724
		사후인터뷰	93	2.72	.771
		계	86	2.74	.593
중요도	사전활동	사전인터뷰	93	3.56	.729
		교사협의회	94	3.60	.723
		프로젝트 기획	94	3.68	.707
	교육활동	사전피드백	93	3.61	.643
		모듬활동 촉진과 관찰	94	3.67	.753
		사후피드백	94	3.67	.767
		현장실행	92	3.71	.792
		사후시사회	93	3.59	.755
	사후활동	사후인터뷰	94	3.67	.767
	계	86	3.63	.659	

주; * p <.05, **p<.01, ***p<.001

-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와 중요도의 대응표본 t검증을 실시한 결과 모든 세부요소에 대해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세부 항목별로 난이도가 낮다고 해서 결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라는 반증이 됨

<표 IV-11>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기술통계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p	
교육과정 난이도		86	2.74	.593	-8.785	.000***	
교육과정 중요도		86	3.63	.659			
사전활동	사전인터뷰	난이도	93	2.73	.809	-7.608	.000***
		중요도	93	3.56	.729		
	교사협의회	난이도	93	2.73	.823	-7.784	.000***
		중요도	94	3.60	.723		
	프로젝트 기획	난이도	94	2.79	.774	-8.860	.000***
		중요도	94	3.68	.707		
교육활동	사전피드백	난이도	93	2.68	.782	-7.991	.000***
		중요도	93	3.61	.643		
	모둠활동 촉진과 관찰	난이도	92	2.75	.860	-7.532	.000***
		중요도	94	3.67	.753		
	사후피드백	난이도	93	2.66	.759	-8.444	.000***
		중요도	94	3.67	.767		
	현장실행	난이도	92	2.74	.783	-8.057	.000***
		중요도	92	3.71	.792		
	사후시사회	난이도	93	2.73	.724	-7.093	.000***
		중요도	93	3.59	.755		
사후활동	사후인터뷰	난이도	93	2.72	.771	-7.901	.000***
		중요도	94	3.67	.767		

주: * p <.05, **p<.01, ***p<.001

○ 개인변인에 따른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분석

- 성별에 따른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t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음. 즉, 난이도 차원에서는 사전활동 중 사전인터뷰 요소에 대해 여성 대비 남성이 어려워하고 있음이 5% 유의수준에서 확인되었음. 또한, 교육활동 중 사전피드백에 대해서도 여성보다 남성이 어려워하고 있음이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확인되었음. 이러한 분석결과는 매개자 양성과정에서 남성에 대해서는 학생들과의 소통, 매개자간 소통을 위한 교육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함
- 성별에 따른 매개자 교육과정의 중요도 차원에서 사전활동 중 교사협의회에 대해 남성보다 여성들의 중요도 인식 수준이 1% 수준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을 확인하였음
- 전반적으로 성별에 따른 단계별 매개자 교육과정의 특이점은 남성들은 학생 및 여성이 절대다수인 매개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중요도 차원에서는 프로젝트 수업을 성공적으로 잘 운영하고 마무리짓기 위해서는 코칭하는 교사와의 소통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표 IV-12> 성별에 따른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t검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난이도	사전활동	사전인터뷰	남	14	3.00	.392	2.224	.032*
			여	79	2.68	.856		
		교사협의회	남	14	2.79	.579	.268	.790
			여	79	2.72	.861		
		프로젝트 기획	남	15	2.80	.561	.069	.945
			여	79	2.78	.811		
	교육활동	사전피드백	남	14	3.07	.616	2.479	.022*
			여	79	2.61	.791		
		모둠활동 촉진과 관찰	남	14	2.93	.616	.843	.402
			여	78	2.72	.896		
		사후피드백	남	14	2.64	.633	-.069	.945
			여	79	2.66	.783		
		현장실행	남	14	2.86	.864	.611	.543
			여	78	2.72	.771		
사후시사회	남	14	2.86	.864	.704	.483		
	여	79	2.71	.701				
사후활동	사후인터뷰	남	14	2.79	.802	.342	.733	
		여	79	2.71	.770			
중요도	사전활동	사전인터뷰	남	15	3.33	.816	-1.315	.192
			여	78	3.60	.709		
		교사협의회	남	15	3.13	.990	-2.799	.006**
			여	79	3.68	.631		
		프로젝트 기획	남	15	3.33	.900	-2.116	.037
			여	79	3.75	.650		
	교육활동	사전피드백	남	15	3.40	.828	-1.407	.163
			여	78	3.65	.599		
		모둠활동 촉진과 관찰	남	15	3.40	.828	-1.526	.130
			여	79	3.72	.733		
		사후피드백	남	15	3.33	.900	-1.880	.063
			여	79	3.73	.729		
		현장실행	남	13	3.23	1.013	-2.398	.019*
			여	79	3.78	.728		
사후시사회	남	15	3.20	.775	-2.239	.028		
	여	78	3.67	.733				
사후활동	사후인터뷰	남	15	3.33	.816	-1.880	.063	
		여	79	3.73	.746			

주: * p <.05, **p<.01, ***p<.001

- 연령대에 따른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F검증 분석 결과, 사전활동 중 사전인터뷰 단계에서 연령대별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즉, 학생들과 첫 만남을 통해 학생들의 가정지지체계, 교사지지체계, 또래지지체계 및 무기력과 요구를 확인해 가는 과정에서 젊을수록 난이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음. 다만 교육활동 중 사전피드백의 경우 연령대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연령대별 경향을 파악하기 어려움

<표 IV-13> 연령대에 따른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F검증

구분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F	p
난이도	사전활동	사전인터뷰	20대	10	2.40	.699	2.545	.045*
			30대	16	2.69	.793		
			40대	44	2.73	.758		
			50대	7	3.57	.787		
			60대 이상	16	2.63	.885		
		교사협의회	20대	10	2.40	.699	1.854	.126
			30대	16	2.81	.750		
			40대	44	2.66	.745		
			50대	7	3.43	.787		
			60대 이상	16	2.75	1.065		
	프로젝트 기획	20대	10	2.50	.527	2.117	.085	
		30대	16	2.94	.680			
		40대	45	2.67	.674			
		50대	7	3.43	.976			
		60대 이상	16	2.88	1.025			
	교육활동	사전피드백	20대	10	2.60	.699	2.910	.026*
			30대	16	3.06	.854		
			40대	44	2.52	.698		
			50대	7	3.29	.951		
			60대 이상	16	2.50	.730		
모듬활동 추진과 관찰		20대	10	2.30	.949	1.776	.141	
		30대	16	2.81	.911			
		40대	44	2.66	.776			
		50대	6	3.00	.632			
		60대 이상	16	3.13	.957			

		사후피드백	20대	10	2.30	.483	1.746	.147	
			30대	16	2.88	.885			
			40대	44	2.59	.693			
			50대	7	3.14	.690			
			60대 이상	16	2.63	.885			
		현장실행	20대	10	2.40	.843	1.117	.354	
			30대	16	2.75	.856			
			40대	44	2.80	.765			
			50대	7	3.14	.690			
			60대 이상	15	2.60	.737			
		사후시사회	20대	10	2.40	.843	1.123	.351	
			30대	16	2.81	.655			
			40대	44	2.80	.734			
			50대	7	3.00	.577			
			60대 이상	16	2.56	.727			
		사후활동	사후인터뷰	20대	10	2.40	.843	.934	.448
				30대	16	2.81	.655		
				40대	44	2.77	.743		
				50대	7	3.00	.816		
				60대 이상	16	2.56	.892		

주; * p <.05, **p<.01, ***p<.001

- 한편, 응답자의 학력, 경력기간별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 전공분야에 따른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중요도 F검증 결과, 사전활동 중 사전인터뷰 요소에 대해 매개자의 전공분야별로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즉, 사회과학을 전공한 매개자는 매우 중요도를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학을 전공한 매개자의 경우 중요성을 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이러한 경향은 사전활동 중 교사협의회 단계에서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전공자들은 1% 수준에서 그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공학 전공자들은 중요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고 있음
- 또한, 교육활동 중 사전피드백 단계에 대해 자연과학(4.00), 사회과학(3.84), 인문학(3.65)의 순으로 높게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공학과 예체능 전공 매개자의 경우에는 3.25로 그 중요성에 대해 낮게 인식하고 있음

<표 IV-14> 전공분야에 따른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단계별 중요도 F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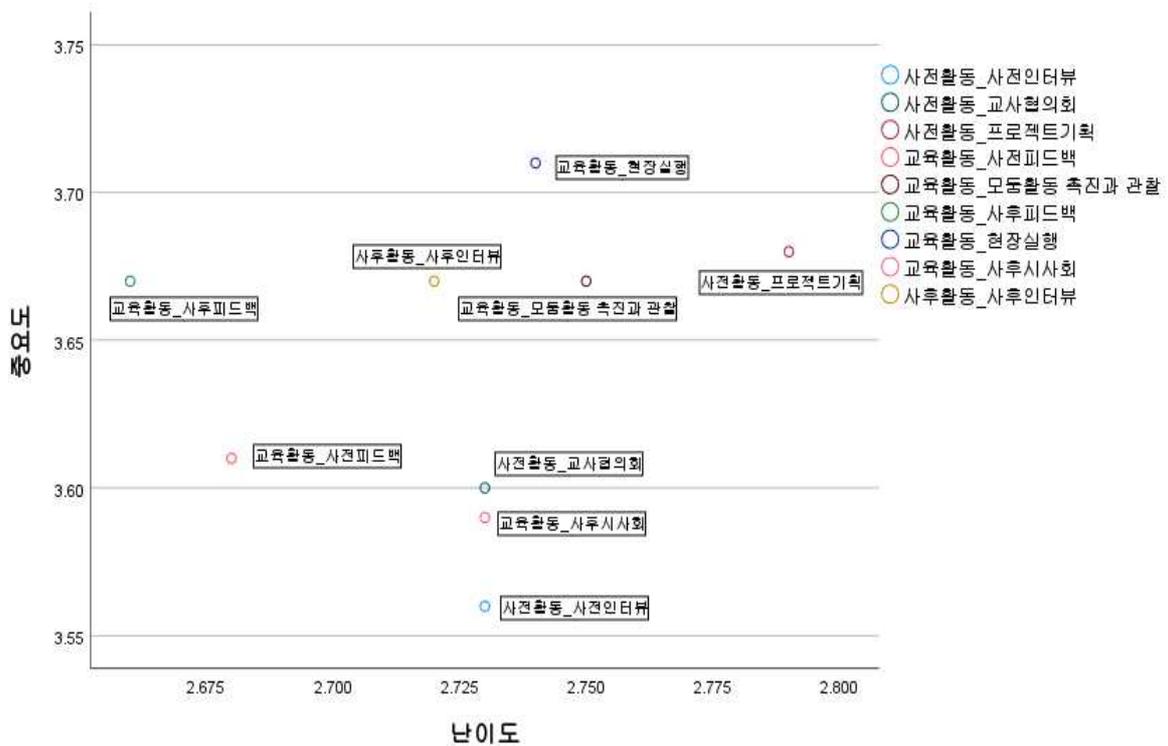
구분		전공분야	N	평균	표준편차	F	p	
중요도	사전활동	사전인터뷰	인문학	26	3.73	.667	4.247	.002**
			사회과학	18	3.94	.802		
			자연과학	6	3.83	.753		
			공학	4	2.75	.500		
			예체능	21	3.19	.602		
			기타	18	3.44	.616		
		교사협의회	인문학	26	3.65	.629	3.285	.009**
			사회과학	19	3.89	.875		
			자연과학	6	4.00	.632		
			공학	4	2.75	.500		
			예체능	21	3.29	.644		
			기타	18	3.61	.608		
		프로젝트 기획	인문학	26	3.85	.675	1.740	.134
			사회과학	19	3.84	.834		
			자연과학	6	4.00	.632		
			공학	4	3.25	.500		
			예체능	21	3.43	.676		
			기타	18	3.56	.616		
	교육활동	사전피드백	인문학	26	3.65	.562	2.725	.025*
			사회과학	19	3.84	.765		
			자연과학	6	4.00	.632		
			공학	4	3.25	.500		
			예체능	20	3.25	.550		
			기타	18	3.67	.594		
모둠활동 축진과 관찰		인문학	26	3.81	.694	2.230	.058	
		사회과학	19	3.84	.834			
		자연과학	6	4.00	.632			
		공학	4	3.00	.816			
		예체능	21	3.33	.730			
		기타	18	3.72	.669			
사후피드백		인문학	26	3.69	.736	1.437	.219	
		사회과학	19	3.89	.737			
		자연과학	6	4.00	.632			
		공학	4	3.25	.500			

			예체능	21	3.38	.921	1.566	.178
			기타	18	3.72	.669		
		현장실행	인문학	26	3.77	.765		
			사회과학	18	3.94	.802		
			자연과학	6	4.00	.632		
			공학	3	3.00	.000		
			예체능	21	3.43	.926		
			기타	18	3.72	.669		
		사후시사회	인문학	26	3.69	.679		
			사회과학	19	3.79	.787		
			자연과학	6	4.00	.632		
			공학	4	3.00	.000		
	예체능		20	3.25	.851			
	기타		18	3.61	.698			
	사후활동	사후인터뷰	인문학	26	3.85	.732	1.348	.252
			사회과학	19	3.79	.787		
			자연과학	6	4.00	.632		
			공학	4	3.25	.500		
예체능			21	3.43	.870			
기타			18	3.56	.705			

주: * p <.05, **p<.01, ***p<.001

○ 사전활동-교육활동-사후활동의 단계별 난이도 및 중요도 분석

-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사전활동-교육활동-사후활동의 3단계 내 세부요소들에 대해 산점도를 활용하여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음. 즉, 사전활동 중 프로젝트 기획이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교육활동 중 현장실행은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며, 그 다음으로 교육활동 내 모듈활동 촉진과 관찰의 순임. 해당 요소들은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보다 양적·질적으로 내용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림 IV-1]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중요도&난이도 산점도

나. 매개자에게 요구되는 중요 역량

- 매개자에게 요구되는 중요 역량을 2개까지 중복을 허용하여 선택하도록 한 결과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과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2.75%로 확인되었음. 이는 앞서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3단계 내 세부요소에 대한 중요도와 난이도를 분석한 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로 프로젝트 기획이 가장 난이도가 높고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음. 또한, 교육활동 중 현장실행이 가장 중요한 활동으로 인식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가장 오랜 시간에 걸쳐 활동하는 과정으로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과 연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음
- 매개자에게 요구되는 중요역량을 항목별로 다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2개까지 중복을 허용한 결과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이 43.56%로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조사되었고, 그 다음으로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이 39.26%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 수업 중 문제상황 대응능력,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역량,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 역량의 순으로 나타남

<표 IV-15> 매개자에게 요구되는 중요 역량(2개까지 선택)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	2	2.20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 +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역량	5	5.49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 +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	48	52.75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 + 수업 중 문제상황대응능력	6	6.59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역량	3	3.30
교육과정설계 및 평가역량	1	1.10
교육과정설계 및 평가역량 +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	3	3.30
교육과정설계 및 평가역량 + 수업 중 문제상황대응능력	1	1.10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	12	13.19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 + 수업 중 문제상황대응능력	6	6.59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 +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역량	2	2.20
수업 중 문제상황대응능력	2	2.20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역량	0	0
계	91	100

<표 IV-16> 매개자에게 요구되는 항목별 중요 역량(2개까지 선택)

(N=163)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	교육과정 설계 및 평가역량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	수업 중 문제상황대응능력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역량
2				
5	5			
48		48		
6			6	
3				3
	1			
	3	3		
	1		1	
		12		
		6	6	
		2		2
64(39.26%)	10(6.13%)	71(43.56%)	13(7.98%)	5(3.07%)

4. 매개자 양성과정 및 운영 전반에 대한 만족도

○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 매개자 과정 OT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68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음

<표 IV-17>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N=94)

구분	평균	표준편차
매개자과정 OT에 대한 만족도	3.68	.779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	2.74	.547
교육전문가 성장을 위한 매개자 양성과정의 충분성	3.33	.795
교육활동 수행과정의 학교의 지원수준 충분성	3.21	.717
매개자 역할의 기대 충족 수준	3.57	.755
지역교육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3.97	.754
조례 등 규정 제정의 필요성	3.81	.871

-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 수준은 5점 만점에 2.74로 다소 부족하다고 조사됨. 이는 매개자 양성과정이 별도로 존재하기 보다는 간단한 OT 이외 사전활동부터 교육활동 및 사후활동까지 매개자 양성과정이라는 점은 실제 교수학습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어 이런 분석결과가 나올 수도 있으며, 실제로 교육기간을 더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차원으로 해석가능함
- 교육전문가 성장을 위한 매개자 양성과정의 충분성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33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확인됨
- 교육활동 수행과정에서 학교의 지원 수준 충분 정도를 분석한 결과 5점 만점에 3.21로 보통 수준으로 확인됨
- 매개자로 활동하면서 매개자 진입 당시 당초 기대했던 역할이 충족되었는지를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57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매개자가 지역교육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수준을 조사한 결과 5점 만점에 3.97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매개자 역할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조례 등의 규정 제정 등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5점 만

점에 3.81로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어 향후 센터를 중심으로 완주군청과 교육지원청이 초안을 만들어 완주군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함

○ 성별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성별에 따라 t 검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7가지 조사항목에 대해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 항목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들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님

<표 IV-18> 성별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수준의 만족도 t-검증

구분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t	p
매개자과정 OT에 대한 만족도	남	15	3.67	.816	-.077	.939
	여	79	3.68	.777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	남	15	2.87	.516	.941	.349
	여	79	2.72	.553		
교육전문가 성장을 위한 매개자 양성과정의 충분성	남	15	3.27	.594	-.334	.739
	여	79	3.34	.830		
교육활동 수행과정의 학교의 지원수준 충분성	남	15	3.27	.594	-1.25	.129
	여	79	3.34	.830		
매개자 역할의 기대 충족 수준	남	15	3.53	.516	.173	.819
	여	79	3.58	.794		
지역교육공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남	15	3.80	.775	.169	.349
	여	79	4.00	.751		
조례 등 규정 제정의 필요성	남	15	3.67	.900	.371	.494
	여	79	3.84	.869		

○ 연령대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 연령대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수준에 대한 만족도 F-검증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표 IV-19> 연령대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F검증

구분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F	p
매개자과정 OT에 대한 만족도	20대	5	4.00	.707	1.919	.114
	30대	13	3.31	.947		
	40대	30	3.73	.640		
	50대	35	3.60	.847		
	60대 이상	11	4.09	.539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	20대	5	2.80	.447	.580	.678
	30대	13	2.69	.751		
	40대	30	2.80	.484		
	50대	35	2.66	.591		
	60대 이상	11	2.91	.302		
교육전문가 성장을 위한 매개자 양성과정의 충분성	20대	5	3.80	.447	.582	.676
	30대	13	3.23	.725		
	40대	30	3.30	.750		
	50대	35	3.29	.893		
	60대 이상	11	3.45	.820		
교육활동 수행과정의 학교의 지원수준 충분성	20대	5	3.40	1.140	1.265	.290
	30대	13	2.92	.954		
	40대	30	3.10	.607		
	50대	35	3.37	.690		
	60대 이상	11	3.27	.467		
매개자 역할의 기대 충족 수준	20대	5	4.00	.707	.834	.507
	30대	13	3.46	.877		
	40대	30	3.63	.556		
	50대	35	3.46	.886		
	60대 이상	11	3.73	.647		
지역교육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20대	5	4.20	.447	.965	.431
	30대	13	3.92	1.038		
	40대	30	3.80	.610		
	50대	35	4.00	.840		
	60대 이상	11	4.27	.467		
조례 등 규정 제정의 필요성	20대	5	4.00	.707	1.841	.128
	30대	13	3.69	.855		
	40대	30	3.53	.937		
	50대	35	3.91	.853		
	60대 이상	11	4.27	.647		

○ 학력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 학력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수준에 대한 만족도 수준을 일원배치 분산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매개자 과정 OT에 대한 만족도,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 매개자 역할의 기대 충족수준, 조례 등 규정 제정의 필요성 항목에 대해서는 매개자의 학력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전문가 성장을 위한 매개자 양성과정의 충분성 문항에 대해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대학원수료 및 대학원졸업의 고학력자일수록 매개자들이 교육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한 양성과정이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고 학사졸 이하의 학력을 가질수록 보통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갖추고 교원자격 취득을 위한 전문적인 양성과정을 통해 배출된 교사와 같은 교실에서 코칭을 해야 하는 차원에서 매개자 양성과정을 보다 고도화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시사한다고 판단됨
- 교육활동 수행과정의 학교의 지원수준이 충분한지를 조사한 결과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전문대졸의 매개자는 5점 만점의 3.44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고졸의 매개자는 3.00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음
- 지역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매개자의 학력이 낮을수록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 고졸의 매개자인 경우 5점 만점에 4.50의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긍정적 영향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전문대졸은 4.06, 학사졸은 4.00, 대학원졸은 3.63, 대학원수료는 3.57로 학력과 지역사회로의 긍정적 영향과 반비례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음

<표 IV-20> 학력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F검증

구분	학력	N	평균	표준편차	F	p
매개자과정 OT에 대한 만족도	고졸	10	3.50	.527	1.731	.150
	전문대졸	16	4.00	1.033		
	학사졸	45	3.71	.727		
	대학원수료	7	3.14	.690		
	대학원졸	16	3.63	.719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	고졸	10	2.50	.527	2.740	.033
	전문대졸	16	2.88	.500		
	학사졸	45	2.87	.405		
	대학원수료	7	2.71	.488		
	대학원졸	16	2.44	.814		
교육전문가 성장을 위한	고졸	10	3.50	.707	4.087	.004**

매개자 양성과정의 충분성	전문대졸	16	3.63	1.025		
	학사졸	45	3.44	.586		
	대학원수료	7	3.14	.690		
	대학원졸	16	2.69	.873		
교육활동 수행과정의 학교의 지원수준 충분성	고졸	10	3.00	.667	4.087	.004**
	전문대졸	16	3.44	.964		
	학사졸	45	3.22	.636		
	대학원수료	7	3.14	.690		
	대학원졸	16	3.13	.719		
매개자 역할의 기대 충족 수준	고졸	10	3.70	.675	.722	.579
	전문대졸	16	3.63	.885		
	학사졸	45	3.64	.645		
	대학원수료	7	3.43	.976		
	대학원졸	16	3.31	.873		
지역교육공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고졸	10	4.50	.527	2.848	.028*
	전문대졸	16	4.06	1.063		
	학사졸	45	4.00	.522		
	대학원수료	7	3.57	.787		
	대학원졸	16	3.63	.885		
조례 등 규정 제정의 필요성	고졸	10	4.20	.632	2.401	.056
	전문대졸	16	3.69	.793		
	학사졸	45	3.91	.733		
	대학원수료	7	3.00	1.155		
	대학원졸	16	3.75	1.125		

주: * p <.05, **p<.01, ***p<.001

○ 매개자가 인식하는 대한 관계자들의 매개자에 대한 인식수준

- 매개자들은 교육 현장의 중요한 주체인 학생, 학부모, 학교관계자들이 매개자를 어떻게 인식한다고 생각하는지 조사한 결과, 교육주체별 큰 차이가 없이 대동소이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즉, 학생(3.74), 학교 관계자(3.73), 학부모(3.68)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음. 다만, 향후에 후속 연구를 통해 학생과 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가 매개자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는지 조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IV-21> 매개자를 바라보는 교육주체별 매개자의 인식수준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학생	94	3.74	.717
학부모	93	3.68	.678
학교 관계자	94	3.73	.706

○ 매개자 전공분야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 매개자의 전공분야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수준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전반적으로 자연과학, 인문학을 전공한 매개자의 경우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수준이 타 전공자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이고, 공학을 전공한 매개자의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표 IV-22> 전공분야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구분	전공분야	N	평균	표준편차	F	p
매개자과정 OI에 대한 만족도	인문학	26	3.65	.485	1.447	.216
	사회과학	19	3.74	.933		
	자연과학	6	3.67	1.211		
	공학	4	3.00	1.414		
	예체능	21	3.52	.750		
	기타	18	4.00	.594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	인문학	26	2.73	.604	.327	.895
	사회과학	19	2.68	.478		
	자연과학	6	2.83	.408		
	공학	4	2.50	1.000		
	예체능	21	2.76	.625		
	기타	18	2.83	.383		
교육전문가 성장을 위한	인문학	26	3.38	.852	1.777	.126

매개자 양성과정의 충분성	사회과학	19	3.11	.658		
	자연과학	6	3.50	.548		
	공학	4	2.50	1.291		
	예체능	21	3.33	.730		
	기타	18	3.61	.778		
교육활동 수행과정의 학교의 지원수준 충분성	인문학	26	3.23	.587	1.616	.164
	사회과학	19	2.84	.898		
	자연과학	6	3.50	.837		
	공학	4	3.50	.577		
	예체능	21	3.24	.625		
	기타	18	3.39	.698		
매개자 역할의 기대 충족 수준	인문학	26	3.65	.689	.927	.467
	사회과학	19	3.32	.820		
	자연과학	6	3.67	.816		
	공학	4	3.25	1.500		
	예체능	21	3.57	.676		
	기타	18	3.78	.647		
지역교육공동체에 미치는 공정적 영향	인문학	26	3.85	.613	2.306	.051
	사회과학	19	3.95	.524		
	자연과학	6	4.17	.983		
	공학	4	3.00	1.414		
	예체능	21	4.00	.949		
	기타	18	4.28	.461		
조례 등 규정 제정의 필요성	인문학	26	3.62	1.098	2.030	.082
	사회과학	19	4.21	.787		
	자연과학	6	3.33	.516		
	공학	4	3.50	1.000		
	예체능	21	3.67	.730		
	기타	18	4.06	.639		

- 매개자 경력기간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 수준에 대한 만족도
- 매개자의 경력기간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수준에 대한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 모든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매개자 과정 OT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매개자의 만족도가 5점 만점에 4.08로 가장 높았고,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은 3.36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이 5점 만점에 2.83으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이 가장 낮게 응답하여, 매개자 경력이 많을수록 매개자 양성과정을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보이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음
 - 교육전문가로 성장하기 위해 매개자 양성과정이 충분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은 5점 만점에 3.6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은 3.00으로 가장 낮게 응답하였음
 - 교육활동 수행과정에 있어 학교의 지원이 충분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이 5점 만점에 3.38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1년 이상~3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은 3.05로 낮게 응답하였음
 - 매개자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처음 가졌던 기대가 얼마나 충족되었는지 조사한 결과,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이 5점 만점에 3.67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고,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은 3.2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음
 - 매개자의 지역교육공동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에 대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들이 5점 만점에 4.15로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고,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는 3.57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였음
 - 매개자의 역할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 등의 규정 제정이 필요한지 조사한 결과, 전 연령대에서 높은 수준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었는데 10년 이상의 매개자 경력을 가진 경우 5점 만점에 3.92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3년 이상~5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매개자의 경우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응답하였으나 3.71로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 응답을 하였음

<표 IV-23> 매개자 경력에 따른 매개자 양성과정 및 역할과 지원수준에 대한 F검증

구분	경력기간	N	평균	표준편차	F	p
매개자과정 OT에 대한 만족도	1년 미만	18	3.83	.857	1.889	.119
	1년 이상~3년 미만	20	3.70	.733		
	3년 이상~5년 미만	14	3.36	1.008		
	5년 이상~10년 미만	29	3.55	.572		
	10년 이상	13	4.08	.760		
매개자 양성과정 기간의 적절성	1년 미만	18	2.83	.383	.233	.919
	1년 이상~3년 미만	20	2.75	.550		
	3년 이상~5년 미만	14	2.79	.699		
	5년 이상~10년 미만	29	2.69	.541		
	10년 이상	13	2.69	.630		
교육전문가 성장을 위한 매개자 양성과정의 충분성	1년 미만	18	3.67	.485	1.766	.143
	1년 이상~3년 미만	20	3.15	.813		
	3년 이상~5년 미만	14	3.00	.784		
	5년 이상~10년 미만	29	3.38	.775		
	10년 이상	13	3.38	1.044		
교육활동 수행과정의 학교의 지원수준 충분성	1년 미만	18	3.22	1.003	.524	.718
	1년 이상~3년 미만	20	3.05	.686		
	3년 이상~5년 미만	14	3.14	.535		
	5년 이상~10년 미만	29	3.28	.528		
	10년 이상	13	3.38	.870		
매개자 역할의 기대 충족 수준	1년 미만	18	3.67	.686	.667	.616
	1년 이상~3년 미만	20	3.55	.759		
	3년 이상~5년 미만	14	3.29	1.069		
	5년 이상~10년 미만	29	3.66	.614		
	10년 이상	13	3.62	.768		
지역교육공동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1년 미만	18	4.11	.471	1.621	.176
	1년 이상~3년 미만	20	3.85	.875		
	3년 이상~5년 미만	14	3.57	.938		
	5년 이상~10년 미만	29	4.07	.651		
	10년 이상	13	4.15	.801		
조례 등 규정 제정의 필요성	1년 미만	18	3.89	.583	.208	.934
	1년 이상~3년 미만	20	3.85	.875		
	3년 이상~5년 미만	14	3.71	.914		
	5년 이상~10년 미만	29	3.72	.960		
	10년 이상	13	3.92	1.038		

5. 종합 및 시사점

- 본 절에서는 94명의 완주군 매개자들을 대상으로 양성과정 전반과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수준을 조사·분석하였음
- 첫째, 매개자 과정을 인지한 경로는 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지인, 선배 매개자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한편, 매개자 과정 인지 경로가 연령대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연령대별로 홍보 전략을 달리하여 매개자 유입 및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음
- 둘째, 매개자 과정 참여에 영향을 준 주체는 센터, 선배 매개자, 지인, 가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저 경력자는 선배 매개자의 영향을 많이 받고 고경력 매개자의 경우에는 센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분석됨
- 셋째, 매개자 과정 입문 전 교육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가 약 63%로 과반을 훨씬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40대 매개자의 경우 교육 관련 경험이 없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50대는 교육 관련 경험을 갖고 매개자 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러한 차이는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
- 넷째, 매개자 과정 진입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적은 보수, 장거리, 많은 시간 할애, 자녀양육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다섯째, 매개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매개자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꼽은 역할은 교사이고, 2순위는 멘토, 3순위는 촉진자로 조사되었음
- 여섯째, 매개자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예산과 인프라 부족, 학교의 관심 부재, 교육주체의 공감대 부족과 홍보 등 일반시민의 인식부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이는 매개자 과정 진입의 장애요인 1순위가 적은 보수라는 조사 결과와 일치된 결과로 매개자들의 시간당 강사료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나온 결과로 향후 매개자 제도와 관련하여 예산과 인프라를 확대해야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일곱째, 매개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활동-교육활동-사후활동의 3단계에 대해 난이도와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2.74로 어렵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다소 높은 수준인 3.63으로 나타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영역은 사전활동 내 프로젝트 기획 단계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교육활동 내 현장 실행 단계임. 이는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 여덟째, 응답자의 성별에 따른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사전활동 내 사전인터뷰와 교육활동 내 사전피드백 영역을 어려워하고 있음을 확인하여 성별에 따른 양성과정에서의 주안점을 달리 가져갈 필요가 있음
- 아홉째, 응답자의 연령대에 따른 매개자 교육과정의 단계별 난이도와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가 높을수록 사전활동 내 사전인터뷰 과정을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과의 세대차이에 기인할 수 있어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최근의 청소년 문화를 이해하는 교육내용을 양성과정 중에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열째, 전공분야에 따른 교육과정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인문·사회과학 분야 전공자 대비 공학분야 전공자의 경우 사전활동 단계의 사전인터뷰, 교사협의회와 교육활동 단계의 사전피드백에 대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는 학생들과의 소통, 매개자와 교사 및 매개자 간 소통이 주를 이루는 과정에 주로 국한되어 있어 교육에서의 소통의 중요성을 보다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열한째, 매개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개자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과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으로 조사되어 해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열두째, 매개자들은 매개자 양성기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보다 양성과정 기간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매개자 활용 교육이 지역교육공동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매개자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원을 위한 조례 등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군청-센터-지역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함

V. 완주군 매개자 양성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인터뷰 분석

1. 매개자 대상 인터뷰 분석 결과

가. 매개자 참여동기 및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에 대한 개인적 관심사

○ 경력 단절 이후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 지역의 아이들에 대한 관심

- 경력단절로 새로운 경력을 원하던 차에 아이 양육을 하면서 좀 더 내 아이도 제대로 키우고 많은 지역의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참여하게 됨
-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기를 수 있을까 혼자만의 능력으로는 부족하고 지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지역에서 소규모로 아이들을 돌보다 보면 괜찮은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기대를 하면서 매개자 활동을 시작하고, 할수록 심오한 뭔가가 있다는 생각에 청소년과에 입학하여 공부를 하고 향후 대학원 진학도 고려 중임

○ 평소 교육 및 지역교육 현장에 대한 관심

- 평소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개자 활동 전에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을 통해 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만 잘 사는게 아니라 지역에 좀 관심을 뒤야겠다 생각을 하고 자녀의 학교와 본인의 회사를 그만두고 지역에서의 역할을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마을강사에 대해 인지하게 됨

학교 어떡하지 세상에 나는 내 애만 잘 기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구나. ... (중략) ... 2015년부터 이왕이면 나는 이제 우리 아이와 그 또래에 관심을 갖게 됐으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살지 진로에 관심을 갖고 또 진로가 좀 정해지면 그 복잡한 상황이 좀 정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렇게 관심갖고 그리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원 대학교도 청소년교육과 다니면서 하다가 여기 완주로 내려왔는데 완주에 학교 진로 강사로 들어갔었거든요.

- 학교 진로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 한명 한명을 깊이있게 바라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겼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매개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참여함. 학생의 진로탐색과 선택은 개인의 성장을 넘어 지역사회의 미래를 형성하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역사회는

학생들에게 학습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여 학생들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이루기 위한 지원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결국 지역사회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함

○ 본인의 역량강화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활동 재개

- 뒤늦게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하면서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배우는 학업에 관계된 것에 관심을 가지면서 자녀 학교의 학부모 활동을 통해 센터를 알게 되고, 학교마을강사나 매개자로서 활동하면서 스스로의 잠재능력을 인식하게 되고, 배운 것이 지역사회나 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함
- 평소 교육현장에 관심이 있었고 학교 마을강사가 되어 지역사회에서 내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역량도 강화하고 지역, 학교에 도움이 되고자 함. 특히 교육학 전공이 계기가 되었는데 지역사회 발전 차원에서 학업의 수준이 수도권이나 광역시에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향상되어 지방의 학생들도 교육의 우수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활동의 동기가 됨

○ 자녀 재학 교사 및 센터 임직원의 권유에서 비롯

- 자녀가 다니는 학교의 권유로 수업을 받다보니 자녀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계속 교육을 받게 되었고, 실제 수업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 아이들의 생각과 표현에 대한 관심, 어떻게 대처해 줘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교육과에 편입하여 학생들의 자존감과 동시에 스스로의 자존감에 대해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됨
- 자녀 학교의 교감선생님이 센터장을 소개해 주어 도입 단계 교육을 받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 처음에는 학교 밖에서 체험지도사로 교육을 수행하였으나 교육이 이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매개자 진입을 하면서 학교 아이들과 많이 소통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평상시 관심이 있었던 사회복지 분야로 편입을 하여 졸업을 함

○ 매개자 교육을 통해 학부모나 지역주민들이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센터장을 우연한 기회에 만나 지역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역과 사회가 함께하는 토요일봄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매개자 교육을 접하게 됨. 매개자 활동이나 지역교육 활동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지역교육, 학교마을 교육이 뜻 그대로 지역을 알고 지역특성화에 맞는 교육을 하는게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됨

나.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의 적정성과 어려움 및 개선방안

- 사전-교육-사후의 3단계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이 어느 정도 적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각 단계 운영의 필요성과 가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 필요, 이를 보다 체계화하기 위해 매뉴얼이 확보되면 교육을 표준화 하는데 도움이 됨
 - 교육과정 내 각 과정이 전체 큰 그림 중에 어디에 해당하고 교육의 의의와 가치를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함. 또한, 학교마을강사와 별도로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는 매개자가 구체적인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수업을 실제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교육시켜 주는 심화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매개자 양성이 개설되니 단순히 신청해서 이수하기 보다는 매개자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 인지시키는 교육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이는 매개자가 정확히 무슨 역할을 하는지 모르고 교육을 이수하게 되니 이후 활용을 안 하는 수료자가 누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사전(매개자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교육(프로젝트 수업의 전체 과정을 회차별로 구분하여 교육)-사후(교육 후 학교 현장경험의 어려움 점과 필요한 부분 교육)을 구분하여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
 - 기초와 심화과정의 기본 매뉴얼이 확립되어 그 누군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도 일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매개자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교육, 나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과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 및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및 관계 형성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의사소통 도구 활용의 생소함과 더불어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시뮬레이션되지 않고 사전에 피드백을 받지 못해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음

의사소통 도구를 활용해서 내 의견을 제시하고 같이 모두 내에서 협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과정이 처음에는 되게 생소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의견이 잘 안 맞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희는 교육 중에 이제 그 과정 중에 수업하는 활동을 시뮬레이션도 해 보기로 했거든요. 연구원들이나 선배 매개자들한테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이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어떤 부분이 좀 고쳐져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보완되어야 되는지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좀 그거를 처음에는 이렇게 대면에서 면전에서 이렇게 받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 아이들과 대응하고 관계하는 것은 경험이 중요하여 학교 현장에 투입되어 경험하면서 배우면 되지만 의사소통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방법이나 이해 정도는 배워서 내가 인지하지 않으

- 면 아이들한테 내가 쉽게 알려주지 못하는 부분인 것 같아 교육이 필요함
- 실제 현장수업에서 매개자의 정확한 역할과 개입 정도를 파악하는게 어려워 다양한 사례 공유와 매개자로 활동하는 본인의 마음가짐을 다지는 시간이 필요함

테이블에서 매개자의 개입 정도, 매개자의 역할이 의견을 촉진시키고 아이들이 의견 내기 어려우면 촉진도 시켜주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조율하는 역할로서의 매개자의 역할이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개입을 해야 되는지, 의견나누기는 어느 정도 선은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아이들이 한 테이블에 있다 보니 아이들 간에 감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테이블 매개자로서 이 자리에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제 눈에 봐도 분명히 애가 잘못했거든요. 근데 그 테이블에서 직접적으로 이걸 내가 잘못했잖아는 매개자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개입을 어디까지 해야지 이 아이한테 이게 잔소리일까 아니면 내가 합당한 의견 제시일까 이 선 지키는 게 힘들었어요.

- 요즘 아이들의 의사소통 방식을 이해하고 아이들의 언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며 공감하면서 의사소통 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또한, 각기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이야기하고 관계를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능력이 매우 중요함
- 각 단계의 과정이 내면화되는 데까지 시간 부족, 이를 위해 프로젝트 수업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의 전체 과정을 회차별로 구체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며, 수업의 축소판 형태로 실제 경험하는 과정 및 현장실습이 필요하며 사례 위주의 교육 강화
- 수업이 15회차 정도로 운영되는데 매개자 교육과정은 프로젝트 수업의 축약본을 운영되고 있어 구체적으로 과정에 대한 근거와 이유에 대해 배워 아이들의 질문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우리 매개자 교육과정이 우리 저희가 현장에서 수업하고 있는 프로젝트 수업에 축약본처럼 그렇게 해서 매개자 교육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 (중략) ... 그 과정들을 막 짧게 축약해서 저희는 이제 단시간에 이것들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게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한테 A4 용지를 접어서 네 칸을 만들고 포스트잇을 붙이고 ... (중략) ... 이러한 규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애들은 접으라고 하면 이거 왜 접냐고 물어보고... 접기 싫으니까 왜 접냐고 물어보겠지만 특별히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하기 싫으니까 물어본 걸 수 있는데 저희는 대답을 적정하게 잘 해줘야 하고 ... (중략) ... 그걸 잘 인지하지 못하고 들어갔을 때 아이들한테 대답을 제대로 해 주지 못하면 아이들이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충분히 매개자들이 이해하고 내 걸로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기본적인 거는 좀 교육과정에서 자세히 들어갔으면...

- 양성과정과 교육과정의 차이와 기초 및 심화과정을 명확히 구분하여 교육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짧은 교육을 통해 아이디어를 만들어 가는 등 직접 교육현장에 투입된다는 두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임
- 매개자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바로 학교 현장에 투입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각 과정을 이수하면서 과정들을 익숙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다양한 상황별 예시 등이 논의되는 교육의 장이 필요함

매개자가 현장에서 수업하기에 아이들이 다 각각의 성격이 다르고 이 학교에 벌어지는 상황 다르고 저 학교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다르고 이 반과 저반에서 벌어지는 상황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려보지 않고 내 아이만 키우다가 현장 학교에 투입이 되는 되게 당황스럽거든요. 저도 처음에 그랬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좀 교육과정에서 실습처럼 이렇게 다양한 상황별 예시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매개자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서로 의논하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어떨까? 현재 제가 수업하면서도 내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맞나라고 드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이렇게 공유하면서 같이 논의해 보고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서로 간에 자기들의 생각을 나눠보는 그런 시간들도 교육과정에 포함되면 좋겠다.

- 후배 매개자들에게 사례 발표를 해 보니 사례위주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된다는 피드백을 받았고, 실제 서로 역할을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현장경험이 간접적으로 쌓이는 그런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매개자 양성과정 전반에 선배 매개자들의 지원을 통해 현장 적응력 제고 필요
 - 주차별 매개자 양성과정이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구성 단계부터 매개자나 학교마을강사가 참여하여 수업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현장의 경험을 최대한 많이 담는 것이 필요함
 -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요즘 아이들의 반응이 다양하나 유사한 행동패턴이 있으므로, 실제 사례 중심의 발표와 피드백을 통해 현장 대처능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요즘 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행동 패턴이 비슷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냥 현장에 있으셨던 분들이 실제 사례 위주로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 해 주고 사례 발표해 주고 이 상황을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좋아요라는 식의 수업이 진행되는 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바로 가더라도 좀 덜 자랑스러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 매개자 양성과정에서 교육적으로 이론과 원칙에 대한 충분한 학습 부족으로 이를 보완한다면 교육 내용 전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봄
 - 매개자 양성과정에서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과정을 왜 해야 하는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른 채 이수했음을 인지함. 이 활동이 왜 필요한지 아이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매개자가 확실히 배워야 하므로 각 과정의 활동이 왜 필요한지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론 과정이 필요함
- 매개자의 감정회복능력, 10대 청소년 문화,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교육기획능력의 부족함을 느껴 관련 교육 필요
 - 매개자 교육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알아보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의미있음. 따라서 나 자신을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 나와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함
 - 아이들과 직접 수업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별 대처가 쉽지 않으므로, 교육과정에서 실습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함. 즉, 다양한 상황별 예시와 그에 따른 대처 방안 등을 교육과 실습을 통한 경험이 필요하며, 특히 아이들과의 소통과 관계 형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매개자 역할이 감정노동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많아 매개자 자신들의 자기조절 회복능력, 회복탄력성을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함

저희들이 하는 일이 감정노동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일들에 감정노동에 많이 빠지는 이런 거를 자기 조절 회복 능력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이런 게 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최근 청소년 문화의 변화속도가 매우 빨라 그런 변화의 흐름에 대처하지 못하면 교육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교육이 필요함

다. 매개자 활동 중 에로사항 및 요구되는 지원방안

- 테이블 매개자로서 프로젝트 수업에서 학생들 속으로 개입하는 수위에 대한 조정이 어려우며, 이는 사전-사후 피드백 과정에서 선배 매개자로부터 조언을 들어 해결함
- 학교 선생님들에 비해 아이들의 이야기에 더 귀 기울이려고 하고 기다려 준다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매개자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나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거나 예의를 지키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하는지 어려우며, 소수의 학생으로 인해 테이블 전체의 교육 분위기가 흐려질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지 수위 조정이 어려웠으나 선배 매개자들의 조언으로 해결함

저희는 아이에게 어떤 처벌도 제재도 할 수도 없는데 이 아이가 수업에 대한 의욕도 없는 아이를 끊임없이 처음에는 푸시해 보지만, 이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로 인하여 다른 테이블 안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어느 선까지의 개입이 필요한지가 가장 어려웠어요. 해결하는 방법은 역시나 선배님 매개자님들의 조언으로 해결했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간간히 목소리를 높여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요즘은 좀 조금 얘기하고 있지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매개자는 그렇게 혼내고 화내고 그러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속으로는 들어주고 잘해줘야 했는데 내가 너한테 계속 잘해줘야 되나 어디까지 잘해줘야 되나? 아이가 변하면 그로 인한 기쁨은 엄청 크지만 아이가 변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빠들어지면 내 자식한테도 이렇게 안 참아주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참아주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니라는 그런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 민감한 사춘기 청소년들과 학업에의 집중도가 낮은 학생 대상 수업이 어려워, 청소년 문화와 눈높이 대화 및 학생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노력과정이 어려움
- 학생들과의 관계 형성이 매번 중요하고 고민이 되는 것으로, 혼내고 싶으나 혼내면 수업이 전혀

- 진행이 안되는 문제가 있어 당근과 채찍을 잘 조절하면서 감정을 조정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움
- 학생들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그들만의 밈과 같은 청소년 언어를 써 가면서 반복하는데, 어디까지 강력하게 얘기해야 하는지 어려움이 있고, 제지에 대한 학생들의 자존감 문제를 야기하는 경우가 있음

- 억지 및 무논리로 대응하는 학생들을 수업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어려워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면서 독려하거나 별도의 대화시간을 통해 변화를 기다려줌
 - 모둠 안에서 무슨 일이 생길 때 억지 논리고 자기 주장만 옳다고 무논리로 대응하는 경우, 아무말도 안하는 아이를 수업에 참여시키는 과정이 가장 어려운 과정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상황을 증재시켜 마무리를 지으면서 해결하고 있음. 예를 들면, 이름을 불러준 다거나 역할을 부여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나, 이러한 과정의 노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려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이들은 이름을 불러준다던가 또는 아이가 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 기록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발표는 무조건 안 하기 때문에 기록을 한다거나 뭐 포스트잇이나 이런 거 정리하게 한다거나 이렇게 자기 역할을 조금 주게 해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키는 식으로 하고, 아이가 잘 해냈을 때 그 아이에게 칭찬도 해 주고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변하는 게 보여서 그것 때문에 계속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함에도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그리고 그렇게 이제 무논리로 대응하는 아이를 논리적으로 이해시키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시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 학생들의 좋지 않은 수업참여 태도로 수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전체 수업에서 공론화를 통해 개선안 도출을 통해 해결함
 - 교육이 주제 선택이나 자유학기제 수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보면, 공교육 안에서 아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과 다르게 인지하여 학생들의 수업참여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으나, 이러한 학생에 대해 대응하는 것이 어려워,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 문제 해결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함

다른 일정을 빼가는 거잖아, 아이들을 빼가요. 다른 일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수업 시간에 학생들을 추려서 빼가요. 그래서 저는 2주를 한 명 데리고 수업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학생 한 명이 여기 오고 싶었는데 거기 가서 수업 참여를 못해서... 담당을 하는 주임 선생님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권한이 큰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인위적으로 차출을 해 가 버리는 거죠. 소소하게는 그냥 뭐 대체 수업이라든지 단축 수업에 대한 그런 공유 자체가 안 되니까 저희가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학교에서의 저희의 역할이나 중요도는 학교 입장에서는 저희도 그렇게 크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 신규 매개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선배 매개자의 관찰 등을 통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수업시간 외 사전·사후 피드백 시간까지 활동시간으로 인정하고 장거리 이동에 따른 예산 지원, 수업에 필요한 진행비 지급 등 필요
- 활동지원으로 연구원의 관찰자 입장에서 신규 매개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나 이때 선배 매개자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들에 대한 소정의 수당 지급 등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음. 또한, 수업 시간 외 사전피드백과 사후피드백 등 다양한 시간을 내야 하는 부분과 지역 특성으로 인해 장거리를 요하는 학교에 배정받는 경우 교통비 지원 등 적절한 보상이 필요함

성장일지 쓰면서 아쉬웠던 게 쪽 쓰다가 어떤 때는 정말 쓰면서도 답답할 때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저는 처음에는 성장일지 쓰는 게 되게 짜증 났어요. 왜냐하면 난 열심히 썼어. 어떤 때는 고민도 쓰게 되잖아요. 이게 분명히 문제의 상황이 있었을 때 물론 같이 선배분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연구원 입장이나 센터 입장도 들어보고 싶을 때가 있어서 쓰지만 피드백이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후인터뷰는 듣고만 마나 보다, 보고만 마나 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어떨 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도움이 필요할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피드백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접적으로 대면에서 매번 만나지 못한다면 읽으시잖아요. 읽을 때 그거에 대한 절절한 건 아니더라도 읽었는데 이 상황에서는 이게 좋아요 정도의 그런 멘트들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 일을 할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간당 1만 1천 원 1만 얼마잖아요. 그래서 1만 얼마 받는데 다른 거라도 이 정도 더 받죠. 근데 사실 이게 2시간에 관한 금액이지만 모든 강사가 그렇긴 하지만 준비 시간, 하는시간, 사후 시간은 배제된 그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금액까지 나눈다면 시간당 1만 원 되려나 최저임금이죠. 최저임금 받고 하는 그래서 아이들도 무시하나 그 생각을 해 본 적도 있어요.

○ 학교 교사들의 급작스런 매개자 수업의 변동·취소 지양

- 학교 교사들이 연말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수업일정을 빼거나, 일부 학생들을 별도 프로그램에 투입함으로써 팀 프로젝트 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데 어려움이 발생한 사례가 있어 정해진 수업에 대한 수업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사전에 미리 공유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필요함

○ 프로젝트 수업시 현장실행으로 인한 모듈별 재료비 지원

- 프로젝트를 수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듈별 다양한 재료비가 필요하나 재료비가 사전에 마련되지 않은 경우 좋은 프로젝트 주제를 학생들과 발굴했어도 재료비가 들지 않는 방향으로 수업 운영 전략을 변경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프로젝트별로 적정 수준의 재료비 예산이 제공하고 그 안에서 활용하도록 지원이 필요함

이번에도 현장 실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처음에 준비한 거는 안대가 필요했는데 전체 학생들이 28개 안대 구입하기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 그럼 대체방법을 생각해 보자 하다가 다른 선생님들 모듈에서 아이들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집에 있으니 그거 갖고 와서 대신 그걸로 대체하자. 그래서 마스크를 사용해 가지고 하고 이런 과정들이 조금 약간 아이들한테 좀 미안하고 좀 선생님들이 좀 우리의 사비라도 써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그렇게 잘못 이렇게 생각하면 질 낮은 이런 식의 수업으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아이들의 현장 활동 실행이나 이런 걸 할 때 좀 재료비들은 그래도 좀 넉넉하게 해서 너희들이 말한 이 정도는 선생님이 해 줄 수 있도록...

라. 매개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한 지역사회와 학교의 시선

- 다수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수업방식에서 소외된 학생들을 교육에 참여시키는 차원에서 매개자의 지속적인 관심과 자존감 향상을 위한 역할은 매우 절대적임
- 일대 다수의 수업 방식에서 소외된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낼 수 있게 하고 모둠수업으로 아이들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매개자의 역할의 필요성을 인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처음에는 교사가 학생들 지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하나 실제 매개자를 통한 교육경험을 통해 한명 한명 세부적으로 살펴봐 주는 과정을 통해 최초의 부정적 시선이 전향되는 경험을 함

처음 시선은 내가 혼자 할 수 있는 거를 너네 이렇게 떼로 와서 하나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좀 기우적인 시선이었다가 막상 우리 수업을 경험해 보면 하나하나 아이들을 저렇게 세심하게 좀 봐서 아이들이 수업에 간접적으로 말도 안 들어먹는 걸 이렇게 좀 뒤로 빠져 있던 소극적인 아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도 얘기하고 좀 더 열심히 활동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구나 그런 게 조금 많이 인식이 개선이 돼니까. 확 변화가 되지는 않아도 태도의 변화가 있는 건데 1년 내내 발표도 한번 안 해봤다는 아이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저희는 돌아가면서 발표를 민주적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발표를 하게 하는데 어떤 친구는 소감으로 수업 내내 목소리 한 번도 못 들었던 애의 목소리를 오늘 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조금 갖지 않을까 발표도 한 번 안 하고 소극적으로 봐서 그냥 수동적이던 아이들이 조금 더 능동적인 태도로 변하는 게 보이긴 하는 것 같아요.

- 모둠수업의 형태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모든 학생들의 의견과 생각에 공감해 주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자존감 향상, 진로탐색 역량, 책임감 등 태도 변화와 성장이 이루어짐
- 매개자는 지식전달이 아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상호 협의와 조정과정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들의 사회성과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됨
- 프로젝트 수업 과정에서 아이들이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학생들끼리 논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에서 매개자의 역할이 중요함

매개자의 역할과 중요성이라고 생각하면 아이들한테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면서 아이들의 긍정적인 성장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매개자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들은 지식 위주로 수업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제 그 아이들의 긍정적인 성장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사회성과 가치관 형성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 처음에는 여러명의 매개자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당황해하던 교사가 1:1 학생 케어가 되는 것을 보고 교사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도 함

처음 수업 들어갈 때 여러명이 들어가니 담임선생님이 당황하셨다가 수업시간 중이나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을 모두 1:1 케어가 되는 걸 보시고 좋아함(우리 반에는 힘든 아이가 있어요, 이런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또한, 초등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는데 전 아이들이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없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이들을 기다려 주지 않았네요.'

- 지역사회에서 매개자 스스로의 자부심은 크게 인식하나, 학교나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매개자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함
 - 지역사회에서의 중요성은 본인 스스로의 자부심 크기로, 학교에서의 중요도는 교사의 입장에서는 크게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학생들의 인식변화를 가져온다는 점이 매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학생들이 매개자와 선생님의 위치를 구분하여 인식함으로써 올바른 수업태도를 가질 수 없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학교 선생님의 매개자에 대한 소중한 인식과 학생들에 대한 지도가 교육의 효과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

학교에서의 인식이 이제 마을 강사나 이런 방과 후 교사들을 그런 이제 교육자로서 이제 공교육의 선생님들하고 같은 위치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런 학교에 그런 게 투영이 돼 가지고 아이들도 저희한테 알게 모르게 그렇게 대접을 하는 게 아닐까

2. 매개자 체제 지원 관계자 대상 인터뷰 분석 결과

가. 매개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의 관심 동기

- 지자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중심, 지역전문가들이 문제해결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지역내 인구유출을 방지하는 방법의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라고 판단하면서 관심을 가진
 - 매개자 프로그램이 지역 전문가들이 지역 안에 있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모델이라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판단하고 관심을 갖게 됨
 - 교육아동복지과 업무를 맡으면서 교육통합지원센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는데, 지역에서 두 아이를 카우면서 해당 프로그램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이 지역의 인구 유출을 막는 방법이 교육이고, 매개자 프로그램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함
- 지역내 강사양성 단체의 대표 및 강사로 근무하면서 지역내 교육 배려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 제공, 교육격차 해소 등을 통한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매개자 교육은 적절한 시스템이라고 판단되며, 교육과 지역사회 연결을 위한 역할 기여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함
 - 학교 학부모 동아리 활동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와 인연을 가지면서 강사양성 단체의 강사로 근무하게 됨. 특히, 학부모들이나 아이들의 요구를 담아 학교마을사업에 들어가면서 매개자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학교의 원취지에 공감하면서 양성 교육을 받게 됨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학교마을 원래의 취지가 아이들을 한 명 키우는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때의 슬로건 같은 그런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우리 내 아이 옆에 있는 친구들도 행복하면 다 같이 행복하잖아요. 내 아이만 행복한 그런 세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한번 교육에 한번 참여해보면 어떨까 생각을 가지고 들어갔던 거거든요.

- 교육복지사는 사회복지시설이 축소되어 있는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학교와 지역, 가정이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효과적이므로 이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교육통합지원센터와의 연계를 위해 직접 발로 뛰면서 일을 함. 특히, 집중지원 학생, 우선지원 학생 및 다문화가정 등 복합적인 취약성으로 지역과 학교, 가정의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교육복지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교육 배려

학생들이 직면한 교육기회 및 교육과정 상의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 맞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완주 내 학부모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접하면서 교육통합지원센터를 통한 인재발굴을 알게 되어 현재 지역내 강사양성 단체의 대표로 근무하고 있음. 특히 개인적으로 교육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역할에 관심이 많아 전래놀이와 같은 전통문화 교육을 통해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고 있었으며,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교육자와 학습자 간의 효과적인 소통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매개자 프로그램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함

- 완주군 관내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성장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 교육적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매개자 프로그램이 지역사회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관심을 가짐
 - 관내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지역에 대한 애정을 키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지역사회교육의 중요성을 느낌. 강사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성장하는 즐거움을 느낌과 동시에 매개자 프로그램의 가치를 인식하고 해당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심을 가짐

- 관내 교육지원청과 학교 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마을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습동기 강화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아이들의 삶과 콘텐츠 연계를 학교 현장에 구현하기 위함
 - 마을 교육과정의 개념에서 마을이 중요한 개념으로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구현되는 교육과정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임. 교육학적으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의 실제 삶과 콘텐츠 내용을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함. 이는 콘텐츠 차원뿐만 아니라 마을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교사가 모든 역할을 다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을교사로써 마을주민이 학교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올 필요가 있음

쌍떡잎식물, 외떡잎식물을 가르치면서 교과서에서는 그 지역에 나는 식물들을 예를 들지는 않았을 거 같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그 예를 주변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하자는게 사실은 마을 교육과정인데 그건 교육과정 본연의 문제지 마을이다, 마을이 아니다 이 부분 자체가 사실은 부질없거든요. 근데 워낙 그 부분이 척박하고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마을 교육과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거세게 운동처럼 이렇게 일어나긴 했는데 그런 일이라면 당연히 우리가 도와야 맞고 정말 최초로 시작됐던 그 시작점이...

나. 매개자 프로그램 체계 구축 및 안착을 위한 중점 사항

- 지역에서의 교육, 교육공동체 발굴 및 육성과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지역에서 교육, 아이들에 대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가진 공동체나 동아리를 발굴하는 일에 역점을 두고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부담이 있음에도 믿고 책임있게 끊임없이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 고 생각하여 제도적·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자 노력함
 -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전국 최초의 시도이므로 조례를 만들어 지원한 단체이기 때문에 전라북도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음. 센터장이 13개 읍면에 대해 질적연구를 한 것이 기반이 되어 지역이 교육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으므로 믿음을 갖고 따라주면서 지원함. 결국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매개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았던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 입소문이 나면서 안착하게 된 계기가 됨

성공이나 실패를 떠나서 일단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그런 진정성을 봤거든요. 그분들이 초기에 와서 활동했던 거를 제가 눈으로 보고 경험을 몸소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분들이다라는 걸 팀장인 제가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는 순간이 왜 없었겠어요? 예를 들면 예산이 좀 줄어들 수도 있었겠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뭐야 항상 물어봤어요. 매개자가 뭐야? 항상 그 매개자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쉽게 표현해 봐. 그런 제안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분들에게 항상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마다 제가 설명을 했지만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혜택을 입었던 분들이 역으로 이거 너무 좋은 프로그램들이야. 이제 그런 거를 행정 이 이제 워선이나 아니면은 의회 쪽에 어떻게 보면 반대로 이렇게 좋은 소문들이 이렇게 나서 지금까지 사실은 오게 된 거죠.

-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 유도, 학교교육 소외 학생들에 대한 교육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가 함께 지원하는 교육체계라는 믿음으로 지원
 -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관심 유도, 교사의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여 학부모, 학교교육청, 지역사회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여 아이들이 심리적·교육적으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의 교육서비스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지원함. 이와 같은 과정에서 행정적으로 워선이 바뀌면 직접 현장에 모시고 가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거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부담스러울 때는 다른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비용적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지원함

-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협력체 구축 및 교육 안전망 구축
 - 지역 자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구축 및 교육 안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함. 특히,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관계자 연수, 컨설팅, 모니터링 등을 끊임없이 함으로써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시스템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매개자들이 지역사회 교육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역량강화 지원에 집중;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 전문 강사진 초빙, 지속적인 성장 지원
 - 기초, 심화, 실습과정 등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며, 매개자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재정지원 및 연수기회 제공 등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또한, 학교 및 지역사회 기관과의 공식적인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협력모델 구축이 필요함
 - 매개자들이 지역사회 교육의 핵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 지원에 집중함. 특히, 이론·실습 및 현장경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면서 매개자의 역할과 역량을 고려하였으며, 각 분야 전문 강사진을 초빙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매개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였고. 매개자들의 지속적인 성장 촉진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멘토링 프로그램, 워크숍, 스터디 그룹 운영 등)을 지원함
 - 매개자 교육이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다양한 매개자 교육이 이루어져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다면은 더욱 좋겠지만 여전히 학교는 완고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교사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이분들의 전문성으로 보완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아직은 좀...

학교는 190일 동안 보통 진도라고 하는 해야될 과정이 있어요. 이것들을 수행하려면, 거기에 들어있는 수많은 정보를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강박관념이 교사들에게 있습니다. 교과서 진도를 못끝내고 다음 회를 넘어간다면 도덕적 책무를 선생님도 매우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면 외부인이 이 시간을 줘라, 그러면 아이들과 함께 뭔가를 해 보겠다고 하는데 물론 훌륭한 교육이 일어날 수 있으나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교과서의 진도를 못하는 상황이 생겨서 어떤 프로그램을 선택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던 게 이제 매개자라는 용어를 안 쓰고 사람책이라는 걸 쓰고 각 영역별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한 30명 정도... (중략) ...

저는 사람책이라는 개념으로 사람책, 휴먼 라이브러리 이런 관점에서 처음에는 이 사람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진로교육 차원에서 진로를 먼저 생각하면서 설계를 했었는데 이 사람의 삶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그래서 비록 전문적인 학식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해당 분야에서는 나름 나름의 경지를 이룬 분들이...

- 학교 교육에서 다양한 수요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나 마을기반 교육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나, 안정적인 프로그램이나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함
 - 마을기반 교육이 교육학적으로도 당연히 전제되어야 하고 국가 교육과정 차원에서도 지향하는 방향이나 학교 교사는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이동해야 함으로써 근무지 기반 마을에 대해 상세히 알기 어려워 마을교사가 교육과정 안으로 들어와야 하나 이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과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함

다. 매개자 양성과정의 취약점 및 개선 방안

- 매개자에 대한 객관적 검증절차 미비로 인한 전문성 인정에 대한 의구심 → 매개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평가시스템 필요
 - 민간자격증이나 국가자격증 등 매개자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공교육 영역에 진입하여 교사들과 같이 학생 교육을 한다는 점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자격연수와 같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민간자격증 도입 및 급수를 활용하여 체계화하여 고경력자와 실력있는 매개자에 대해 사회적으로 인정해 주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발급하는 기관으로 교육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을 검토해 보는 것도 가능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 고용 불안정으로 인한 지속적인 활동 보장 부족
 - 매개자의 지속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어려워 고용 불안정 문제와 체계적인 평가 및 피드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연수와 함께 피드백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하며, 지역사회 기관과 협력하여 활동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합리적인 평가 등을 통해 우수 매개자에 대한 인센티브로 강의 우선 배정이나 인증제 도입 등이 가능할 수 있음
- 매개자 마을학교 인력자원 범위에 대한 개방적 인식 전환 필요
 - 완주군의 마을학교 인력자원의 범위에 대해 보다 개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즉, 완주군에서 매개자 교육을 받은 경우 매개자의 가치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관내 근접거리 지자체 거주자를 포함하여 관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완주군 인력자원으로 DB화하

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개자에 대한 용어의 순화 등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보다 강화되는 것이 필요함

- 담당자 수시 교체 및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협력 체계의 방향성 통합의 어려움
 - 학교의 관련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학교와 지역사회간 교육협력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다자간 협업을 통해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매개자 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협력 체계 마련이 필요함
 - 지역사회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한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지역사회와의 괴리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매개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의 인지도 제고에도 어려움이 있음

- 신규 매개자 참여의 미비로 인한 다양성과 역동성 저하 및 매개자 역할과 정체성 미비
 -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프로그램 내용이 반복되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부족해져 참여자들의 흥미와 참여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참여자 유입이 부족해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잃을 수 있는데, 이는 자칫 프로그램의 형식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따라서 신규 참여자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매개자 역할에 부응하는 보상체계 마련을 통해 신규 인력이 참여동기를 마련해야 함
 - 매개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매개자들 스스로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이는 매개자들이 소속감과 책임감 부족으로 공동체 의식 형성에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

- 교사와 외부인과의 코칭을 함으로써 역할과 책무성 문제 발생 여지
 - 학교 교육임에도 외부인에 의한 코칭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므로 외부인에 의한 코칭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역할을 상호 미루는 문제 등의 발생 여지가 있어 교육에 대한 책무성 강화가 필요함

학교의 어떤 인식 문제예요. 학교 입장에서는 외부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게 코칭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학교 마을 뿐만 아니라 코칭이 가진 맹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코칭이 결국에는 각자의 어떤 전문성을 활용해서 두 개의 전문성이 교실 안에서 발현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서로 미루는 상황이 돼요.

생활지도 파트는 보통 교원이 해야 되는데 코칭이 되면 강사한테 다 맡겨버리는 극단적인 경우에는 실제 교실 안에 같이 안 있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소수의 사례겠지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나 교원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코칭에 대한 인식이기도 하고 학교 마을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도 조금 저희가 기대하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피상적인 코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학교나 교원의 학교 마을과 코칭에 대한 인식이나 책무성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라. 매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관련 기관의 역할

- 지자체: 객관성, 전문성을 반영한 인증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행·재정적 지원의 일관성 유지,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 및 우수사례 홍보, 유관기관들과의 지속적 연대의 장 마련, 매개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 제고
- 매개자 프로그램의 객관성과 매개자의 전문성을 반영한 인증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함과 동시에 전국 최초로 기획되는 인증시스템이 전국 단위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함으로써 매개자 프로그램에 대한 자부심과 신뢰 제고에 앞장서야 함

지자체는 어쨌든 간에 객관성이나 전문성이 확보된 검증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왜 필요하고 중요한지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 다음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잘된 모범사례 같은 거 홍보하고 그리고 인증시스템이 도입되면 최초일 거잖아요. 그러면 교육부라든지 다른 기관에 역선택될 수 있도록 제안도 좀 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 학교마을강사 및 매개자를 통한 지역기반 교육의 중요성을 홍보하여 지역사회 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타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함
- 특히 지자체는 매개자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교육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군청과 교육청이 같은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함
- 매개자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및 지역내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 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발굴과 교육 및 연수지원, 매개자 프로그램 학교 수요 및 프로젝트 주제 발굴, 관련 모든 자료의 관리 및 홍보, 사후관리, 지역내 다양한 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교육의 시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 필요
 - 센터에서는 매개자 대상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확대하여 최대한 많은 매개자들이 참석 가능하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매개자 양성과정 운영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를 포함한다면, 학교 상황에 기초한 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이 보다 수월할 수 있음
 - 학교마을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사전에 학교 수요 확인을 통해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해당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예산 책정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함. 또한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것도 의미가 있으나 먼저 센터 차원에서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이를 학교에서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센터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외 사후관리에 좀 더 역점을 두어야 함. 특히, 기록을 강화하여 매개자 처음 도입 이후 인증까지 일련의 절차와 과정을 기록·관리하여 DB를 구축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매개자 선생님들이 개별적으로 기획하고 개발한 교육과정의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면서 교육과정과 교재 등을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통합지원센터는 기록을 했으면 좋겠어요. 기록을 해서 매개자를 발굴해서 인증하는 절차들을 기록, 관리하고 홍보, DB 구축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가능하면 선생님들이 교육과정을 개별적으로 기획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작권에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공교육에서 예를 들면 고교학점제 이런 데까지 도입이 된다고 해서 연결되려고 하면 뭔가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작권의 문제를 해소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개인이 만드는 그런 교육과정이나 교재 이런 것들도 딱 시스템으로 만들어 교육통합지원센터와 완주군이 같이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저작권도 좀 생각해서 세팅을 좀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 매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센터 운영의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함. 센터에서는 교육돌봄 지원기관 및 문화와 농촌 분야 등의 다양한 기관들과 연대를 강화하여 지역 내 교육의 시너지를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센터 운영이 안정화가 돼야 매개자 프로그램이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관 기관들이랑 연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 (중략) ...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저희 되게 좋은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교육 돌봄이나 아니면 문화나 농촌이나 다양한 기관들이 있어서 연대를 하면은 충분히 시너지가 날 것 같고 진로 멘토라고 해서 꽃머 프로그램이 있기는 해요. 근데 개별적으로 아셔서 연락해서 섭외하고 그런 루트인 것 같더라고요. 그 기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군청이나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이랑 그리고 매개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가 좀 있어야 그래도 지속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센터에서 매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음에도 학교에 매칭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홍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학교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홍보가 좀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좋은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 (중략) ... 통합지원센터에서도 매개자들을 많이 양성하고 있는데 사실 매칭이 잘 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양성을 했는데 이렇게 좋은 매개자를 활용을 못하고 있으니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교육기관 매개자 양성을 시켜놓고 학교에 수업을 들어가는데 학기 교육과정을 저희도 조금은 알아야 거기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교를 갈텐데 그 부분이 아직은 사실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 교육청 및 학교: 제도적 지원 및 예산 확보, 매개자 역할 인정 및 협력 모델 구축
 - 타 교육청에 좋은 사례를 확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연수나 교수법 등과 관련된 교육훈련시스템에 대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교육청 같은 경우 다른 교육청에 이런 사례들도 좀 확산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강점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 훈련 시스템이라든지 연수라든지 또 수업과 관련된 기법 이런 거는 교육청이 누구보다도 잘 운영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지식이나 노하우는 좀 공유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 교육청에서 관심을 갖고 학교간 협의체 구성이나 차년도 예산 확보를 위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면 학교들의 협조를 이끌어 내기 수월함
- 학교에서는 매개자의 역할을 인정하면 지역사회와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지역사회단체 및 기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협력, 자원 연계, 홍보 및 참여 유도
 - 지역내 다양한 기능과 역할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상의 협력을 하고,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연계하면서 매개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참여 유도를 하는 것이 필요함
 - 기업은 사회공헌 활동의 차원에서 기업의 자원을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협조하면 좋을 것임
 - 지역 내 언론기관은 매개자 프로그램 홍보와 우수사례 소개를 적극적으로 한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확산과 인식 전환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마. 매개자의 교육적 역량수준 및 역할에 대한 인식

- 지역사회에서 매개자를 바라보는 시각은 긍정적·부정적 시선을 동시에 갖고 있음
 - 지역사회 전문가로 친근감, 친밀감을 갖고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으며,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의 실질적 업무를 분담해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공고한 교직 시스템을 거쳐 입직한 교사들의 외부인에 대한 배척하려는 경향이 일부 있어 매개자들이 이런 인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따라서, 학교가 열린사고를 하고 보다 개방적으로 될 필요가 있으며, 마을교사 혹은 지역주민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전문성을 전문가로 인식할 필요가 있음

학생들은 우리 지역 안에 있는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친근하고 친밀감이 형성돼 있는 분들이라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고요. 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실질적인 업무 분담을 해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인 평가시스템이라든가 인증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과연 교사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사실은 살짝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교사라고 인정을 100%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 매개자는 학교가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의 역할을 하는 교육적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학습의 다양성을 확보해 주는 긍정적 역할을 함
- 매개자 프로그램은 지역기반 교육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학교교육의 보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있으나, 매개자의 전문성 부족과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 그리고 교사 역할 침해 등의 차원에서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매개자에 대한 인식 개선, 역량 강화 및 안정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

○ 매개자는 내용 및 교육적 전문성 등 다양한 역량이 요구됨

- 교육내용과 관련된 전문성(교육이론, 교수설계 및 평가방법, 교육자로서의 윤리적 책임감 등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안의 자기 및 타인이해, 공감, 관계형성, 협업이 가능하도록 기획하고 실행하는 능력,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필요함

저는 갖추어야 될 역량 당연히 학교에 선생님의 입장으로 가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든지 학습지도 능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또 문제해결 능력도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그때 수업하다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대처해야...

이분들의 전문성이 콘텐츠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필요하지만 아까 문제해결능력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상황을 유연하고 매끄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지극한 어떤 존중이라고 해야 되나 어떤 아이들조차도 그런 힘이 있다고 보여져요. 아까 인내라고 했잖아요. 그걸 기다려주고 끊임없이 기다려주고 학교는 못 기다리거든요. 그걸 끝까지 기다려주고 참아내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뭘 내가 기대했고 아니면 어느 물리적인 시간이 이만큼 투여됐으면은 아웃백이 이만큼 나와야 될 걸이라는 그런 예상이 사실은 부질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 나오더라도 오히려 그걸 견뎌내고 사람은 언제 변할지 모르잖아요.

- 교육이론, 교수설계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한 이해도, 학생지도 및 상담 능력, 학생과의 상호작용 능력 및 학교와 소통능력이 필요함
- 교육자로서의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자기개발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지역사회와의 다양한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고 다른 매개자들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
-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수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매개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 내 교원에 의한 수업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매개자간 강사의 질 문제 해소가 필요함

- 학교 교육의 제1원칙은 교원에 의한 수업이고 마을교육과정을 추가적으로 필요에 의해 추진되는 것으로 해당 분야의 내용 전문가일 수 있으나 교수학습 방법, 학습자에 대한 이해(교수학습법, 교육심리 등)가 필요하며, 매개자간 강사의 질 편차의 문제 해소가 필요하나 역량강화와 질 관리를 위한 인증시스템 등의 제도 안으로 들어올 동기도 부족하다고 판단됨
- 강사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자로서 이수해야 하는 기본적인 의무교육(예, 아동학대 예방, 폭력예방, 심폐소생술 등)을 무조건 이수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강사는 배제하고자 하며, 그 외 추가적

으로 교수학습법 등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이 추가되어야 함

강사의 질도 가장 근원적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의무교육이랄지 학교에 들어와서 수업을 하는 외부 강사들이 최소한 이수해야 되는 의무 연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동학대 예방이랄지 폭력예방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 같은 거 안전과 관련된 최소한의 연수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무조건 이수를 해야 된다. 학교 안에 사실은 작년에 이수를 하지 못한 강사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강하게 그런 강사들은 프로그램에서 배제될 수 있다라는 점을 고지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센터의 문제라고는 할 수 없는게 이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강사분들도 다수는 아니지만 소수분들은 내가 한 시간에 3만 5천 원, 4만 1천원 받으려고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건 그런 의무교육을 받는 건 기본이고 거기에 추가로 아까 교수학습 지식이랄지 교육심리 학생들에 대한 연령 발달단계에 따른 어떤 그런 것까지 딱 해주면 최소한의 어떤 강사의 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는 부분들...

- 학교급간 전문성을 확보한 매개자 파견 시스템 구축 필요
 -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교사들도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교사가 분리되어 교육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매개자의 경우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대상을 분리하고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대상이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교사도 초1부터 중3까지 가르치는 교사는 세상에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타겟 그게 어떤 강사의 질이나 프로그램 질과 맞닿아 있을 것 같아요. 대상이 명확해지면 수요자가 명확하면 그거에 맞는 프로그램과 강사의 질을 확보하는 건 쉬운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강사와 프로그램이 없죠.

바. 매개자의 우수성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및 협력모델에 대한 의견

- 매개자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교육기관의 협력은 필수적임. 정기협의체 운영, 매개자-학교 협업 프로그램 개발, 매개자 공동 연수 실시, 지역사회 교육자원 공유 플랫폼 구축, 지역사회 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다양한 협력모델 운영을 통해 매개가 강사의 역량 강화 및 프로그램의 효율성 도모가 필요함

- 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시 협업, 수업 시연과 공개수업 등의 과정을 통해 교수법 모니터링, 연수 프로그램 개발 자문, 서로 잘 할 수 있는 전문영역에서 전문성 발휘할 수 있도록 자문역할 수행
- 정기협의체 운영: 지역자원 발굴 및 학교-지역기관과의 연계·협력 위원회 및 통합지원팀 구성 운영
- 매개자 선임 및 슈퍼바이저 지정을 통해 교육의 질 확보, 교육과정 매뉴얼 및 기록 보존·관리, 방과후학교 강사 수준의 강사수당 현실화, 매개자들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동아리활동 예산 지원 등 필요
- 매개자 활동의 지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적 정책 마련과 더불어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 확보 필요
- 교육지원청-학교, 센터-군청의 이원화 소통 채널 구조를 만들어 학교 대상 모니터링, 설문조사 및 피드백은 교육지원청의 역할로, 마을기관은 센터에서 관리하여 과정과 결과를 교육지원청과 센터가 공유하는 체계로 해야 학교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음

3. 종합 및 시사점

- 본 절에서는 매개자 5명과 매개자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 전반 지원에 참여하였던 관계자 7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한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매개자 프로그램에 참여한 동기는 참여 매개자들은 평소 교육 및 지역교육 현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으며, 자녀를 마을 공동체 안에서 잘 키우고자 하는 욕구와 자녀 양육 과정 또는 이후 자아실현의 욕구 차원에서 참여하였음
- 현재의 매개자 양성 과정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되고 있으나 각 단계 운영과 매개자 프로그램의 가치 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확보, 양성과정

의 기초-심화 단계와 같은 체계화와 표준화 차원에서 보다 고려가 필요함. 또한, 학교의 아이들과 소통과 공감에 중요한 매개자의 역할을 고려한 관련 교육 강화 외 사례 위주의 교육을 통해 현장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매개자들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스스로 발굴하고 유도하기 위한 한 학기 또는 1년 동안의 장기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의 참여에 개입하는 수위 조정에 대한 어려움과 청소년 문화에 대한 낯설음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선배 매개자와의 멘토링이나 사례 소개 등이 교육과정 내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매개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받는 보수의 적정 수준에 대해 강사비 외 프로젝트 수업 준비와 사후관리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원거리 이동에 대한 배려 등에 대한 단가 산정을 원천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이는 우수한 매개자 확보가 지역 기반 학교교육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재정적 차원의 손익실 외 교육적·사회적 유·무형의 가치를 재산정할 필요가 있음
- 학교 측의 갑작스런 일정 및 취소 등이 간혹 발생하고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안내하는 배려의 모습이 필요하며, 매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전년도 예산 산정에 재료비 등을 미리 충분히 반영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완주군에서 14여년 마을과 학교의 교육통합을 실시하면서 초기의 매개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외부인이라는 시선이 존재함. 최근 지역소멸 추세에 교육의 개별화, 다양화 등 다양한 사회적·교육적 이슈를 학교 현장의 교원으로만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교육통합의 우수사례가 소개되면서 매개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미비한 수준으로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홍보가 필요함
- 완주에 교육통합을 시도할 당시 행정적 차원에서 해당 정책이 지역의 인구소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으며, 교육과 지역사회의 연결고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기대는 현실에서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매개자 프로그램은 지역에서의 교육, 학교-가정-지역사회 연계 교육공동체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완주지역의 대표 특성화 사업이라는 자부심이 생길 만큼 지역 내에서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
- 그러나, 매개자들은 여전히 교육현장의 지원인력으로써 역할 대비 충분한 보상과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선순위는 매개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교육을 담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양질의 교육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연수 및 훈련 등을 통한 역량강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기본적인 의무교육외 교육자로서의 소양교육, 학생들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한 교육 등을 우선적으로 매개자 양성과정에 배치하는 것이 필요함
- 매개자를 활용한 지역내 교육통합이 보다 업그레이드 되고 완주군 내 안착하기 위해서는 완주 교육통합지원센터가 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나 각 기관의 가치관과 관심 여부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안정적 지원체계와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또한, 지역내 매개자 프로그램의 우수사례 발굴 등을 통한 매개자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강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함

VI. 완주군 매개자 양성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 방안

- 매개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즉, 기존의 사전-교육-사후의 3단계 통합체계를 매개자 양성의 사전교육과 실전 교육활동과 사후활동으로 구분하여 매개자가 되기 위한 사전교육을 명확히 제시하고, 세부 교육내용의 이수여부에 따라 매개자 프로그램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그림 VI-1] 매개자 양성과정 개선안

1. 사전교육

- 사전교육 단계에서는 매개자 과정 전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소양교육, 교육학일반, 프로젝트 수업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이수해야 함
 - 사전교육은 학교현장에서 담당 교사와 코칭으로 교육활동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교사로서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해당 과정을 이수하지 못하면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전교육을 통해 방과후교사나 학교마을강사와 매개자의 전문성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 과정이 이수되었음은 매개자로 교육활동에 투입될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의미함

가. 매개자 과정 오리엔테이션

- 지역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매개자 제도의 의의와 가치, 매개자의 역할과 정체성, 매개자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개요 등을 중심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함

나. 소양교육

- 소양교육은 미성년자인 학생을 지도하는 교원으로써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으로 온·오프라인 방식을 혼합하여 총 12시간으로 구성함
- 교육의 내용은 아동학대예방교육, 폭력예방교육, 심폐소생술, 성인지교육으로 구성됨
- 아동학대예방교육은 공공부문 종사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온라인으로 1차시 이수하면 되며, 이수결과 수료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교육결과를 갈음할 수 있음
- 폭력예방교육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학교에 소속된 사람 모두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필수교육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4개 영역에 대해 연 1회, 1시간 이상 총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서 운영하는 온라인 강좌를 이수할 수 있음

- 심폐소생술은 「학교보건법」, 「교원자격검정령」에 의거 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및 예비 교원 까지 모두 이수해야 하는 교육으로 교원양성과정 학생은 3시간의 실습을 2회 이상 이수해야 하나, 매개자 대상 3시간까지 1회 이수를 기본 교육으로 제시함. 본 과정의 경우 국가에서 인정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한 후 발급된 교육이수증을 제출하거나, 센터에서 단체로 면대면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성인지교육은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라 교원양성과정에 있는 학생은 성인지교육을 연도별 교육1회(4차시를 모두 이수하면 1회로 인정함) 이수를 필수로 정하고 있어 4시간 이수를 사전 교육과정에 포함시킴. 해당 교육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개설한 성인지교육과정 중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거나 센터에서 매개자로서 교육현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교육과정을 선별하여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다. 교육학 일반

- 교육학일반은 크게 교육자의 역할 및 학교마을교육과정(1h), 교수학습법(4h), 교육심리(3) 등으로 구성되며 총 8시간으로 구성하여 제안하나 센터의 사정에 따라 일부 융통성있게 조정가능함
- 교육자의 역할 및 학교마을교육과정에서는 매개자의 역할과 정체성, 학교 교육과정의 전체 개요 및 창의적체험활동, 지역사회 연계 학교마을교육과정의 중요성과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교육내용을 구성할 수 있음
- 교수학습법은 프로젝트 기획 및 개발을 위해 교수설계체제모형, 교수전략 및 다양한 교수학습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음
- 교육심리는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른 인지, 학습자의 동기, 학습자 다양성 및 사회정서와 도덕성 발달, 생활지도와 상담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함

라. 프로젝트 수업 시뮬레이션

- 본 과정은 교원양성체제가 초등과 중등으로 이원화되어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따라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사와 코칭을 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의 2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별도로 운영함
- 매개자 대상 설문조사 및 FGI를 통해 가장 교육에 대한 요구가 많았던 의사소통도구 활용법을 2시간 배정하여 교육을 실시함. 본 과정에서 학생과의 의사소통방법과 전략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학교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다양한 의사소통도구에 대한 안내와 활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함
- 프로젝트 기획 및 문제해결방법론은 앞서 제시된 교육학 일반 영역의 교수학습법에서 일부 내용을 다룰 수 있으나 교육학일반 영역에서는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교육학 이론적 차원의 교수설계체제모형을 학습하는 것이고, 본 과정에서는 실제 프로젝트 주제를 발굴하고 이를 다양한 문제해결방법론을 활용하여 결과를 도출하는 미니 과업을 실시함으로써 교육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함
- 마이크로티칭 및 멘토링은 2시간으로 운영되는데 앞의 단계에서 실시한 프로젝트 기획 및 문제해결방법론의 미니 과업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 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설정하고 매개자간 학생과 교사의 역할을 정해 역할극의 방식으로 마이크로티칭을 진행함. 이때 선배 매개자가 해당 과정에 참여하여 마이크로티칭을 관찰하고 이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는 과정임

2. 교육활동

- 교육활동은 학교 교사와 코칭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사전인터뷰, 프로젝트 기획 및 수업계획서 작성, 수업준비 상황 점검, 프로젝트 수업(모둠활동 관찰&촉진), 결과발표회, 사후인터뷰를 실시함

가. 사전인터뷰

- 사전인터뷰는 외부인으로 학교 현장에 투입되는 매개자들이 학생들의 가정지지체계, 교사지지 체계, 또래지지체계, 무기력과 욕구에 대해 면밀히 파악함으로써 팀활동으로 이루어지는 프로젝트 수업을 잘 지도하기 위한 첫 단계임. 다만 기존의 사전인터뷰 진행을 위한 양식지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제안함

<표 VI-1> 사전인터뷰 질문 변경안

구분	현재	수정안
가정지지 체계	언제 일어나니?	누가 깨워주니?
	아침은 누가, 뭐하고 먹니?	아침은 누가 차려주고, 오늘 뭘 먹었니?
	학교는 어떻게 오니?	학교에 어떻게 오니?
	집에 언제 들어가?	집에 몇 시에 들어가고, 누가 계시니?
	저녁은 누구와 언제 먹어?	-
	집에서 누구와 얘기하나?	집에서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은?
	집에서 기분 좋을 때(힘들 때)	집에서 기분 좋을 때(안 좋을 때)
	언제 자니(자기 전까지 뭐하니)	-
교사지지 체계	집에서 기분 안 좋을 때	삭제
	학교가고 싶지 않을 때?	-
	가장 좋은 수업(다음으로)	-
	고민을 터놓을 땀(터놓고 싶은)?	-
또래지지 체계	학교에서 주로 가는 곳은	-
	학교에서 믿을 만한 친구는(그 다음은)?	-
	학교 밖에서 믿을 만한 친구?	-
	친구랑 뭐하고 놀아?	-
	친구랑 속상할 때는 언제?	-
무기력과 욕구	-	함께 있으면 불편한 친구는?
	학교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언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니, 얼마나 자주 그래?

	학교 끝나면 가장 먼저 가는 곳	학교 끝나면 가장 먼저 가고 싶은 곳은?
	평소에 자주 가는 곳은?	-
	주말에 뭐하니?	-
	좋아하는 게임은?	게임을 즐기니, 그렇다면 주로 어떤 게임을 하니?
	요즘 관심거리(하고싶은 것)는?	요즘 관심있는 것은 뭐니?
	어떨 때 우울하니	삭제
	욕구	미래 꿈은 뭐니?
기타	강점	자랑하고 싶은게 있니?
	기타	내가 다른 친구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니, 있다면 뭐니?

나. 프로젝트 기획 및 수업계획서 작성 :

- 사전인터뷰 과정을 마치고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프로젝트 주제를 기획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해진 수업주차에 맞추어 수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단계임. 현재까지 매개자들이 수업계획서 작성을 별도로 하지 않고 교육에 임하였으므로 향후에는 교육학 일반에 대한 사전교육을 토대로 이론적 근거를 갖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업계획서를 작성함. 수업계획서는 통상적으로 파견되는 학교에서 활용되는 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도록 함([그림 VI-2] 참조)

■ 수행평가

교육과정 성취기준		
평가기준	상	
	중	
	하	
평가요소		

■ 정의적 능력 평가

주제	
교육과정 성취기준	
정의적 능력 평가요소	
정의적 능력 평가방법	
평가지기	

[그림 VI-2] 수업계획서 양식

다. 수업준비 상황 점검

- 기존 교육통합실천 모델의 '사전피드백'에 해당하는 단계로 학생들 대상 사전인터뷰 결과와 프로젝트 기획 및 수업계획서 작성 이수 실제 프로젝트 수업을 위해 필요한 도구나 재료, 돌발상황을 대비한 교육환경 점검, 모듈 내 주요 관찰 대상 학생의 상황 점검, 자리배치 등을 본 단계에서 실시함

라. 프로젝트 수업

- 본 단계는 기존의 '모둠활동 촉진과 관찰 및 현장실행' 단계를 통합하여 명명하였음. 매개자를 통한 프로젝트 수업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단계로써 말이 없고 참여가 소극적이거나 산만한 매개자의 촉진이 필요한 대상을 확인하고 팀 단위 프로젝트 수업에서 역할을 부여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잠재력을 발굴하는 모둠활동 촉진과 학교 밖 탐방을 통해 프로젝트 결과물 도출을 위한 다양한 공간을 재구성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역할을 배정하고 팀별 규칙을 만들어 역할을 스스로 수행하여 프로젝트 결과를 완성하는 단계임

마. 결과발표회

- 기존의 '사후시사회'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실행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만든 결과물을 발표회를 통해 공유하고 모듈과 각자의 역할을 돌아보며 성찰하는 시간으로 팀내·팀간 동료평가를 통해 아쉬운 점과 성장한 점을 되돌아보면서 학생들 간 서로 격려와 소통의 장을 만들어주는 단계임. 결과발표회는 동영상, 역할극, 프레젠테이션, 사진전 등 프로젝트 주제에 따라 결과물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학생들의 투표를 통해 다양한 시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음

바. 사후인터뷰

- 모든 프로젝트를 마치고 학생들과 매개자가 만나는 마지막 과정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동안 의미있던 시간과 힘들었던 점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성장을 가늠하는 과정임. 다만 사전인터뷰의 내용 대비 사후인터뷰를 통해 본 프로그램의 성과를 일관되게 추출하고 객관화하기 위해 사

전인터뷰 양식을 준용하여 사용할 것을 제안함. 다만 기존에 활용하던 사후인터뷰 문항은 성찰 일지의 형식([그림 VI-3] 참조)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일시	교사
이름(성별)	학년/반
프로젝트 주제	수행 기간
1.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장 의미있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유는 무엇인가?(마음열기, 모듈구성, 모듈별 규칙정하기, 장소정하기, 주제·미션·역할 정하기, 현장 활동하기, 영상제작 등)	
2. 이 프로젝트가 다른 프로그램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	
3.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의견내기, 결정하기, 발표하기, 생각하기, 다른 사람의 이야기 듣기, 원칙 지키기, 참을성갖기, 친구 배려하기, 계획하기, 친구와 잘 지내기, 친구에 관심갖기, 계획하기, 실천하기 등)	
4. 프로젝트가 자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학교생활, 친구관계, 가정생활, 기타 등)	
5.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6.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서 보니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이고 이유는 무엇인가?	
7. 프로젝트를 함께 해 온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은?	
8. 나에게 이 프로젝트는 ○○이다?	

[그림 VI-3] 성찰일지 양식

사. 성장일지

- 성장일지는 매개자 본인의 교육자로서의 성장일지를 작성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교육 이후 작성하는 ‘수업일지+매개자 본인의 성찰일지’의 개념을 합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기존의 성장일지 양식을 준용하되 개선안을 제시하면 [그림 VI-4]와 같음

성명		일시	
학교		학년/반	
모듬명		모듬학생	
프로젝트 주제		결설자 및 사유	
수업목표			
수업내용			
수업소감 및 학생지도 등			
특이사항			

[그림 VI-4] 성장일지 양식

3. 사후활동

- 사후활동은 사전교육을 통해 매개자되는 준비를 완수하고 실제 교육현장에 파견되어 한 학기 또는 1년간의 교육활동을 마친 이후 센터 주관으로 매개자들간의 성과공유회와 관계기관 정기협의회를 통한 피드백으로 이루어짐

가. 성과공유회

- 성과공유회는 일련의 모든 교육활동이 끝난 이후 센터 주관으로 한학기 단위로 교육활동에 참여했던 매개자들이 전부 모여 프로젝트의 성과와 아쉬운 점을 공유하고 논의하는 행사임
 - 교육활동에 참여한 모든 매개자들은 사전교육 단계에서 어려웠던 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교육 활동 일련의 과정에서 학생과 교육자로서 본인의 성장과 차후 활동에서 개선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10분 내외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짐
 - 성과공유회에서 신임 매개자들의 경험과 고충에 대해 선배 매개자들이 피드백을 해 주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매개자간 상호간의 소통과 경험 공유의 기회를 제공함

나. 관계기관 정기협의회를 통한 피드백

- 관계기관 정기협의회는 센터-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매개자-학부모로 구성하여 한 학기에 1회 또는 연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구성하여 운영함
 - 마을교육과정 운영의 주체가 되는 기관이 함께 모여, 매개자 프로그램의 운영 경과를 공유하고 성과와 개선 사항을 논의하여 차기 프로그램 운영에의 시사점을 도출함

V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 2014년 매개자를 통한 통합교육이 전국에서 최초로 완주군에서 시행된 지 1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지역내 많은 교육적 성과와 긍정적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나, 급속한 사회변화 및 교육적 요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새로운 역할과 정체성을 재정립할 시기가 도래함
- 이에, 본 연구는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의 개선 및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진단, 교육현장의 정규 교과과정에서 교육자로 활동하는 매개자의 역할을 고려하여 2022개정 학교 교육과정의 동향 및 교사 양성과정 현황 분석, 매개자 양성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 매개자 양성과정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제시를 주요 연구내용으로 하였음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활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매개자 대상 조사연구, 매개자와 매개자 프로그램의 행·재정적 지원을 위한 관계자 대상 FGI, 전문가협의회 등을 수행하였음
 - 매개자 대상 조사연구의 경우 센터를 통해 배출된 120여명의 매개자 중 94명이 응답하였으며, 매개자 양성과정 및 교육활동 과정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매개자 활용 학교 및 지역사회의 교육만족도, 매개자에 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음
 - FGI는 2차에 걸쳐 진행하였는데 1차는 매개자 5인에 대해 매개자 양성과정 및 활동상의 애로사항 및 문제점, 매개자의 학교교육 및 지역사회에의 영향, 매개자 역할 범위의 확대 가능성, 매개자에게 필요한 역량 및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음. 2차는 매개자 프로그램의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지자체 공무원, 매개자 교육강사, 학교장 및 교육복지사, 교육지원청 장학사 등 총 7인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매개자 프로그램 운영상의 문제점 및 개선요구 사항과 매개자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 매개자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인식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방안 등을 중심으로 FGI가 진행되었음

- 전문가협의회는 평생교육 및 학교교육 분야 교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3인에 대해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받았음
- 본 보고서는 2022 교육과정 및 교원양성 프로그램 동향, 완주군 매개자 양성과정 운영 현황, 매개자들의 양성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식 분석, 매개자 양성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을 위한 인터뷰 분석, 그리고 매개자 양성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개선방안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5년도부터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은 지역·학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운영, 학생 맞춤형 교육,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가능한 교육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특히 학생 개개인의 인격적 성장을 지원하고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위한 공동체 의식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은 학교의 유연한 교육과정 구성권과 삶과 연계한 학습 및 학습과정에 대한 성찰을 중심으로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의 조화로운 운영을 강조하고 있으며, 창의적 체험활동은 전체 교과과정 대비 10.34%~13.65%의 비율로 구성되어 있음
 - 기존의 4개 영역을 3개 영역으로 조정하면서 봉사활동이 모든 활동과 연계되도록 함. 특히, 자율·자치활동은 자율활동과 자치활동으로, 동아리활동은 학술·문화 및 여가활동, 봉사활동으로 구분되며, 진로활동은 진로탐색활동과 진로설계 및 실천활동으로 활용될 수 있음
 - 교육과정 개정 및 사회변화에 맞추어 교원양성 프로그램이 변화하고 있는데, 교원의 역할이 지식교육 외 학생의 성장·진로개척을 함께하는 협력자, 갈등과 문제해결을 위한 소통·중재자 및 미래를 유연하게 준비하는 혁신가로 변화되면서 현행 교원양성 프로그램은 현장역량 배양을 위한 실무형 교육이 강화되고 다교과 역량 함양이 중요한 요소로 반영됨
 - 지역·학교가 함께 만드는 교육과정 운영의 강조로 지역 기반의 매개자를 활용한 학교교육의 지원은 새로 개정된 교육과정을 반영하기에 매우 적절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며, 지식교육 외 협력자, 소통·중재자, 혁신가의 다양한 교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을지 사회변화와 교육 및 교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에의 구성이 필요함
- 매개자 양성과정을 진단하고 매개자들의 성장일지를 분석한 결과 매개자 양성과정 운영상의 개선요구 사항을 도출하였음
 - 매개자 양성과정인 교육통합 실천모형은 사전-교육-사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전 단계

내에는 사전인터뷰, 교사협의회, 프로젝트 기획의 하위 요소가 포함되고 있고, 교육 단계에는 사전 피드백, 모둠활동 촉진과 관찰, 사후피드백, 현장실행, 사후시사회의 하위 요소가 있으며, 사후 단계에는 사후인터뷰가 속해있음. 또한 양성과정 전 과정에서 의사소통과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하며 매개자들은 성장일지를 작성하면서 교육자로서 성장해 나가는 구조를 갖고 있음

- 매개자 양성과정 중 사전인터뷰는 가정지지체계, 교사지지체계, 학교지지체계, 무기력과 욕구의 4 가지 차원에서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설문문의 내용을 학생을 둘러싼 환경의 지지체계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으로 일부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성장과 변화를 일관성있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후인터뷰에서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프로젝트 기획을 위한 논의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주제 선정 이후 재료비나 활동비 등의 현실적 문제가 프로젝트 수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학교별 재료비나 행정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수업계획서를 미리 사전에 작성하여 교육 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함
- 사전피드백과 모둠활동 촉진 및 관찰 단계, 현장실행, 사후시사회 등은 매개자 양성과정에 들어오는 사람이나 이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능한 용어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사전피드백은 사전이라는 단어와 결과에 근거한 차기 과정을 위한 피드백이라는 용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수업준비상황 점검'과 같이 모두가 쉽게 이해가능한 용어로 단계를 바꾸고, 모둠활동 촉진 및 관찰 단계는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매개자의 핵심적 역할로써 활동단계와 역할이 혼재되어 있어 활동단계에 부합한 용어 사용을 권장함. 또한, 사후시사회는 해당 단계의 기능을 고려하여 '결과발표회'로 용어를 변경 사용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성장일지는 교육일지와 매개자의 성찰일지 2가지의 역할을 겸하는 것으로, 현재의 양식은 이러한 기능을 다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모둠원, 결석자 및 사유, 프로젝트 주제, 수업내용, 수업소감 및 학생지도, 특이사항 등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94명의 완주군 매개자를 대상으로 양성과정 전반과 교육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인식과 문제점 등을 설문조사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매개자 과정 진입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적은 보수, 장거리, 많은 시간 할애, 자녀양육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매개자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매개자 역할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순위로 꼽은 역할은 교사이고, 2순위는 멘토, 3순위는 촉진자로 조사되었음
- 매개자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 예산과 인프라 부족, 학교의 관심 부재, 교육주체의

공감대 부족과 홍보 등 일반시민의 인식부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매개자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전활동-교육활동-사후활동의 3단계에 대해 난이도와 중요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으로 2.74로 어렵지 않게 인식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중요도는 다소 높은 수준인 3.63으로 나타으며 성별·연령별·매개자의 전공분야별로 중요도와 난이도에 대한 인식차이가 있어 매개자의 개인적 배경을 고려한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보다 효율적인 과정 운영이 될 것임. 또한, 가장 어렵게 인식하고 있는 영역은 사전활동 내 프로젝트 기획 단계이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은 교육활동 내 현장실행 단계임. 이는 프로젝트 기획에 대한 교육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함
- 매개자들의 경험을 토대로 매개자에게 중요하게 요구되는 역량은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능력과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으로 조사되어 해당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내용의 비중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매개자들은 매개자 양성기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어 양성과정 기간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매개자 활용 교육이 지역교육공동체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매개자 활동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지원을 위한 조례 등 규정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위한 군청-센터-지역교육청과의 협의가 필요함

○ 매개자와 매개자 프로그램 기획·운영 과정에서 지원에 참여했던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FGI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현재의 매개자 양성 과정이 학교 교육현장에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기에 많은 부분 도움이 되고 있으나 각 단계 운영과 매개자 프로그램의 가치 등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확보, 양성과정의 기초-심화 단계와 같은 체계화와 표준화 차원에서 보다 고려가 필요함
- 매개자들의 교육활동 참여에 따른 시간과 노력, 교육적 효과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원거리 이동에 대한 배려 등 단가 산정을 원천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특히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학교측의 갑작스런 일정 취소나 재료비 예산 미반영 등은 매개자들의 마을교육 과정 운영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학교 현장에서 교육과정의 일부를 담당하는 교육자로서 전문성을 인정받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속적인 연수 등을 통해 역량 강화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매개자에 대한 인식이 초기에 비해 긍정적 교육적 효과의 확산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실정으로,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함

- 매개자를 활용한 지역내 교육통합실천이 보다 업그레이드 되고 완주군 내 정착하기 위해서는 센터-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지역사회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협의와 소통하는 것이 필요하며, 각 단체의 기관장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수준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정적 지원체계와 협력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
- 매개자 양성과정 운영의 진단과 매개자 및 관계자 대상 설문조사와 FGI 결과를 토대로 매개자 양성과정을 새롭게 제안하였음
- 기존의 사전-교육-사후의 3단계 통합체계를 매개자 양성의 사전교육과 실전 교육활동과 사후활동으로 구분하여 매개자가 되기 위한 사전교육을 명확히 제시하고, 세부 교육내용의 이수여부에 따라 매개자 프로그램 배정이 이루어지도록 함
 - 사전교육은 교육활동의 전 단계로써 해당 교육이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개자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필수과정임. 사전교육 단계는 매개자 과정 오리엔테이션, 소양교육, 교육학일반, 프로젝트 수업 시뮬레이션의 4가지 요소로 구성됨
 - 교육활동은 담당 교사와 코칭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사전인터뷰, 프로젝트 기획 및 수업계획서 작성, 수업준비 상황 점검, 프로젝트 수업, 결과발표회, 사후인터뷰의 6개 요소로 구성됨. 또한, 매개자들은 프로젝트 수업 단계부터 성장일지를 매 차시마다 작성하고 교육활동 전 과정에서 센터와 매개자, 학교와 매개자, 학생과 매개자, 매개자 간 공유와 소통을 기본원칙으로 전 교육과정이 이루어짐
 - 사후활동은 성과공유회와 관계기관 정기협의회를 통한 피드백의 과정으로 구성됨

2. 제언

- 완주군에서 매개자 프로그램이 10여년 동안 지속되어 안착되었던 주요 요인 중의 하나는 마을 교육과정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긍정적 인식과 이를 뒷받침해 주는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함께 했기 때문이다. 향후 매개자 프로그램의 질적 도약과 이를 통한 지역의 마을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사회 내·외 홍보 강화 및 능력있는 매개자 발굴**
 - 매개자를 통한 지역기반 학교교육과정 운영은 학생들에게 의미있고 가치있는 교육을 제공해 준다는 의의를 가진다. 동시에 지역내 유휴 인력을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시켜 지역사회에 애착을 가지고 자기실현을 통해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매개자의 학교 교육에의 기여 외 지역사회 발전 및 정주율 확보 등에 기여한다는 거시적인 차원의 시각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능력있는 매개자 발굴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 **완주군완주군교육통합지원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교육통합지원협의체의 내실있는 운영**
 - 타 지자체에서 마을학교의 개념으로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으나 완주군의 매개자를 통한 교육통합모델은 전국 최초이면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회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기관장이 교육통합모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원의 규모와 수준은 상이하게 되고 있는 점은 위험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완주군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이는 완주군 내 학교 내·외 교육지원에 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어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을 위한 지원 조례를 추가하여 매개자 지원과 교육통합지원협의체 운영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정적 지원 하에 완주군교육통합모델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 지역에서 교육통합지원시스템이 교육적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절대적 지지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함께 했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교육지원청-학교-학부모-매개자-센터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이상 발전방안에 대한 모색과 문제점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 프로젝트 수업 예산 반영 및 예산관리 주체의 이관

- 프로젝트 기획을 통해 실제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선 학교에서 전년도에 학교마을교육 예산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재료비나 활동비 지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원래 의도대로 양질의 수업을 진행하지 못함.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매개자를 통한 프로젝트 수업을 위한 재료비와 활동비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예산에 대해서는 각 학교 예산에 반영하도록 강제하거나 총 수요 예산을 센터에 이관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매개자 양성과정 이수시간 확대 및 이수자 역할에 적절한 행·재정적 지원 추가

- 매개자들이 4년간의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양성된 교사와 같은 교육현장에서 교육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수준은 아니지만 미성년자를 대하는 교육자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역량은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의 양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확대해야 함. 특히 사전교육의 각 과정 운영에 따른 비용을 정교하게 산정하여 교육의 부실이 초래되지 않도록 재정적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매개자 양성을 위한 사전교육 단계에서 프로젝트 수업 시뮬레이션 시 선배 멘토링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되어 참여하는 선배 매개자에 대한 소정의 수당 지급이 필요함
- 학생들과 처음 만나는 사전인터뷰 단계부터 프로젝트 기획 및 수업계획서 작성, 수업준비 상황 점검, 사후인터뷰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표준화하여 교육활동비로 지급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 부분이 방과후교사나 마을학교강사와 다른 역할을 하는 교육자로서의 역할 대비 적절한 보수 체계를 마련하는 시발점이 될 것임
- 일련의 교육수당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완주군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원거리 이동 매개자에 대한 교통비 지급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매개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매개자 양성과정 운영

- 설문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매개자의 성별, 연령별, 전공분야별 매개자 양성과정의 난이도와 중요도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가능한 범위에서 양성과정에 참여하는 예비 매개자의 개인적 특성에 맞는 양성과정 운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매개자 경험수준에 따른 교육체계 수립 및 인증시스템 연계

- 매개자 양성과정이 비전문가를 지역내 교육전문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단계 교육체계라고 한다면, 매개자의 경험이 축적되는 시기별로 계속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문화적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면, 매개자 3년차, 매개자 5년차, 매개자 10년차 등으로 구분하여 매개자의 수준을 등급화하고 각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한 연수를 제공하여 지역 내 매개자의 전문성 수준을 체계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음. 또한, 이러한 매개자의 경험과 연수경력에 따른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인증해 주는 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음

○ 지역내 매개자 활용의 범위 확대

- 매개자 사전교육을 통해 매개자 준비가 완료되고 교육활동을 통해 매개자가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경험이 축적되다 보면 학교교육 외 지역내 성인학습자 대상 프로젝트 수업 연계가 가능할 수 있을 것임. 기존 성인학습자 대상 교육의 경우 단발성 교육이나 기능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지역과 함께 하는 프로젝트 기반 교육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계발할 수 있을 것임

참고문헌

- 교육부(2021).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
- 교육부(2022). 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별책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 교육부(2022). [보도자료] 2022 개정 초·중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확정·발표.
- 윤소정·주지현·이은영(2013).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체계와 학급응집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열린교육연구*, 21(2). 열린교육연구원.
- 임성희(2024). 활동이론에 기반한 학부모 강사의 교육통합 실천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미출판 박사학위 논문.
- 임성희·김천기(2018). 교육통합모델 수행을 위한 학부모 매개자 되기. *교육종합연구*, 16(3), 103-132.
- 임성희·김천기·임익산·조이영(2017). 교육통합모델 구상과 실천사례연구: 완주군의 교육통합모델을 중심으로. *교육사회학 연구*, 27(2), 141-173.
- Nolten, P.W.(1994).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Social Support: The Development of the Student Social Support Scale.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별첨자료 1】 1차 초점그룹인터뷰 질문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과정 개선
및 매개자 양성과정 고도화 방안 연구

완주군 마을강사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FGI

- 조사 목적:
 - 매개자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수렴을 통한 역량 및 역할 확립을 위한 지원 체계 도출
 - 완주군 학교마을강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주요 관계자의 관점과 의견 청취
- 조사 대상: 매개자(호칭생략; 김찬주, 박보나, 김보련, 서은주, 이민정)
- 조사 방법: FGI
- 조사 절차
 - 참석자 및 진행자 소개
 - FGI의 목적 및 연구배경 설명
 - FGI 주요 아젠다 제시 및 의견 수렴
 - 종합논의 및 정리(식사 안내 포함)
- 조사 내용: 12개 문항으로 구성(설문지는 **【부록】** 참조)

<표 1> FGI 영역 및 문항

질 문		문 항
도입 질문		1. 매개자 참여 동기 및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등에 대한 개인적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본 질문	추진체계	2. 매개자 교육과정은 사전-교육-사후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단계의 적정성과 이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3. 매개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매개자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매개자 활동 및 역할	5.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바라보는 매개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6. 양성과정과 현장 교육과정에서 매개자들의 활동 지원(활동 보수나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해 어떤 아쉬움이나 갈등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매개자로서 학교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사례가 있다면 말씀주시고, 활동 후 교육관계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받은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매개자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환경적 또는 제도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매개자 역량 강화 및 마을강사인증제	9. 매개자로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사소통능력, 교육 기획력 등)
		10. 마을강사인증제가 도입되었을 때 매개자의 활동이나 역할에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가?
		11. 인증제 도입시, 완주군 매개자가 타 지역 강사와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운영적 방안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마무리 질문		12. 그 외 매개자 양성과정 및 마을강사인증제가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부록】 FGI 질문지

1. 매개자 참여 동기 및 교육을 통한 지역사회 성장 등에 대한 개인적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2. 매개자 교육과정은 사전-교육-사후의 3단계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각 단계의 적정성과 이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3. 매개자 양성과정을 이수하면서 어려움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 어려움:</p> <p>- 개선사항:</p>

4. 매개자 활동 중 가장 힘들었던 상황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p>- 어려움:</p> <p>- 개선사항:</p>

5. 지역사회나 학교에서 바라보는 매개자의 역할과 중요성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p>- 역할</p> <p>- 중요성</p>

6. 양성과정과 현장 교육과정에서 매개자들의 활동 지원(활동 보수나 행정적 지원 등)을 위해 어떤 아쉬움이나 갈등이 있으며, 이를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p>- 활동지원 현황:</p> <p>- 아쉬움 또는 갈등요소:</p> <p>- 개선점</p>
--

7. 매개자로서 학교나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끈 사례가 있다면 말씀주시고, 활동 후 교육관계자(학생, 학부모 등)로부터 받은 기억에 남는 피드백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긍정적 변화 사례:

- 긍정적 피드백 사례:

8. 매개자로서 지역사회를 위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추가적인 활동을 위해 필요한 환경적 또는 제도적 변화는 무엇입니까?

- 추가적인 역할:

- 환경적 또는 제도적 변화:

9. 매개자로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의사소통능력, 교육 기획력 등)

- 요구되는 필수적인 역량:

- 본인의 부족 역량:

10. 마을강사인증제가 도입되었을 때 매개자의 활동이나 역할에 어떤 변화가 기대되는가?

11. 인증제 도입시, 완주군 매개자가 타 지역 강사와 차별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운영적 방안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차별화에 대한 의견:

- 제도적/운영적 방안:

12. 그 외 매개자 양성과정 및 마을강사인증제가 안착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또는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무엇입니까?

- 소중한 시간 내어 FGI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첨자료 2】 2차 초점그룹인터뷰 질문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교육과정 개선
및 매개자 양성과정 고도화 방안 연구

완주군 마을강사인증제 도입을 위한 자문회의: FGI

- 조사 목적:
 - 매개자 양성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수렴을 통한 역량 및 역할 확립을 위한 지원 체계 도출
 - 완주군 학교마을강사 인증제 도입을 위한 주요 관계자의 관점과 의견 청취

- 조사 대상: 매개자(호칭생략: 유지숙, 한혜영, 최병훈, 기명순, 곽승미, 임혜영)

- 조사 방법: FGI

- 조사 절차
 - 참석자 및 진행자 소개
 - FGI의 목적 및 연구배경 설명
 - FGI 주요 아젠다 제시 및 의견 수렴

- 조사 내용: 19개 문항으로 구성(설문지는 【부록】 참조)

<표 2> FGI 영역 및 문항

질 문		문 항
도입 질문		1. 매개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본 질문	추진체계	2. 매개자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3. 매개자 양성과정이 10여년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4. 매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개자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5. 지역사회나 학교가 매개자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선과 원인)
		6.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매개자들의 교육적 역량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매개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예: 교육프로그램 기획력, 학생지도 및 소통능력, 문제상황 대응력 등)
		7. 매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매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남긴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매개자 강사의 우수성과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예: 정기 협의체 운영, 강사-학교 협업 프로그램 개발, 인증 강사 공동 연수 실시 등)
		10. 매개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예: 재정적 지원, 연수 기회, 커리어 경로 제공 등)
		11. 이외 매개자 양성과정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이나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마무리 질문		

【부록】 FGI 질문지

【도입 질문】

1. 매개자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본 질문 - 추진체계】

2. 매개자 프로그램 체계를 구축하고 안착할 수 있도록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입니까?

3. 매개자 양성과정이 10여년 지속되어 오는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매개자 프로그램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질문 - 매개자의 역할 및 지속가능성]

5. 지역사회나 학교가 매개자의 역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긍정적 또는 부정적 시선과 원인)

6. 매개자양성 프로그램을 이수한 매개자들의 교육적 역량 수준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한, 매개자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교육프로그램 기획력, 학생 지도 및 소통능력, 문제상황 대응력 등)

- 역량 수준

- 갖추어야 할 역량

7. 매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에 긍정적 변화를 이끈 우수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매개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나 지역사회에 부정적 인식을 남긴 사례를 경험한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 매개자 강사의 우수성과 제도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및 교육기관과의 협력 모델을 구축한다면, 어떤 방식이 좋을까요? (예: 정기 협의체 운영, 강사-학교 협업 프로그램 개발, 인증 강사 공동 연수 실시 등)

10. 매개자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재정적 지원, 연수 기회, 커리어 경로 제공 등)

[마무리 질문]

19. 이외 매개자 양성과정이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할 점이나 강조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 소중한 시간 내어 FGI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9. 학교마을강사(매개자) 교육과정은 크게 ‘사전활동-교육활동-사후활동’ 3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각 단계별 난이도와 양성과정으로서의 중요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개자 교육과정 단계		난이도					중요도				
		매우 쉬움	← →			매우 어려움	매우 중요함	← →			전혀 중요하지 않음
사전 활동	사전인터뷰	1	2	3	4	5	1	2	3	4	5
	교사협의회	1	2	3	4	5	1	2	3	4	5
	프로젝트기획	1	2	3	4	5	1	2	3	4	5
교육 활동	사전피드백	1	2	3	4	5	1	2	3	4	5
	모듬활동 촉진과 관찰	1	2	3	4	5	1	2	3	4	5
	사후피드백	1	2	3	4	5	1	2	3	4	5
	현장실행	1	2	3	4	5	1	2	3	4	5
	사후시사회	1	2	3	4	5	1	2	3	4	5
사후 활동	사후인터뷰	1	2	3	4	5	1	2	3	4	5

10. 귀하께서는 학교마을강사(매개자)를 바라보는 다음 각 주체별 인식수준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분	매개자에 대한 인식 수준				
	매우 부정적	← →			매우 긍정적
학생	1	2	3	4	5
학부모	1	2	3	4	5
학교 관계자	1	2	3	4	5

11. 귀하께서 학교마을강사(매개자)로서 교육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학교의 지원 수준은 충분하엿습니까?

- ① 매우 불충분함 ② 불충분함 ③ 보통임
 ④ 충분함 ⑤ 매우 충분함

12. 지역교육공동체에서 학교마을강사(매개자)의 역할 중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것 3가지를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번호 또는 역할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① 교사	② 멘토	③ 돌봄교사	④ 촉진자
⑤ 컨설턴트	⑥ 교사보조		

13. 귀하께서는 처음 학교마을강사(매개자) 활동을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매개자 역할이 얼마나 충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기대에 매우 못 미침 ② 기대에 못 미침 ③ 그저 그러함
④ 기대한 만큼 충족됨 ⑤ 기대 이상 충족됨

14. 귀하께서는 학교마을강사(매개자)가 지역교육공동체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임
④ 긍정적임 ⑤ 매우 긍정적임

15. 귀하께서는 학교마을강사(매개자)의 역할과 활동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조례 등의 규정 제정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필요하지 않음 ② 필요하지 않음 ③ 보통임
④ 필요함 ⑤ 매우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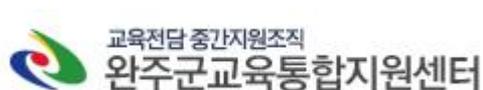
16. 귀하께서는 학교마을강사(매개자) 제도 활성화에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공공기관(교육청 및 군청)의 무관심 ② 개인주의로 인한 공동체 문화 부재
③ 교육주체(학부모 및 학생)의 공감대 부족 ④ 학교의 관심 부재
⑤ 예산과 인프라 부족 ⑥ 홍보 등 일반시민들의 인식 부족
⑦ 기타 (세부 내용을 기입해 주세요)

17. 학교마을강사(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선 또는 매개자 활동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의견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연구는 교육부가 지원하는 완주군, 완주교육지원청, 대학, 지역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지역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예산으로 수행되었음을 밝힙니다.

모두가 누리는 미래 **행복** 도시 완주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연구」

연구책임자: 한지영(대진대학교)

연구자문: 임성희(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발행일: 2025.2.28

발행처: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

이 책의 저작권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에 있으며,
이 책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분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 매개자 양성 프로그램 개선 및 고도화 방안 연구

